

2013 백산학회 학술대회



두계 이병도의
한국사연구와 역사인식

2013. 12. 6(금) 오전 10:00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T.02)2152-5500

- 주최 : 백산학회
- 후원 : 한성백제박물관 (재)국립문희재연구원 (재)충양문화재연구원
(재)관동문화재연구원 (재)한국사문화연구원 (주)디앤디 (주)씨앤에스

2013년 백산학회 학술대회

두계 이병도의 한국사연구와 역사인식

- 주최 : 백산학회
- 일시 : 2013. 12. 06(금) 10:00
-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 후원 : 한성백제박물관,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주)피엔, (주)씨원에스

◆ 일정표

□ 개회식 : (10:00~10:50) ----- 사회 : 이종수
(단국대)

- 접수 및 등록(10:00~10:30)
- 개회사 : 박희현(백산학회)
- 축사 :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 기조강연 (10:50~11:30)

- 한국고대사연구의 정착과정 ----- 신형식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단상정리 및 휴식 (11:30~11:40)

□ 주제발표 1 (11:40~12:20) : 「朝鮮史概講」과 고대사 인식
발표자 : 조인성(경희대) 토론자 : 송호정(한국교원대)

□ 점심식사 (12:20~14:00)

□ 주제발표 2 (14:00~14:40) :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연구
발표자 : 김기덕(건국대) 토론자: 박진훈(명지대)

□ 주제발표 3 (14:40~15:20) :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증
발표자: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 토론자: 정운용(고려대)

□ 휴식 (15:20~15:30)

□ 주제발표 4 (15:30~16:10) : 두계 이병도의 금석문연구 인식과 변화

발표자: 이우태(서울시립대) 토론자: 김영관(제주대)

□ 단상정리 및 휴식 (16:10~16:20)

□ 종합토론 (16:20~18:00) ----- 사회 : 박희현

(서울시립대)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만찬 (18:00~19:30)

◆ 목 차

기조강연 : 韓國古代史研究의 定着過程 (신형식)	3
주제발표 1 : 「朝鮮史概講」과 고대사 인식 (조인성)	12
주제발표 2 :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연구 (김기덕)	29
주제발표 3 : 李丙燾 韓國古代史 研究의 ‘實證性’ 檢證 (이도학)	45
주제발표 4 : 두계 이병도의 금석문연구 인식과 변화 (이우태)	78

개회사

어느덧 늦가을이 저물어 가고 초겨울로 향하고 있는 환절기에 안녕하십니까.

백산학회에서는 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학술대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두계 이병도의 한국사연구와 역사인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계 이병도선생께서는 한국고대사를 비롯하여 한국사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고, 한국사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시는데 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백산학회의 창립 초기부터 학회의 평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두계 이병도선생의 한국사연구와 역사인식을 검토하면서 후학들에게도 한국사 연구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백산학회 회장 박희현

기조강연

韓國古代史研究의 定着過程

신형식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 傳統史學의 成立과 變化
2. 近代歷史學의 展開와 발전
3. 實證史學의 定着

기조강연

韓國古代史研究의 定着過程

신형식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I. 傳統史學의 成立과 變化

현존 최고의 사서인 「三國史記」 이전에 분명히 국사에 대한 책이 있었음은 「古記」를 언급한 金富軾의 글(進三國史表)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백제의 「書記」(고흥 : 375), 신라의 「國史」(거칠부 : 545), 고구려의 「留記」와 「新集」(이문진 : 600)이 있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도 그 존재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문헌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시조의 위대성이나 역대왕의 초인간적인 업적이 주요내용으로서 국가와 왕실의 위엄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¹⁾ 또한 趙仁成은 특히 통일신라에서는 통일을 합리화하고 왕권의 전제화에 따라 역사서의 필요에서 「鄉史」·「花郎世記」·「帝王年代曆」과 같은 사찬역사서가 나타났으며, 점차 유교적 역사서술방법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한국고대사는 檀君이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고구려 또는 신라로 연결된 한국사의 실질적인 서장이지만, 기록의 한계와 다양한 견해로 설명에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역사서술에 있어서 고대에는 독자적인 역사서술방법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中華主義에 맞서야하는 입장에서, 근대이후는 日帝의 식민지사관에 대응할 수 있는 민족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강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5세기에 틀을 마련한 전통사학은 조선후기에 나타난 정치·사회·문화의 변화과정 이후 19세기 후반에서 일제 강점기에는 植民史學의 대응으로 한국고대사는 民族史學의 시각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해방이후 식민사학의 극복과 사회·경제사학을 비롯한 각종 역사학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實證史學의 정착으로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맞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斗溪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증사학이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변천과정에서 익혀온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나타나 18세기에는 安鼎福·韓致齋등을 거쳐 19세기 후반이후 朴殷植·申采浩·安在鴻·張道斌·鄭寅普등 수많은 역사가들의 노력과 시행착오 그리고 植民地史學·社會經濟史學등을 거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이다. 오늘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斗溪史學이 나타날 수 있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까 한다.

1) 이기백·고병익·이우성·천관우, 「우리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삼성문화문고, 1976).

김두진, 고대의 문화의식(「한국사」 2, 민족의 성장, 1978).

이기동, 고대국가의 역사인식(「한국사론」 6, 1979).

_____, 고대의 역사인식(조동걸·한영우·박찬승편 「한국의 역사기와 역사학」 「상」, 창작과 비평사, 1994)

2) 조인성, 「한국사학사의 연구」(을유문화사, 1985).

현존 최고의 사서인 「三國史記」(1145)는 유교적이며 신라위주의 서술이라는 비난은 받고 있으나, 한국고대사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서술체제가 중국 사서(「史記」·「漢書」·「唐書」등)의 틀은 벗어날 수 없었으나, 本紀를 통해 중국과 같은 주권의식을 보여주었으며³⁾ 始祖神話(「삼국사기」에는 박혁거세·주몽, 「삼국유사」에는 단군)의 부각이나 왕권강화를 나타낸 독자적인 年號사용에서도 그러한 의미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1281)의 경우도 비록 불교적 시각은 어쩔 수 없지만 紀異편(2,3권)의 檀君神話를 비롯하여 거의가 왕의 이야기뿐이어서 군주위주(정치)의 고대사서술이 지닌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삼국사기」(열전)에 등장한 69명(부수인물 17명제외)에서 34명이 전쟁과 관련된 7세기에 활약한 인물이며, 그 중에서 21명이 殉國한 희생자(滅私奉公, 爲國忠節)였다는 사실과 같이 「삼국유사」에도 忠孝에 관계된 인물을 부각시켜 두 책이 공통으로 보여 준 국가의식을 나타낸 것으로⁴⁾ 그 후 역사서술에 기준(방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유사」가 편찬되는 전후에도 비록 詩集이지만 「東明王篇」(李奎報, 1193)과 「帝王韻紀」(李承休, 1287)에도 단군(檀君)과 발해문제(고구려계승자)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가 있어 그 의미가 있다.

그 후 조선초에는 實錄편찬에 치중함으로써 본격적인 고대사에 대한 저술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東國史略」(河崙, 權近, 1403)의 우리역사의 계보(단군-기자-위만-한4군-3한-3국「신라」)는 「삼국사절요」(1476, 노사신, 서거정)에서 신라위주의 계보를 극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대사의 계보는 신라위주의 「東國通鑑」(서거정, 1485)으로 이어져 綱常倫理와 仁政을 역사서술의 기본방향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⁵⁾ 18세기(「東史綱目」)에까지 이어져 韓國傳統史學의 방향과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전개된 한국의 전통사학은 18세기 조선왕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實學의 발달에 따라 國學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安鼎福(1712-1791), 韓致齋(1765-1814), 李肯翊(1736-1806), 그리고 柳得恭(1748-1807)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안정복은 「東史綱目」(1756-1778)에서 유교적인 입장으로서의 강상윤리와 修己治人の 시비·충절을 강조한 것은 기존의 시각을 계승한 것이지만, 기존서술체제의 극복과 역사에서의 강역(지도)의 중요성, 참고자료의 인용(최치원 문집)에다 考證과 통일신라(문무왕9년)의 정통성(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고려-대조선 만만세 : 삼국은 無統)은 전통사학의 일대변화가 될 것이다.⁶⁾ 무엇보다도 사료비판과 時勢論, 그리고 고증의 중요성을 통해 遼東이 우리영토였다는 것과 「지도」에서 일본을 倭小國으로 표기한 자주주의식은 「동사강목」의 역사적 가치를

3) 「삼국사기」가 本紀를 통해 중국과 대등한 王의 위상을 높인 것 보다도 중국의 기록은 列傳爲主(「史記」는 77%, 「舊唐書」는 74%)인데 비해 「삼국사기」는 열전이 10권(20%)에 불과해서 중국은 본기(황제활동)가 10%미만이지만, 「삼국사기」는 56%(50권중에 28권)가 되고 있어 왕권의 위상을 부각시켰다.(신형식, 한국 전통사학의 성립, 「한국사학사」 1999)p.87.

4) 정구복, 김부식 사학사상의 업적(「한국중세사학사」 1, 1999).
신형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새로 밝힌 삼국시대의 역사적 진실」 우 리역사연구재단, 2013)p.28.

5) 정구복, 「동국통감」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한국사연구」 21.22, 1978).
한영우, 「조선전기기의 사학사연구」(「서울대 출판부, 1981).
정두희, 조선전기기의 역사인식(「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전덕재, 동국세년가, 동국통감(「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비사, 1994).

6) 안정복의 정통론은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신라(문무왕9년)-고려-대조선만만세로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위 만조선과 진한·변한등은 附(부속)로 삼국시대는 無統으로, 그리고 가야는 附, 후백제와 대봉은 盜賊으로 표시 하였다.

지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같은 시기의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를 정식으로 한국사에 편입시켜 우리 역사의 범위를 높였으며, 한치윤은 「해동역사」에서 자료위주의 실증적 입장에서 고구려 위주의 고대사 체계를 재정리하였고 발해사를 독립시켰다. 특히 그는 기존의 사서들이 지나치게 강상을 바탕으로 한 정치위주의 입장을 벗어나 文化와 外交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외국문헌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⁷⁾

II. 近代歷史學의 展開와 발전

19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사연구 특히 고대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역사의식의 변화로서 중화사상의 극복, 고대·중세사학에서 보여진 18세기이후 서술체계의 변화(紀傳體, 編年體의 극복)와 역사서술내용의 전환(왕실, 귀족중심의 정치철학의 변화)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서술방향의 전환은 곧 近代歷史學의 태동을 뜻하게 될 것이다. 특히 開港이후 서양열강의 침투와 日帝의 압력이 노골화되면서 민족의 각성은 역사서술의 변화로부터 사회경제사학과 민족주의사학으로 전개되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近代史學이란 기존의 전통사학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착하면서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과 軌를 같이하게 된다. 즉, 그것은 유교철학의 상징인 綱常의 틀과 中華思想의 극복에 따른 한국사의 자주성확립에 따라 기존의 공식적인 역사서술체계(紀傳體, 編年體-綱目體)를 벗어남으로서 다양한 서술방법의 시도와 종래의 정치위주에서 사회, 경제, 문화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제기와 역사의 주체가 지배층으로부터 피지배층으로 확대됨은 물론 새로운 역사서술체계의 제시이다. 그러나 한국은 제국주의 침탈과 일제의 위협속에서 서구의 근대 역사학을 바로 수용할 수 없었다. 여기서 植民地史學, 社會主義史學, 民族主義史學 등 갈등과 시련을 받게 되었으나, 역사의 의미가 민족의 독립과 항일운동의 정신적 바탕으로서 민족의 정통성을 부각시킨 민족의 혼·전통·자주성을 부각시킴으로서 근대역사학의 서장을 열게 되었다.⁸⁾

이시기에 활약한 역사가들은 朴殷植(1859-1923)을 제하고 신채호(1880-1936)이후 鄭寅普(1893-1950)에 이르기까지 거의가 1880-1890년대에 태어났다. 이때는 문호개방이후 壬午軍亂(1892), 甲申政變(1884)을 거치면서 열강의 침투와 청일의 각축이 심해지던 혼란기

7) 이만열, 17,18세기의 史書와 고대사인식(「한국사연구」 10, 1974).

조광, 조선후기의 역사인식(「한국사학사의 연구」, 1985).

배우성, 안정복(「한국위 역사가와 역사학」 상, 1994).

손기호, 유득공(상동).

한영우, 한치윤(상동).

강세구, 「동사강목연구」(민족문화사, 1994).

8) 김용섭, 우리나라 근대역사학의 발달(「문학과 지성」 1971. 여름호).

이만열,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문학과 지성사, 1981).

강만길, 일제 강점기의 반식민사학론(「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신용하, 「한국의 사회와 문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조동걸 「대한국사학사」(나남출판사, 1998).

신형식, 한국근대역사학의 발전과 특징(「한국사학사」 삼영사, 1999).

역서 한결같이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불운의 인물들이었다. 더구나 청·장년기에는 한일합방, 3.1운동을 직접 겪음으로서 강한 항일, 민족의식을 가졌던 공통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우선 박은식의 「韓國痛史」(1915)는 일제초기에 저술된 책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근대사이지만, 그 결론에서 ‘古人云國可滅 史不可滅 蓋國形也 史神也’라는 유명한 글에서 역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는 유기체(形)이지만 역사는 정신(神)이라는 것으로 역사의 의미는 민족정신(國魂論)을 잃지 않는데 있으며, 국권회복(독립)의 바탕에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유교사관의 극복을 제시하였다. 또한 역서서술의 형태(기전체, 편년체)를 탈피하여 주제별·사건별의 원인과 인과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자료(사료)의 분석을 통해 실증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⁹⁾

다음으로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조선사연구초」·「독사신론」·「조선상고문화사」등 수많은 저서를 통해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 주인공이다. 우선 「조선상고사」(1948)에서는 총론에서 역사의 정의(我와 非我的 투쟁)와 3대요소(時·地·人), 그리고 조선사의 범위와 기존역사(朝鮮舊史)의 결점과 종류를 다루었고, 고대사의 계통(수두시대-3조선분립시대-열국쟁패시대-고구려-백제전성과 신라의 음모)을 정리하였다. 「조선사연구초」(1929)에서는 「삼국사기」의 오류문제(동서양자의 혼돈·김부식의 모호성)·패수의 착오, 낙랑국과 낙랑군의 구별, 묘청난(「조선역사1천년의 대사건」)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조선상고문화사」(1948)에서는 단군의 명칭과 업적, 기자문제, 孤竹國(백이, 숙제), 진한의 전성, 조선열국의 분쟁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될 것은 역사의 정의(我와 排我的 투쟁)와 역사의 3대요소(時, 地, 人)는 역사 전반에 관련된 것이지만, 고대사에서 관계된 내용은 우리나라 고대사의 계보(수두시대-3조선-열국-고구려)와 「삼국사기」의 오류문제, 낙랑군(한4군)과 낙랑군(崔理)의 구분등은 단순한 反尊華意識이 아니라 고전(「삼국사기」)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두문, 「삼국사기」해석문제)을 통해 反日本立場(임나일본부와 신공후의 침공설)과 함께 민족주체성의 의미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다만 단재는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 사실과 연결된 계몽운동과 역사의 정치연결(민족운동) 그리고 민중의 실력양성등은 역사학의 본질(순수성)로 볼 때 한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고구려 중심의 한국사의 계보나 진화론 및 고전의 비판등은 실증사학의 원조로서 큰 의미가 있다.¹⁰⁾

그리고 안확은 「조선문명사」(1922)에서 역사의 바탕이 되는 정치(지방자치제)를 중시하였고 세계사와의 비교사학을 통한 역사순환론은 근대 역사전개에 큰 바탕이 되어 장도빈으로 이어졌다.¹¹⁾

9) 강만길, 한국통사 「박은식」(「한국의 명저」3, 현암사, 1969).

이만열, 백암 박은식의 사학사상(「숙대사론」9, 1976).

신용하, 박은식의 역사관 「상·하」, 「역사학보」90, 91, 1981.

한영우, 1910년대의 민족주의 역사서술(「한국문화」, 1981).

김기승, 박은식(「한국역사가와 역사학 「하」)(「창작과 비평사, 1994).

10) 김용섭, 우리나라근대역사학의 성립(「지성」5, 1972).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한길사, 1984).

이만열, 「신채호의 역사학연구」(문학과 지성사, 1990).

최홍규, 「단재 신채호」(태극출판사, 1979).

박찬승(「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창작과 비평사, 1994).

11) 이태진, 안확(「한국사 시민강좌」5 일조각, 1989).

한영우, 한국근대역사학과조선시대사이해(「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서울대출판부, 1989).

장석홍, 안확(「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1994.

장도빈(1888~1963)은 박은식, 신채호와 같이 언론인으로서 두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역사관을 이어 받아 이른바 祖國之精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의 흥망은 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의(정신)에 있다’고 하여 마치 金庾信이 ‘전쟁의 승패는 군졸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달려있다.’(「삼국사기」 권41 열전 「상」)는 기록을 중시하여 단재의 저평가(「조선상고사」 제11편, 김춘추의 외교와 김유신의 음모)를 외면하고 그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인정하고 있다. 장도빈의 많은 저서중에서 고대사(중고, 삼국~통일신라)를 강조한 「국사강의」에서 국사는 애국사상의 표본(상징)으로서 대고구려사를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의 시대로서 충효사상의 상징으로 武勇과 仁義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여러개의 개설서(「조선역사요령」·「조선역사대전」·「국사강의」·「국사개론」 : 1937~1952)에서 고대사의 비중을 77.3%을 두고 있음은 한국고대가 우리민족의 고유사상(祖國之精)으로서 애국심과 자주의식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²⁾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구려 중심의 체계화(단군-부여-고구려-발해)를 바탕으로 고대사의 계보를 세웠으며 그것이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건국-항쟁-통일-극성-쇠퇴’라는 常軌를 걷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전개과정에서의 순환론은 앞서 안확, 박은식, 신채호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장도빈은 본격적인 역사전환의 순환과정을 강조함으로써 Toynbee(1889-1975)의 영향없이 국내연구자가 당당히 이룩한 역사전환의 이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¹³⁾ 그 외 장도빈은 비록 고구려사 위주의 한국고대사를 강조하였지만, 신라문화의 성격(國粹主義)과 영토확장(청천강유역까지 확보), 그리고 사료의 비판과 정리(「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비교·비판)등 실증사관과 민족주의 사관에 큰 바탕이 되었다.

다음 安在鴻은 「조선상고사감」(1937)에서 박은식, 신채호를 이어 한국고대사를 재정리(아사달-부여(단군)조선-크치(기자)조선-고구려)한후 민족자주성을 통한 근대적 사회건설을 추구한 신민족주의 사관을 제시하였다. 그는 민족의 독자성(특수성·투쟁)과 보편성(공생)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을 다 살린다는 ‘다사리주의’ 사회발전이론으로서 ‘뱀(백·맥)-밭(불·비류)-배어(예·부여)와 같이 종족의 이름이 나타나 나라(國名), 땅이름(地名), 벼슬이름(職名)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Morgan의 인류학이론을 처음으로 활용하였으며, 비교언어학적인 해석을 피해 박은식, 신채호의 고대사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부여혈통과 고구려사의 위상을 부각시켰으며, 한국고대사 이해에 인접학문(인류학·비교언어학)의 이론을 처음으로 인용함으로써 한국고대사연구방법론의 변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끝으로 정인보는 박은식·신채호를 이어받아 「한국고대사」(상하 : 1946)를 통해 우리나라 고대사를 ‘조선의 얼’의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그는 서론에서 ‘사람의 고도리는 얼이다.’

12) 장도빈의 고대사인식은 단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민족의 최초 거주지가 만주였고, 기자동래설은 부인하였으며, 한국사에 있어서 봉건제도는 서양(Feudalism)과는 달리 Hulbert가 지적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자치정부수립을 위한 과도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주목된다.(윤경로, H.B.Hulbert의 한국관 연구, 「한국사상」, 1981) 그의 고대사관은 우리나라 「10대 위인전」에 고대인이 단군, 동명성왕, 광개토왕, 을지문적, 혁거세, 대조영등이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그의 고대사관을 알 수 있다.

13) 장도빈의 출생연도는 Toynbee보다 1년 앞선 1888년이였다. 그리고 「A study of History」가 저술된 시기는 24년간(1934~1961)중에 54~59년도에 주요한 내용(Genesis-Growth-Breakdown-Disintegration)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장도빈은 「국사」(1947), 「국사강의」(1952), 「국사개론」과 「대한열사」(1959)등이 발표된 시기가 Toynbee보다 앞섰다. 다만 그는 해체과정에서 변모(Transfiguration : 복고)와 초탈(Detachment : 미래지향)등 전환기(A time of trouble)이론은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순환론적인 시대전환의 과정은 비슷한 모습이었다.(신형식, 신운장도빈의 민족주의 사학, 「산운 장도빈의 생애와 사상」 산문학술문화재단, 1988, p.105).

일이 빠져버렸을 때 그 사람은 껍질사람이다. 일이 없으면 곧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여 일은 휴식이 없으며 우리나라 5천년은 우리의 과거이며 남의 과거가 아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를 통해 익힌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존재의 핵으로서 일을 강조하면서 단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며 백두의 고산과 송화의 장강을 바탕으로 조선의 영역과 한4군의 위치가 만주일대였으며, 3국의 同源性에서 고구려는 광개토왕, 백제는 요서진출, 신라는 殉國亡身의 기풍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낙랑문제(낙랑군과 낙랑국), 문헌과 사료의 고증(광개토왕비문), 언어학적인 접근등은 고대사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¹⁴⁾ 그 외 같은 세대의 역사가들(불함문화론의 최남선, 신민족주의사관의 손진태)과 직접·간접 연결되고 있어 그들의 영향도 무시 못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민족주의사관(신민족주의사관 포함)이 지닌 문제로서 지나치게 투쟁적·배타적·교조적·비타협적인 특성으로 학문계의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¹⁵⁾ 또한 분단이후 한국사의 정통성 확보와 민중사학의 시각과 남북한역사학의 차이극복 문제가 나타나면서 한국고대사연구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되었다.¹⁶⁾ 여기서 민족주의역사관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타나게 된다.¹⁷⁾ 이에 보다 객관적이며 순수한 실증사관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다.

Ⅲ. 實證史學의 定着

한국고대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에 존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입장으로 볼 때 「삼국사기」(1145)이후 민족주체성과 왕권의 위상의 상징으로 그 의미는 잊혀질 수 없다. 비록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역사서술의 체제는 중국 것을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나 그 의미(교훈)를 남기기 위해 역사서술(또는 편찬)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의 긍지와 독자성을 위해 중국과 달리 本紀의 내용(「삼국사기」)에 치중하였고, 爲國忠節의 정신을 列傳에서 부각시킨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몽고간섭이라는 시련기에도 「삼국유사」를 통해 시조의 위대성과 왕권의 특이성, 그리고 위국충절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 「高麗史」·「朝鮮王朝實錄」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드디어 「東國通鑑」(1484)으로 한국고대사를 체계화됨으로서 전통사학의 정착이 가능해 질 수 있었다.

그 후 조선왕조는 壬辰倭亂과 淸國의 침입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대내적으로 黨爭과 대외적으로 서양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적 각성에 따른 實學의 대두 속에서 역사(國學)와 지리에 대한 각성이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사학에 대한 변화와 반성이 일어나 「東史綱目」(1778)·「海東繹史」(1784)등에서 보다 진보된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서술체제(강목체)의 등장과 다양한 참고문헌의 제

14) 김용섭, 우리나라 근대역사학의 발달(「한국의 역사인식」 하, 창비사, 1976).

이완재, 정인보의 한국사인식(「한국사상사학」 4.5, 한국사상사학회, 1993).

진영일, 위당 정인보의 고대사인식(「공주교대논총」 22-1, 1986).

오영교, 정인보(「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1994).

15) 임지현, 한국사학계의 민족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역사비평」 1994, 가을호).

한영우, 「한국민족주의 역사학」(일조각, 1994).

사와 비판(사료수집과 고증의 중요성)이며, 동시에 역사서술내용이 정치중심에서 사회·문화·지리·경제·외교등 다양한 변화였다. 더구나 고대사의 새로운 계통과 발해사 인식이 확대됨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전통사학의 변화과정이라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19세기말 서양세력의 침투와 일제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한국고대사는 또다른 변화를 맞게된다. 기존의 유교중심의 綱常의 틀은 유지되었으나, 다양한 역사서술의 지향속에서 민족의 自主性確立(독립)에 큰 틀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때의 朴殷植(훈), 申采浩(낭), 鄭寅普(열), 張道斌(祖國之精)등의 민족주의 사학이 등장하게 된다. 동시에 이들은 역사서술체제의 변화, 사료비판, 민족주체성 확립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역사학의 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와 언론계의 활동으로 안으로 민족정신의 발견과 밖으로 민족운동(항일운동)의 수단으로 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앞장서서 역사의 주체가 일반국민(민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민족사학이 근대역사학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장도빈의 역사순환론(건국-항쟁-통일-극성-쇠퇴)을 내세워 Toynbee(Genesis-Growth-Breakdown-Disintegration)의 영향없이 역사발전단계설을 내세웠으며, 안재홍은 人類學理論(Morgan)을 활용하여 민족주의사학이 폐쇄적인 역사방법이 아님을 보여 근대사학의 틀을 마련하였으므로 다음의 실증사학의 등장에 큰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실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이병도는 18세기이후 변화되어 온 한국사학계의 연구성과와 경향을 집대성한 것으로 개인차원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전통사학의 전개와 변모 19세기의 민족사학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식민지사학과 유물사관, 신민족주의사관의 격심한 갈등을 목도한 두계는 보다 순수한 사료고증(사료비판)을 통한 진실한 역사이해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는 역사의 대상은 변화적이고 발전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활동이 어떻게 새문화를 창조했는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단지 사실의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료와 사실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사색하여 사회생활이 달라지는 시대간에 존재한 因果의인 관련과 繼起性을 밝히는 것이다.¹⁸⁾

라 하여 선학들이 지나치게 정치와 언론에 참여하는데 대한 비판을 앞세우고 순수한 역사가로서의 입장에 서서 철저한 문헌비판과 역사학의 전문화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선학들이 지나치게 정치계·언론계에 참여한 사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역사학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역사의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순수성을 내세워 초지일관 문헌고증의 외길을 걸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는 해방이후 여러 학파들의 상이한 입장을 누구보다 체험한 주인공이었으므로 ‘역사의 정치로부터 이탈’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¹⁹⁾ 그는 「신수국사대관」의 총설에서 ‘인간이 고귀한 점은 문화의 창조와 진보에 있다. 그러한 창조와 진보는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고 반성하고 비판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순수한 역사의 독립과 서술의 객관성 그리고 문헌의 검증을 강조한 점에서 두계역사관의 진면을 보게 된다. 그것은 앞선 역사가와 그 시대환경에 따라 바뀌었던 선학에 대한 비판의 결과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Marc Bloch의 「역사를 위한 변명」에서 ‘선학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비판이

18)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동지사, 1948, 총설).

19) 한영우, 이병도(「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창비사, 1994).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르침이 된다.’라는 견해를 마지막으로 부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한국고대사연구는 이병도를 이은 제2세대로서 李基白·金哲堧 등의 노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타학문의 이론수용과 방법론의 혁신으로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²⁰⁾ 특히 1970년대의 유물·유적의 발견(무녕왕릉 1971, 단양적성비 1978년, 중원고구려비 1979)은 고대사의 활성화가 될 수 있어 실증사학의 정착에 큰 의미가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실증사학이 한국사의 발전(특히 고대사)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일부사실(「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과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부족(연결관계의 불충분)등 그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의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²¹⁾

20) 신형식, 「신라정치사회사연구」(이기백), 서평(「역사교육」 16, 1974).

_____, 「한국고대사회연구」(김철준), 서평(「한국학보」 1, 1975).

21) 이종욱, 소위 실증사학의 정체와 그 문제(「새로운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2000, 한국사학회) 참조.

주제발표 1

「朝鮮史概講」과 고대사 인식

조인성 (경희대)

I. 머리말

II. 「조선사개강」의 의의

III. 고대사의 공간과 종족, 지리 및 시대구분

1. 공간, 종족과 지리
2. 시대구분

IV. 고대사 인식

1. 고조선과 한사군
2. 삼국의 건국과 일본과의 관계
3. 통일신라와 발해

V. 맺음말

주제발표 1

「朝鮮史概講」과 고대사 인식

조인성 (경희대)

I. 머리말

이병도는 1919년 7월 早稻田大學 文學部 史學及社會學科를 졸업하였다. 졸업논문은 「高句麗 對隋唐戰爭에 대한 研究」(日文). 1922년부터 한국유학사와 지리도참 등 사상사연구에 전심하였다고 하는데, 1926년 1월 「李栗谷의 入山動機에 對하여」(『朝鮮史學』 1-1, 日文) 이후 조선시대 유학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927년 9월 「妙淸의 遷都運動에 對한 考察」(『史學雜誌』 38-9, 日문)을 시작으로 고려시대 도참사상을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28년 5월 5일과 6일 이틀간 東京에서 개최된 史學會 제 29회 대회 동양사부에서 「玄菟郡考」를 구두 발표하였고²²⁾, 같은 해 5월과 8월 「古朝鮮四郡疆域考」(『한빛』 제 4·5호, 제 6호)를 발표하였다. 고대사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²³⁾

이병도의 연구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듯이, 그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고대사였다. 그의 고대사 연구 논문은 『韓國古代史研究』(1976, 博英社)로 집대성되었다. 이 밖에도 『韓國史』(古代篇)(1959, 乙酉文化社)이 있는데, 전문 개설서이고, 문고본인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1979, 瑞文堂)는 이것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사』(고대편)은 이병도가 최초로 지은 개설서 『朝鮮史大觀』(1948, 同志社. 이하 『대관』. 뒤에 『國史大觀』(普文閣, 1954), 『韓國史大觀』(보문각, 1964)으로 이름을 바꾸어 여러 차례 增修되었음)의 고대 부분을 좀 더 확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었다.²⁴⁾ 그런데 곧 이어 볼 바와 같이 『대관』의 고대 부분은 1923년 발표한 「朝鮮史概講」(이하 「개강」)의 고대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병도의 고대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개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개강」은 잘 알려진 저작이 아니다. 이에 우선 「개강」을 소개하고, 한국사학사에 있

22) 이병도, 1928, 「玄菟郡考」, 『사학잡지』 39-7, pp. 82-83.

23) 이상 이병도의 활동과 논저에 대해서는 震檀學會 編, 1991 『歷史家의 遺香-斗溪李丙燾先生追念文集』의 「斗溪先生 年譜」와 「斗溪先生 論著目錄」이 가장 자세하다. 하지만 빠진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가령 「현도군고」의 구두 발표 사실이나 「고조선사군강역고」는 빠져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조선사개강」도 마찬가지이다.

24) 이상 이병도의 저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는 李基白, 1989 「著述을 통해 본 斗溪史學」, 『출판저널』 9월호; 『역사가의 유향』, pp. 100-103을 참고하라. 이에 따르면 이병도가 지은 『한국사』(중세 편, 1961)은 『대관』의 고려 부분을 확대하여 상세히 다룬 것이라고 한다.

어서 그리고 이병도의 고대사 인식에 있어서 「개강」이 갖는 의의를 지적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개강」에 보이는 이병도의 고대사 인식을 정리하려고 한다.

1920년대에는 계몽적,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서술된 한국사 通史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그것들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1) “단군의 실재를 강조하고 기자동래설과 위만조선을 부정하거나 축소 해석”하고, “이른바 大朝鮮主義에 입각하여 민족사의 영역과 종족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⁵⁾ 2) 신라사보다 고구려사를 중시하였으며,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조)이라 하여 발해의 민족사적 의미를 추구하였다.²⁶⁾ 한편 이병도는 『한국사』(고대 편)의 「범례」에서 자신이 역점을 두고 연구한 바가 “先史時代의 生活樣式을 비롯하여 檀君問題, 所謂 「箕子朝鮮」問題, 衛滿朝鮮, 漢四郡問題, 三韓問題, 三國의 建國時期問題, 對外關係 特히 對 中國關係, 其他 制度, 社會生活 面 등”이었다고 회고하였다. 필자는 『한국고대사연구』에 보이는 고조선사의 이해, 중국 군현의 평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비판 등을 정리하였다.²⁷⁾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개강」의 고대사인식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단 「개강」의 저술 배경이나 「개강」과 『대관』의 비교 등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II. 「조선사개강」의 의의

이병도는 1923년 9월 28일부터 1924년 2월 24일까지 총 88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조선사개강」을 연재하였다. 본래 ‘조선사’ 전체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身病으로 고려시대까지만 다루고 말았다.²⁸⁾ 이병도는 연재의 경위를 회고하면서 ‘너무나 幼穉하여 구역이 날 정도’라고 평했다.²⁹⁾ 「개강」에는 이후에 이루어진 그의 본격적인 고대사, 고려시대사 연구 성과가 담길 수 없었고, 그의 혹평은 이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개강」을 연재한 사실이 이병도의 연보나 논저목록에 빠져 있는 것도 이러한 그의 의중을 반영한 듯하다.³⁰⁾

25) 朴杰淳, 1994, 「1920年代 韓國史 通史의 構成과 性格」, 『于江權兌遠教授 定年紀念論叢』, p.641

26) 趙東錫, 1994, 「항일운동기의 역사인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1998, 『現代韓國史學史』 總論, p. 71 박결순, 앞의 논문, p.641.

27) 趙仁成, 2009, 「李丙燾의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韓國古代史研究』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4. 구체적인 내용은 단군조선=아사달사회, 기자조선=한씨조선, 위만조선; 위만조선인설, 한사군의 위치, 영향, 삼국의 건국시기, 건국 이전 기록의 사료 비판이다. 이병도의 고조선사 이해에 대해서는 조인성, 2011, 「이병도와 천관우의 고조선사 연구」, 『한국사시민강좌』 49, 일조각의 해당 부분 참고. 이외에도 조인성, 2009, 「李丙燾의 韓國古代史研究-漢四郡·三韓의 歷史地理 研究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5.

28) 1923년 12월 27일 76회까지 杜桂生 이병도 명의로 연재한 후 신병으로 휴강하였고, 1924년 2월 14일부터 辟桂生 명의로 연재를 재개하여 다시 신병 치료를 이유로 88회로 종료하였음. 단 86회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총 87회 연재한 셈이다.

29) 이병도는 中央學校 교사이면서 야간에는 친구 경영의 영어강습소와 中東學校(夜學)에서 영어를 강의하면서 “某氏(朴光熙?)가 中等程度의 講義錄을 刊行하겠다 하여 나에게 朝鮮史概說을 써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여 원고를 집필하였으나 강의록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것은 “후일 東亞日報社 사장 宋鎭禹氏의 勸請으로, 東亞紙上에 連載하다가 高麗末期까지 내고 말았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幼穉하여 구역이 날 정도이다”라고 회고하였다. 「나의 回顧錄」, 1983년 3월; 『成己集』, 1983년 8월, 正和出版文化社, pp.298-299. 그는 1919년 7월 와세다를 졸업하고, 10월 중앙고보 역사, 지리 교사가 되었는데 “당시 중학교 과목 중에서 조선사는 금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일본사 시간을 쪼개어 1시간은 우리 국사를 필기해 가르치곤 하였다”(이병도, 「나는 왜 사학자가 되었나」, 『學生中央』, 1973. 5; 『斗室餘滴』, 1975, 博英社, p. 210)고 한다. 아마 그 강의 노트가 원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30) 그의 화갑기념논총(1966)이나 구순기념논총(1987) 그리고 『역사가의 유향』 중 「두계선생 연보」와 「두계선생

이병도 본인이 「개강」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학사 연구에서도 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가령 조동걸은 1920년대에 여러 역사가들(이병도 포함)이 신문과 잡지에 역사관계 논문을 투고하였다고 하였으나, 「개강」의 연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또 「개강」에 나오는 이병도의 한국사 시대구분을 언급하면서도 「개강」 연재의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이 『동아일보』 1923년 9월 29일 자에 실려 있다고 하였을 뿐이었다.³¹⁾ 1920년대 통사를 전반적으로 다룬 논고는 이를 취급하지 않았고,³²⁾ 이병도의 한국사 연구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들도 마찬가지로였다.³³⁾

이미 88회에 걸쳐 신문 지상에 연재되었던 「개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자체 이미 공공성을 획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23년에는 한국인들이 저술한 한국사 통사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安廓의 『朝鮮文明史』(『朝鮮政治史』), 黃義敦의 『新編 朝鮮史』, 張道斌의 『朝鮮史要領』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비록 미완이기는 하지만 이병도의 「개강」도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의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³⁴⁾

『대관』의 「序에 대신하여」에 따르면 “本書는 解放 翌月, 某學術團體의 委囑을 받아 極히 짧은 其間에-星火같은 督促下에- 써 내뜨린 舊草稿를 隨處 修補한 것”이라고 한다. “上世 編과 中世編에 있어서는 大量的인 修補를 加하였으나 近世編은 그렇게 되지 못하여 遺憾”이며, “從來 學者의 聚訟이 많은 問題에 대하여는 거의 다 著者의 새 研究와 見解에 의하여 處理하였다. 특히 古代編 中에는 在來의 見解와 大단 다른 點이 많으니, 이것이 本書의 特色이라면 特色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³⁵⁾

이병도의 회고에 따르면 해방 후 “제일 時急한 것이 國語, 國史의 敎員養成問題임으로 해서 1946년 봄에 本學會(진단학회)는 臨時中等敎員養成所를 설치키로 하고 徽文高普의 講堂을 빌어 國語, 國史를 集中講義, 6個月로써 修了, 美軍政廳文敎部에 申請하여 修了生에게 敎員資格證을 賦與하니, 그 사람들이 나가 中央, 地方의 中等學校의 國語와 國史를 담당하는 敎員이 되었다. 나는 東濱 金庠基氏와 함께 國史敎本(中等用)을 編纂하는 한편, 또 내 나름 대로의 國史大觀 執筆에 분망하였다”고 한다.

이상에서 『대관』의 대본이 되었던 ‘구초고’는 임시중등교원양성소의 강의안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강의안에서 상세 편과 중세 편에 대한 대대적인 증보와 수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대관』을 만들면서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증보와 수정의 대상은 바로 「개강」이었을 것으로 본다.

「개강」은 서론, 제 1편 상고사(조선사의 개시-신라 말), 제 2편 중고사(고려조)로 이루어졌고, 미완이지만 근세사(이씨조선-근자)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관』은 제 1편 총설, 제 2편 상대사(고조선-신라 말), 제 3편 중세사(고려조), 제 4편 근세사(이씨조선. 최근 포함)

논저목록」 등.

31) 조동걸, 1994, 「항일운동기의 역사인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1998, 『現代韓國史學史』 總論, p. 72와 p.75.

32) 朴杰淳, 1994, 「1920年代 韓國史 通史의 構成과 性格」, 『于江權允遠教授 定年紀念論叢』.

33) 한영우, 1994,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민현구, 1999, 「현대 한국사학의 태두로서의 이병도」, 김육훈, 2007 「일제강점기 이병도의 역사연구」(미간), 김두진, 2008, 「斗溪 李丙燾(1896~1989)의 史學과 近代 韓國史學의 수립」, 『歷史學報』 200. 이외에도 김정희, 1994 「이병도-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 사관」, 『청산하지 못한 역사 3』(반민족문제연구소 편) 김일수, 2008 「이병도와 김석형-실증사학과 주체사학의 분립」, 『역사비평』 봄호(통권 82호) 등도 있다.

34)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2010년 9월 25일 한국사학사학회에서 「李丙燾의 「朝鮮史概講」-고대사인식을 중심으로-」을 구두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이 발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35) 「나의 회고록」, 『성기집』, p.308.

으로 구성되었다. 양자의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개강」의 서론은 세부 목차가 없지만, 내용을 보면 1) 조선사의 공간 2) 종족(민족), 3) 지리, 4) 시대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관』의 총설의 세부 목차는 1) 역사연구의 대상과 목적, 2) 조선사의 의의 3) 지리적 조건 4) 조선민족의 구성 5) 원사사회 6) 시대의 구분이거니와, 양자의 유사한 부분을 볼 수 있다.

『대관』의 총설에서 이병도는 지리적 조건을 논하면서 “鴨綠 豆滿의 二大江은 오늘날 滿洲와 朝鮮을 政治的으로 區分하는 重要한 國境河로 되어 있지만 古代에 있어서는 그러한 界線의 任務를 갖지는 아니하였다. 도리어 兩江은 한 社會 한 나라 혹은 한 郡縣의 管內를 흐르는 國內河 혹은 郡內河로 된 때가 많았다”고 하였다.³⁶⁾ 다음에 볼 바와 같이 「개강」에서 이런 발언을 찾을 수 있다. 민족의 구성을 논하면서는 “이들(貊族)이 半島에 들어오기 前에 原住人種이 있었는지 그 與否는 자세치 않으나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新來族에 征服되고 融化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곳으로 즉 바다를 건너 日本列島로 간 一派도 있었을 것이다”³⁷⁾라고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래에 제시하는 고구려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동맹에 대한 서술도 서로 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혼인결합은 공수동맹의 성질을 가진 자임으로 이후 양국은 맹약에 종하여 양국 중 일방이 고구려의 침습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병을 출하여 구조하였었다(三國史記 東城王 十六年 秋七月 條 高句麗與新羅戰薩水之原(今槐山報恩等地) 新羅不克 退保犬牙城(報恩附近)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救解圍라 하고 翌 十七年 秋八月 高句麗來圍雉壤城(位置未詳 今 新溪南?)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라 하여 서로 援助를 施하였었으나 그 後 交戰에는 各各 中立만 固게 지키고 獨力을 攻守한 일이 많다).³⁸⁾

어떻든 北方의 共同의 敵에 對하여 두 나라는 協力 下에 攻守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兩國 중 一方이 高句麗의 侵攻을 받으면 他 一國은 반드시 軍사를 내어 도와주었다(例하면, 翌 東城王 十六年에 高句麗와 新羅가 薩水(今槐山 靑川)의 原에서 싸워 新羅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와 犬牙城(今 聞慶의 西?)을 지켰을 때 百濟는 軍사 三千을 보내어 救援하였고, 또 翌 十七年에 高句麗가 雉壤城(未詳)을 來圍하였을 때 新羅는 百濟를 도와 麗兵을 물리쳤다).³⁹⁾

이상에서 보았듯이 「개강」의 상고사를, 이후의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 『대관』의 상대사였고, 이것을 확대한 것이 『한국사』(고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강」의 고대사 인식은 이후 그의 고대사 인식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Ⅲ. 고대사의 공간과 종족, 지리 및 시대구분

이병도는 「개강」의 서론에서 조선사의 무대, 주인공, 지리, 시대구분 등을 다루었다. 이러

36) 『대관』, p. 6.

37) 『대관』, pp. 11-12.

38) 「개강」 제 13회.

39) 『대관』, pp. 65-66.

한 예는 『조선문명사』의 제 1장 서언과 제 2장 태고부락생활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신편조선사』나 『조선사요령』에는 없는 부분이다. 한편 임태보가 『조선사』 총론에서 지리, 인종 등을 다룬 바 있으나, 현재의 『동국사략』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1. 공간과 종족, 지리

이병도는 上代 한국사의 공간으로 한반도와 만주 즉 ‘滿鮮’을 들었다.

“금일의 조선과 만주와는 지리상 서로 연접하여 있으므로 自來 역사상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 교통 상 자못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더욱 고대에 있어서는 만주의 남부와 반도의 北半은 흔히 동일 족속에 의해 접거되었었다. 그러므로 금일 정치적 자연적 경계로 認하는 압록 두만의 兩江은 上代에 있어서는 그다지 종족을 分하고 언어 습속을 다르게 하는 중요한 천연적 장벽이 아니었었다. 도리어 동일 족속 혹은 동일 국가내의 일 하천에 불과하였었다.” (1회 緒論)

이병도는 고대 조선에 있어서는 만주의 역사와 조선반도의 역사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만주와 한반도를 고대 조선사의 무대로 보는 것은 당시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조선문명사』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였고, 『신편조선사』, 『조선사요령』 등도 실제로 그렇게 서술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고대의 ‘대조선’을 상정하였음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병도가 「개강」의 첫머리에서 고대 만선을 조선사의 무대라고 강조하였던 것은 그와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곧 이어 보게 될 바와 같이 그는 단군조선의 실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그 역사상을 그려낼 수 없다고 보아 단군조선사를 서술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만선을 무대로 활동하였던 종족으로는 숙신, 예맥과 한을 들었지만(2회 서론(속) 「그림」), 숙신계통 종족의 활동은, 읍루국에 대해 잠시 언급한 것(제 4회 북남계족의 국가사회)과 그 후예인 말갈이 고구려 유민들과 더불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한 것(29회 발해국의 흥기)을 제외하고는, 조선사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이병도는 “금일의 조선 민족은 매우 오래 전에 만주에서 남진하여 반도에 來據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그 증거로 남한의 전설과 풍속이 북방 貊人의 것과 유사함을 제시하였다. 또 이러한 이유에서 韓族이 반도 본래의 토착민이라 하여 만주의 諸族과 전혀 계통을 달리 할 것이라고 한 주장(白鳥庫吉, 今西龍 등)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한족이 접거하기 전에 반도 내에 ‘土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족에 의해 정복당했거나 혹은 쫓겨 바다를 건너 일본 등지로 갔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이상 1회 서론). “實로 滿洲 上代史는 朝鮮歷史上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地位를 가지고 있다. 즉 古代 朝鮮에 있어서는 滿洲의 歷史와 朝鮮 半島의 歷史를 分離시킬 수 없다.” 이처럼 이병도가 고대의 만선을 묶어서 강조하였던 배경 중의 하나는 일부 일본학자들이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고대사를 조선사에서 제외하고 조선사를 韓族의 역사로 한정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병도는 “지리는 역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이에 영향을 及하는 일은 많”다는 입장에서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만선 양 지방의 지리를 간략히 개관하였다. 결론적으로 만주

와 한반도 서해안의 큰 강가의 비옥한 토지가 농업에 유리하였고, 동양의 最古 문명국인 중국과 근접하여 그 영향을 받음으로써 조선 上古代의 문명이 발달하였다고 하였다(2회 서론(속)). 「青春 第十四號 「稽古筭存」을 讀함」, 『學之光』 제 18호(1919.8.15. 稿了?는 1918년 9월 5일로 되어 있음. 『청춘』 14호는 1918년 5월? 발행)을 보면 이병도의 지리에 대한 정의는 James Fairgrieve(1870-1953), *Geography and World Power* 에 근거한 것인 듯하다(“地理는 歷史를 支配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 影響을 與할뿐이라”). 필자는 凡外生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 이병도의 필명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2. 시대구분

이병도의 시대구분에 대한 생각은 다음 글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역사를 述함에는 다소 임의로 인간의 경험을 여러 시기에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각각이 다른 시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개시하기 막 前 사람들은 연마한 석기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때를 신석기라 보통 이롭하고 그보다 앞선 시대는 粗削한 즉 미가공의 석기를 사용하였으므로 구석기시대라 이른다. 그러나 역사가 시작된 爾後의 여러 시기는 상고, 근고 혹은 상고, 중고 및 근세로 分함이 보통의 방법이다. 나는 후자를 취하여 조선사의 개시로부터 신라의 말까지를 상고사로 하고 고려 초로부터 同朝 말까지를 중고사 안에 網하고 또 이씨조선 초로부터 근자까지를 근세사라 하여 연구하려 한다”(2회 서론).

이병도는 조선사를 상고사(조선사의 개시-신라 말), 중고사(고려), 근세사(이씨조선-近者)로 구분하였는데, 시대구분의 의의를 뚜렷이 인식하거나 시간적인 近古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안확은 『조선문명사』(『조선정치사』)에서 태고 부락시대(원시시대), 상고 소분립정치시대(단군-삼한), 중고 대분립정치시대(삼국-남북조), 근고 귀족정치시대(고려), 근세 군주독재정치시대(조선)으로 구분하였다. 황의돈은 상고사, 중고사(삼국시대, 남북양조시대), 근고사(고려), 근세사(조선), 최근세사(대원권 집정 이후-1904년), 장도빈은 상고(단군조선, 열국), 중고(삼국, 남북국), 근고(고려), 근세(조선), 최근(대원군 집정-경술국치)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안확의 시대구분이 단영 돋보이는데, 이병도는 이들과 달리 남북조 혹은 남북국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신라의 통일과 문화의 융성, 신라와 고려의 계승 관계를 중시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IV. 고대사인식

1. 고조선(고대 조선)과 한사군

이병도는 고대 조선인 사이에서 그 조상의 유래를 하늘에서 구하는 생각이 있었고, “일반 인민의 최고 조상으로 신앙하는 단군의 전설”도 이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신화를 인용한 후 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단군조선의 실재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우선 단군의 壽 일천 기백년은 단군왕조의 歷年을 가리킬 것이라는 설(權近 이래), 단군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제왕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해석하는 설, 桓은 한울 곧 天이요, 檀은 배달, 王儉은 임금의 뜻이라는 설(이상 최남선, 대중교 계통), 蘇塗를 設하고 제사 지낸 것과 “壇君” 숭배를 연결하고, “檀”은 소도에 세웠다는 大木을 뜻한다고 보는 설(이능화?)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료가 매우 부족함에도 이런 저런 추측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단순히 “언어학적으로만 이를 고증하려 하는 것은 사학 연구 상 크게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단군신화에 전하는 내용이 황당하고, 승려에 의해 佛說이 혼입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찍부터 있어 왔고(실학자 이래?), 그러한 이유에서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이를 가치 없는 전설로 간주하여 조선사 서술에서 단군조선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단군신화가 비교적 후대의 사서에 실려 있다는 점, 내용상 신용하기 어려운 점이 다소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나타나는 思想은 매우 뿌리가 깊어 적어도 古代 北方民族의 傳說의 一部를 暗示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병도는 “결코 檀君을 否認하거나 古朝鮮의 歷史가 오래지 못하였다고 斷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기록과 전설이 희소하여 그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없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 자신은 도리어 고조선 역사의 시조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오래 전에 우리 先祖들은 武的 活動이 宏壯하여 部落과 部落 사이에 自國과 他國 사이에 戰爭과 平和의 交渉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는다”고 결론 맺었다. 요컨대 단군조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역사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 3회 고조선 시조에 관한 전설과 그 비판).

이는 1920년대 다른 역사가들이 적극적으로 단군조선의 실재를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역사상을 그려내려고 하였던 것과는 다르다. 안확은 단군의 건국 이전에 조선족은 이미 광대한 지역에 식민지를 두었고, 중국 본토까지도 조선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 舜을 조선인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대외인식은 대중교적 민족주의의 영향과 식민지 현실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고뇌의 반영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단군의 역년을 2백년으로 보고, 단군의 直領도 소방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 역대도 소분립정치시대라고 하였다. 단군조선에 대하여 영역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확대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漢土에 대한 식민 활동과 변동을 2개 절에 걸쳐 설명하고, 大弓의 무예를 선양한 것은 오직 조선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황의돈은 단군조선을 일종의 대제국으로 간주하고 그 국세가 미약해지자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서 부여, 숙신, 기자조선, 옥저, 예맥, 진국과 삼한 등 열국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조선신사』에서는 환인(上帝의 명칭임. 혹은 桓國이니 桓은 ‘한’, 國은 ‘울’로서 ‘한울’의 漢譯라고 함), 단군(혹은 桓君이니 天君의 뜻이라 함), 왕검(혹은 壬儉이시니 이름이 아니고 ‘님검’의 한역이라 함) 등에 대한 언어학적인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장도빈은 단군조의 강토를 동은 蒼海(일본해), 서는 灤河, 북은 黑龍江을 경계로 하였고, 남은 조선 반도를 영유하였다고 보았다. 수다한 소부족의 국으로 나뉘어 부족자치가 발달되었으며 단군의 치세에 神誌氏라는 학자가 있어 『神誌秘詞』를 만들었다고 하고, 단군조(朝) 1,211년을 지나 열국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과 비교해보면 이병도는 실증적 입장에서 대중교를 포함한 민족주의 사학의 단군(조선) 인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병도는 한국인들이 단군 다음으로 箕子를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東來說를 부정하였다. 그 근거로는 기자의 자손이 40여대에 걸쳐 통치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0세손이라는 조와 그 아들 準에 대한 사실만 알려져 있다는 점, 기자동래설을 수록한 『史記』, 『漢書』 등이 기자의 시대와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남 등을 들었다. 같은 이유에서 기자가 처음에는 遼東에 와서 건국하였고, 후에 그 자손이 東進하여 지금의 平壤 지방에 온 것이라고 하고, 기자동래 때의 평양은 요동에 있던 구 평양이라는 설(누구의 설인지?)도 부정하였다. 이 설은 『한서』 지리지의 險瀆에 대한 應邵의 주와 臣瓚의 주 등에 의거한 것이지만, 『사기』 조선전에 의거할 때 王儉城은 평양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今西龍이 이미 說證하였다고 밝혔다(전거? 白鳥庫吉도 기자동래설을 부정하는 논고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기자가 동래하여 조선을 통치하였던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기자가 자국 멸망 후 중국 동북경에 避住하였으리라고 본다는 것을 소개하였다(이상 3-4회 고조선시조에 관한 전설과 그 비판 및 동 (속)).

안확은 殷末 周初에 殷의 國族 기자가 망명하여 왕을 자칭하였으며 이것이 소위 기자조선이라고 하였다. 그 역대 연대가 8백여년에 달하나 그 동안의 사적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황의돈도 기자동래를 인정하였는데, 안확과는 달리 기자조선의 왕통과 재위 기간을 표로 작성하였다. 장도빈도 기자동래를 인정하였는데, 다만 시조는 중국인이나 그 자손은 조선에 동화되었으므로 기자조선은 조선의 일국이라고 보았다. 이들이 기자동래를 인정하였던 것은 기록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일정하게 유교적 입장이 반영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병도는 실증적(사료비판적)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였다.

이병도는 기자의 동래에 의한 기자조선은 부정하였지만 기자조선의 존재는 인정하였다. 春秋戰國의 혼란기에 漢인들이 요동 방면으로 이주하여 압록강 내외에 거주하던 貊人들을 다소 위압하던 집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기자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자가 평양에 도읍하였으며 이것이 이른바 기자조선일 것이라고 하였다. 기자동래설은 자국의 역사를 彩飾하기 위하여 기자를 시조로 추대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판도는 압록강에서 지방에까지 미쳤는데, 燕과 자주 전쟁을 벌이다가 秦開에게 破하여 滿潘汗(압록강)을 경계로 연과 대립하였다고 보았다. 이후 箕丕는 秦에 복속하였고, 箕準은 진 말기의 혼란을 틈타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망명해온 燕人 위만에 의해 망하였다고 하였다. 이로써 위씨조선이 성립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두 나라는 漢人國家였다고 파악하였다(6회 箕, 衛 兩朝鮮의 興亡).

위만조선은 한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고, 만주의 일부와 한반도 북부 일대에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 중 咸南지방에 설치된 玄菟郡은 설치 27년 만에 沃沮, 濊貊人 등의 “反抗的 侵攻”에 따라 만주로 이동하여 興京(新賓) 부근에 설치되었던 眞番郡의 땅을 대신 관할하게 되었고, 合南의 南端과 강원도의 북부로 관할 구역이 축소된 臨屯郡은 樂浪郡에 합치게 되었으나 그 지역은 곧 放棄되었다. 그리하여 4군은 신현도, 낙랑의 2군으로 되었고, 그 후 280여년이 지난 後漢 말 낙랑 남부에 대방군의 설치하였다. 이 3군은 고구려·백제에 의해 구축되었다(7회 한사군의 置, 廢). 한사군의 영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며 토착세력의 반발에 의해 그 범위가 축소되다가 결국 고구려·백제에 의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대강은 황의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 안확과 장도빈은 한사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단군조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병도가 중국인 왕조인 기자조선으로부터 한국사의 시작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漢人國家의 출현은

삼한의 건립과 거의 때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미 그 이전에 인구가 늘고, 人智가 발달하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주와 반도 일대에 많은 국가사회가 나타났다는 것이다(목차를 보면 제 1장 古朝鮮始祖에 關한 傳說과 그 批判, 제 2장 北南諸族의 國家社會, 제 3장 漢人國家의 興亡과 漢郡縣의 置廢, 제 4장 三國時代의 初葉의 순서로 되어 있다).

북방에는 農安, 長春 등을 근거로 하여 夫餘가 강대하였는데, 이미 전국시대 이전에 그 존재가 중국에 알려졌으며, 그 시조는 高離國에서 망명한 東明이라고 하였다. 이어 정치조직, 종교, 법률, 풍속, 특산물 등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부여의 동쪽에는 古肅慎族의 후예인 挹婁國(후의 靺鞨, 勿吉)이 있었는데, 大君長이 없고 邑落의 大人이 각각의 읍락을 지배하는 정치조직상 아직 미숙한 단계였다고 파악하였다. 부여의 남쪽에는 興京 부근을 중심으로 卒本國(혹은 진번국)이 있었는데, 독립국이라기보다 부여의 식민지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졸본 부여와 북부여의 구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잃었다가 백여년이 지나 朱蒙이 그 나라를 회복하였다고 하였다. 함경도 지방의 옥저(함흥은 남 옥저의 首府, 鏡城 부근 古名 買溝婁는 북옥저의 수도), 함남의 일부와 강원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동예(춘천은 貊國의 서울)는 한무제에게 복속되었지만, 곧 “植民政廳” 몰아내고 국토를 회복하였다고 하였다. (4, 5회 북남제족의 국가사회)

반도 중부 이남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분립하였는데, 이미 秦漢 이전의 일었을 것으로 보았다. 백제 등 54국을 거느린 마한이 가장 강력하였고, 경상도 일대에서 각각 12개국으로 이루어진 진한과 변한은 마한에 예속되었다고 하였다. 삼한의 여러 나라가 함께 추대한 辰王도 마한왕이 이를 겸하였으며, 마한의 한 나라인 目支國(혹은 月支國. 益山?)은 진왕이 머무는 곳으로 전 삼한의 首府였다고 하였다. 辰韓을 秦韓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를 무거운 役을 피해 망명한 중국의 秦人이 來住하였기 때문에 秦韓이라고 하였다는 설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다만 음이 서로 비슷해서 辰韓, 秦韓이 혼용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삼한 각국의 규모, 군장의 칭호, 종교, 산업 등을 설명하였다. (5, 6회 북남제족의 국가사회)

안확은 단군조선 2백여년 이래 북방에는 부여·숙신·구려 등의 유력한 국가가 있었고, 남방에는 삼한과 옥저, 동예 등의 유력한 국가가 존재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병도의 구상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삼국의 건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병도는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고 하고, 기원 전 37년 주몽이 압록강 상류 유역에 고구려를 세웠다고 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기원 전 57년, 고구려 기원 전 37년, 백제 기원전 18년 건국하였다고 전한다. 건국 연대는 『삼국사기』의 그것을 따르면서도 그것과는 달리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8회 고구려의 건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삼국사기』의 기록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에 비해 문화적 선진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정치적으로도 선진이었을 것으로 보았던 듯하다.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이에 대한 학설을 소개하고, “이 傳說은 매우 오래 前부터 傳하여 오는 東方 特有的 傳說인 것과 高句麗의 始祖가 北夫餘에서 由來하였다는 것”을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이어 시조로부터 제 17대 山上王의 丸都(奉天省 輯安縣 通溝 부근) 천도까지의 정치상황과 대외 관계를 정리하였다(瑠璃王 때 천도한 국내성은 中江鎮 對岸에 있는 帽兒山에 비정함).

이병도는 고구려 건국 20년 후 곧 기원 전 18년에 백제가 건국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백제의 건국설화를 소개하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右 傳說과 같이 온조를 꼭 주몽의 아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우나 그 유래가 夫餘에 있는 것은 분명하니 이는 백제 왕실의 성이 扶餘氏인 것과 蓋鹵王上表魏文帝書에 ‘臣與高句麗源出扶餘’라 한 것을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다.”

“백제 초기의 영토도 우 전설대로 말하면 마한 全領을 포함한 것같이 생각이 나나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강 유역과 그 이남 마한의 북변 약간지를 점유한 데 불과하였었다(隋書云 始立其國于帶方故地(한강유역)). 더 말하면 백제가 마한 전토를 영유하기는 비교적 후대에 된 것이다.” (이상 8,9회 백제의 興起 및 동(속))

위에서 보듯이 이병도는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설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그 왕실이 부여 계통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주몽의 아들이 바로 남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영역에 대해서도 건국 초기에 이미 마한 전역을 차지하였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의심하였다. 역시 그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지만 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이병도는 위만에게 나라를 잃은 기준이 마한에 가서 마한을 공파하고 韓王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준이 나라를 잃고 망명한 고단한 신세였으므로 마한의 번신제후가 되었거나 그 보호를 받는 처지였을 것으로 본 바 있다(7회 기, 위 양조선의 흥망). 아마도 마한 지역에 내려와 정착한 유이민집단이 지배하였던 백제가 그 초기부터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듯하다.

이병도는 『삼국사기』에 신라의 건국연대가 가장 빠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신라는 고사에 거하면 삼국 중 가장 오랜 나라와 같이 말하였으나 이는 진한시대의 사적 설화를 함유한 부분이 많고 실상 일국된 체면을 가지게 됨과 이 국호를 定稱하기는 매우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진한의 일국 사(사로)에서 발달된 나라이므로 그 기원을 설명함에 당하여 이에 관계된 전설을 무시할 수는 없다.”(9회 신라의 기원)

“신라가 진한 전부를 영유하여 발연히 일어나기는 고구려·백제 2국에 비하여 좀 후에 되었으나, 그 芽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하여 창업도 和氣蕩蕩(?) 중에 徐開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라의 흥기는 麗濟 양국이 무력에 의뢰하여 국가의 기초를 창립한 것과는 그趣를 매우 달리한다.”(10회 신라의 기원(속))

박혁거세의 건국은 진한 사로국의 건국 설화인 것으로 보고, 신라의 사실상 건국은 그 이후일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아마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중국 문명의 세례를 늦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정 등이 고려된 듯하다.

요컨대 이병도는 나름대로의 사료 비판을 통해 삼국의 건국 순서를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으로 보았던 것이다. 안확, 장도빈은 고구려-백제-신라 순으로 그 역사를 서술했고, 황의돈은 고구려-신라-백제 순으로 그 역사를 서술했는데, 『삼국사기』의 삼국 초기 기록을 인정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병도는 이른바 신공왕후의 삼한정벌을 부인하였다.

“일본은 九州 방면 혹은 出雲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를 頻襲하다가 혹은 패퇴하기도

하고 혹은 승리를 얻기도 하고 혹은 講和에 임하여 質子를 요구하기도 한 것 같다. 일본 고사에 소위 神功征韓 운운도 此種 교전의 승리를 과장적으로 이룬 데 불과한 것같이 생각된다.”

이어 “왜인과의 접전에 다소 주의할 만한 기사”로서 『삼국사기』 조분 4년 5월, 7월, 첨해 2년 4월, 유례 4년 4월, 6년, 9년, 11년, 12년, 나물 9년 4월, 실성 원년 3월을 들었다(이상 11회 열국의 교섭). 또 임나일본부의 존재도 부인하였다.

“가야는 일본고사에 거하면 임나라 칭하여 고대 일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본은 심지어 이 땅(금 김해)에 일본부라는 政廳을 두고 이 나라를 보호 감독하였다 한다. 그러나 아 동방 고사 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추호도 발견하기 어렵고 다만 임나라는 이름이 1,2처에 보일 뿐이다(고구려 광개토왕릉비에 ‘追至任那加羅從拔城’이라고 하고 또 삼국사기 강수열전 ‘臣本任那加良人’ 운운)”(10회 가야의 발흥)

이를 보면 이병도는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를 부정하고(이에는 津田左右吉의 영향이 있었을 것), 『삼국사기』, 「광개토왕릉비문」 등 우리 측 자료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비문」에 보이는 왜에 대한 언급으로는 위의 것 외에 “백제를 도와 同江(임진강) 하류 유역을 침범한 일본군을 대파하고” 라는 구절이 더 있을 뿐(12회 고구려의 전성) 신묘년 기사에 대한 해석 등은 빠져 있다. 혹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

이병도는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즉 백제의 아신왕이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하여 태자 전지를 일본에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었고, 또 아직기, 왕인 등을 보내어 한문학을 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광개토왕 백제 침공 시에는 일본의 백제 원조까지 있었다”고 하였다(제 13회 백제 남천 전의 균형책). 이 점은 문화 전파를 다루면서 다시 언급되었다. 대륙문명의 매개자로 유명한 백제는 아신왕 때 아직기를 일본에 파견하고, 아직기는 박사 왕인을 추천하니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갖고 건너갔고, 양인은 한학 전파 노력하여 일본 문화사상 일대 신기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24회 한문학의 전래와 삼국의 국사 편수).

불교의 전파와 관련하여서는 성왕이 일본에 불법, 공예 기타 제반 학술을 전파하여 우의를 두터이 하였는데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시초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14회 백제 남천 후 신라와의 관계)고 하였고, 이 점 역시 문화의 전파를 다루면서 성왕이 불상과 경론을 일본에 보내어 그 법을 전하고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 고구려 승려 혜관을 비롯 고구려, 백제 승려들이 도일하여 불교 흥통에 노력하였다고 하였는데(이상 25회 불교의 전래), 삼국 문화의 일본에 대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또 고구려 화가 담징(영양왕時 人인가)은 일본(推古天皇時)에 가서 유명한 일본 최고의 건축물인 법흥사의 벽화를 그리어 후인을 경탄케 할 뿐 아니라 (『일본서기』 사료 인용: 생략) 기타 중국 고전 및 지목, ??의 製法에까지 통호하므로 더욱 당시 일본인의 崇敬을 받았다. 더욱 백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백제의 화공, 冶工, 건축사, 縫女 및 釀酒 등 공예 백기가 일본에 前後 連渡하여 일본의 소위 飛鳥時代(推古天皇時)의 문명을 現成하게 되었다. 실로 이 飛鳥時代의 일본 예술은 전혀 我 삼국시대의 것을 그대로 수입 모방한 것이므로 그 시대의 유물을 통하여서도 당시 삼국의 예술의 양식과 그 발달의 如何를 窺知할 수 있다.”(26회 미술, 공예 음악 및 기타 (속))

요컨대 일본 비조문화는 삼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일본의 백제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삼국의 영향 특히 백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안확이 크게 관심을 가진 듯하다. 즉 백제의 해외정책을 다루면서 왜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불행히도 그 다음 7줄이 ○○으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황의돈과 장도빈은 아직기와 왕인, 성왕의 불교 전래, 담징의 법륜사 벽화 등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병도는 일본의 백제에 대한 지원을 약간 언급하였지만 그보다는 일선동조론의 근거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일본 고대 문화의 한반도 기원설을 적극 주장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3. 통일신라와 발해

이병도는 신라가 당을 구축함으로써 반도를 통일하였다고 파악하였다.

“新羅는 唐의 歡心을 사서 드디어 그 힘에 依하여 累代 仇讐의 麗·濟 兩國을 滅하였으며 前日의 恥를 雪한 점으로 보아서는 爽快하겠지만 所得 上으로 보아서는 그 間 征戰의 功이 決코 적지 아니함에도 不拘하고 아무 有形한 新領土의 割取의 利가 없었고, 도리어 半島內에 一大 新勢力이 出現하여 暗暗 中에 自國을 壓하려 함을 覺하였다. 新羅는 이때를 當하여 自家의 安全을 計하려 함은 勿論이요 一步를 進하여 唐의 勢力을 驅逐하고 半島를 統一하려는 慾望과 決心이 생겼다. 羅·唐의 衝突이 未久에 일어날 것은 自然의 趨勢였다. (중략) (문무왕 15년 薛仁貴와 李謹行의 唐軍을 격파한 후 당군의 형세는 위축되고) 新羅는 事實上 大同江 中流로부터 德源 부근에 至하는 一線을 北境으로 삼아 그 以南의 땅을 併有하게 되었다. 唐도 이를 默認함에 因하여 新羅는 半島 唯一의 主人公이 되었다(平壤에 있던 安東都護府는 文武王 16年 頃에 이미 遼東으로 옮기게 되었다).”(27회 신라의 반도통일)

한편 발해의 건국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渤海는 高句麗 滅亡 後 30餘年 만에 滿洲에서 일어난 나라이니 이는 卽 前日 高句麗에 屬하였던 粟末靺鞨이 高句麗 崩壞 後 그 餘衆을 合하여 建設한 것이었다. 粟末部(松花江 流域에 據한 者)는 黑水靺鞨(黑龍江 沿岸에 居한 者)과 함께 當時 靺鞨族 中에서 가장 强盛하였던 者였다. 渤海는 卽 古肅慎族의 後裔와 古濊貊族의 後裔와의 結合이요 또 高句麗의 復舊라고도 말할 수 있다.(중략) (大)祚榮은 本是 高句麗의 舊將(本是 祚榮은 靺鞨人으로 高句麗의 籍에 入하였던 者라 함)으로 (중략: 속말부 東牟山을 근거지로 하여) 四方을 討併하고 또 高句麗의 遺衆을 많이 合하여 스스로 强大하여지자 비로소 國을 開하고 自稱 震國王이라 하였다.”

“武王은 使를 日本에 致하여 自國은 高句麗의 舊居를 復하고 扶餘의 遺俗을 保한다 報하고 好를 修하기를 約하였으되(하략: 당·신라와는 대립)”(이상 29회 발해국의 흥기)

이처럼 이병도는 발해가 고구려의 후신으로서 말갈과 고구려 유민의 연합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판도가 고구려 전성기의 그것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한 듯하다. 즉 진국에서 발해로 국호를 바꾸었을 무렵 그 판도는 古夫餘, 沃沮 및 고조선의 일부를 포함하여 남으로

신라와 接하였고, 해동성국이라고 칭해졌던 宣王 仁秀代에는 동은 일본해, 북은 송화, 흑룡강, 서는 압록강 하류로부터 북으로 興京지방을 지나 다시 開原 지방에 이른 선에서 당과 接한 듯하고, 남은 평안도의 일부와 함경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안변 지방에서 신라와 接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병도는 발해의 역사가 한국사의 주류로 포함된 여기지는 않았던 듯하다. 발해 멸망 후 대광현 등이 망명하였고, 왕건이 이들을 우대하였다고 하였을 뿐이고, 신라의 항복과 후백제의 멸망으로 “오래 동안 紛擾하던 반도의 대부분은 이에 다시 麗太祖에 의하여 통일되었었다”고 하였다. 제 9장의 제목이 신라의 통일과 발해의 건국이고, 제 10장 신라의 말세와 당시 동방의 형세 중 제 4절은 북방 발해국의 멸망과 신라·후백제의 몰락 및 고려의 통일이지만, 고려의 통일에 발해를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병도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병렬적으로 파악하였지만 통일신라는 고려에 연결되는 반면 발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통일신라-고려로 한국사를 체계화하였던 셈인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그가 문화를 중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사를 일견하면 전쟁사에 불과한 듯 보이지만 “그 시대의 制度, 法俗, 宗教, 文學, 藝術 및 其他에 關하여 살펴보면 一方으로 그 時代 文化의 進歩 發達이 可히 後人을 驚歎시킴에 足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의 문화(능력, 역할)에 대해 비교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려는 한군현 대부분을 점거하여 문화적으로 비교적 개화하였으며, 또 개화된 부여 일족이 남하하여 건국하였고, 중국과 근접하여 중국, 인도 문명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았으며, 또 이를 남방 여러 나라들에 전파하였다. (2) 백제는 삼한의 중심인 마한에 위치하였고, 개화된 부여 일족이 남하하여 건국하였으며, 서해를 통해 남중국과 교통, 자국의 문화와 유학 불교를 일본에 전파하여 그 문화를 助長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3) 신라는 중국과 격절되어 있어 고구려, 백제를 통해 선진 문화 수용하였는데, 단 두 나라와 달리 매년 전쟁을 겪지 않았으므로 민력을 충실히 하여 다른 두 나라와 패권을 겨룰 정도로 성장하였고, 또 여력을 문화에 쏟아 “반도통일 후 문화상 황금시대를 초치”하게 되었다.(이상 21회 삼국시대의 문화(신라통일 이전) 서론)

이병도는 삼국의 문화가 중국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독자성을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삼국은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제도 법속에 있어서는 동방 고유의 것을 많이 채용하여 중국의 것과는 방향을 달리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고구려, 백제는 그 법속이 대개 부여의 것과 유사하며, 또 신라의 정치조직으로부터 관직명에 이르기까지 진한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21회 삼국의 제도·정치)

“삼국시대의 유물에 의하여 보면 물론 규모와 양식이 다소 중국제왕조시대의 것을 모방한 것도 많고, 또 흑 서역, 인도 미술의 趣味를 加한 것도 많지만, 또한 조선 독특한 양식과 趣味를 가진 것도 많다.”(25회 미술, 공예, 음악 및 기타)

이러한 문화가 절정을 맞이하였던 것은 다름아닌 통일신라에서였다.

“불교의 흥륭에 따라 삼국은 堂塔의 조영, 불상의 주조가 성히 행하고, 동시에 건축, 조각, 회화, 도금술 및 기타 공예 상에 큰 영향을 주어 예술 상 비상한 진보발전을 致케 하였었다. 더욱 신라의 무열·문무 兩王이 반도통일의 業을 營할 때와 그 후 몇 대 間은 실로 반도

예술사 상 황금시대를 이루게 되었다” (25회 불교의 전래(속))

그리고 통일신라의 문화는 고려를 거쳐 근세조선 문화의 뿌리가 되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고려는 신라의 근현 중에 일어나 전일 신라의 다스리던 영토를 전부 통합한 관계로 신라 문화의 제통을 직접으로 답습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경순왕이 항복하면서) 경주의 舊官, 학자, 문인, 百工, 珍寶 및 기타의 문물이 다 隨從하여 羅京의 문화는 전부 宋京으로 利殖된 觀이 있었다. 그리하여 신라의 문화는 고려를 후계자로 삼아 그 전통을 연장하게 되었었다. (중략) 이외에도 지리상 혹은 정치상 관계로 대륙의 영향을 간접 직접으로 입음이 많았었다. 즉 당, 송, 원 諸代의 문화를 自家 문화에 加味 入調하여 동방 특유의 색채를 발휘한 것이 많았었다. 이와 같이 신라 및 외국의 문화를 咀嚼 消化한 고려의 문화는 또 후세 이조문화의 선구가 되어 조선역사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江河에 비유하여 말하자면 고려 문화는 신라의 것을 그 본류로 삼고, 당, 송, 원의 것을 그 지류로 삼아 다시 이조문화에 注入하여 근세조선문화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77회 고려조의 문화 서언).

이로써 보면 이병도는 영역이나 주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통일신라-고려의 한국사 체계를 구상하였으리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당시 우리나라 분으로 國史 방면에 조예가 깊은 분은 李能和·崔南善·李重華·安自山·文一平·黃義敦·權惠奎 등 諸氏이어서, 이 분들과의 交遊에서 啓蒙·刺戟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나에게 직·간접으로 큰 격려와 자극과 영향을 준 이는 日本 早大의 津田左右吉 박사와 池內宏 박사였습니다.”⁴⁰⁾

이병도의 고대사 인식은 일본인 스승들의 직접적 영향(실증)과 최남선 등의 간접적 영향(계몽, 민족) 아래에서 성립하였고, 그 일부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40) 1966, 「斗溪李丙燾博士古稀紀念座談會」, 『震檀學報』 29·30; 「研究生生活의 回顧(1)-斗溪先生 古稀紀念 座談會-」, 『역사가의 유향』, p. 280).

이병도의 「조선사 개강」과 고대사 인식을 읽고

송호정(한국교원대학교)

조인성 교수님의 이번 발표는 2010년 9월 한국사학사학회에서 「이병도의 조선사개강-고대사인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두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이병도가 본격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1925년부터로 알고 있는 토론자로서는 처음으로 1925년 이전에 이병도가 동아일보에 5달 정도(1923.9~1924.2) 연재한 글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아직 “조선사개강” 글을 검토하지 못했기에 발표문 원고를 읽고 난 후 생각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조선사 개강」의 의의

「조선사 개강」은 이병도가 1919년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학교 교사시절 1923년 송진우의 부탁으로 「동아일보」에 연재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병도는 1922년부터 한국 유학사와 지리도참 등 사상사 연구에 전념하였고 본격적인 고대사 글은 처음으로 작성한 것이라 이병도 본인도 ‘너무 유치하여 구역이 날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체적인 내용이 미숙하고 역사 인식 역시 뚜렷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발표 내용처럼 「개강」의 내용이 88회의 연재를 통해 일정 분량의 내용을 서술했기에 공공성을 획득했고, 이후 『한국사대관』 고대편을 쓰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강」의 내용이 미완성이며, 하나의 통사로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역사 인식도 초보적인 단계에 그친 부분이 많아, 여전히 당대에 출간된 안확, 장도빈, 황의돈 등의 통사와 비교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2. 고대사의 공간

「개강」에서 이병도는 上代 한국사의 공간으로 한반도와 만주, 즉 滿鮮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1920년대 당시 고대의 ‘대조선’을 상정하던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고, 특히 일부 일본학자들이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고대사를 조선사에서 제외하고 朝鮮史를 韓族의 역사로 한정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병도는 분명 1930년대 이후에는 근대사학에서 요구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근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른바 ‘소박한 합리주의’ 인식 속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강」에서 “실로 만주 상대사는 조선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조선에 있어서는 만주의 역사와 조선반도의 역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내용은 이나바(稻葉岩吉)의 「만선불가분의 사적 고찰」(1922년)에서 한

국사의 자주성을 부정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병도가 아직 일본 관학자들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신만의 역사인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시대구분

이병도는 「개강」에서 상고-중고-근세사의 시대구분을 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처럼 아직은 시대구분의 의의를 뚜렷이 인식하거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국을 상정하지 않은 점은 당시에는 한국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았고, 발해를 우리 역사의 주류로 인식하지 않은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병도는 『한국사대관』(1948, 1954)을 쓸 때나 그 이후에도 시대구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병도는 “절연한 시대구분을 정한다는 것은 자못 부자연한 일이다. 더욱이 정치적 변동기로서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하고 낡은 방법이라 하겠다” “정치의 파동은 역사의 큰 구비요 파동인 것이다”(『한국사대관』)하여 굳이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민족’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시대-민족소통일시대-민족대통일시대-민족재분열기...식으로 민족사의 전개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고조선

「개강」에서 이병도는 ‘단군조선’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역사상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직은 단군조선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병도는 「개강」에서 ‘기자조선’과 ‘위만’의 역사에 대해 우리 역사로 보기 보다는 ‘漢人國家’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이후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연구하며 기자조선을 토착조선의 계승으로 보아 ‘한씨조선’으로 정리하고 위만 역시 토착 고조선사의 계승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고조선 역사가 중국인의 이주와 영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19세기 이래 일본 관학자들의 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병도가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 배운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5. 통일신라와 발해사

「개강」에서 이병도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병렬적으로 파악하였지만 통일신라는 고려에 연결되는 반면 발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발표자는 문화를 중시하는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즉 삼국의 문화가 절정을 맞이한 것은 통일신라이고, 통일신라 문화가 고려에 이어졌다는 점에서, 통일신라-고려의 한국사 체계를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토론자도 동의합니다.

『한국사대관』을 보면 이병도는 신라의 통일과 발해의 건국 내용을 「통일신라시대」편에서 서술하고 있고, 본문에서 신라문화의 만개·정치의 변천, 신라의 붕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병도는 우리 고대 역사의 흐름을 삼국-통일신라-고려로 보았고, 만주 일대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주된 흐름에서 제외하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역사의 공간을 압록강 이남으로 설정한 정약용 등 실학자들의 인식이 많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제발표 2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연구

김기덕 (전국대)

I. 머리말

II. 방법론

III. 주요 연구성과

1. 도참과 풍수지리의 개념 정립과 관련 자료의 해석
2. 대상지의 답사를 통한 구체적인 풍수 설명
3. 각 王代 및 시기별 고찰

IV. 평가와 과제

1. 평가
2. 과제

V. 맺음말

주제발표 2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연구

김기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I. 머리말

필자는 1994년 高麗封爵制研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려왕족의 경제적 측면과 고려 후기 봉군제 연구를 지속할 것인가, 보다 새로운 주제를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흔히 고려시대는 오행적 세계관과 풍수사상이 풍미하였던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찍이 이병도의 연구와 최병헌교수의 초기 연구가 있었을 뿐이었다. 오행사상은 철학에서, 풍수사상은 지리학에서 이루어졌다. 오랜 고민 끝에 필자는 고려시대 오행사상과 풍수사상을 다시 공부해보기로 하였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조금 가슴이 벅차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대학 차원의 정식연구만이 아니라, 민간의 주역 및 사주 역학과 재야에 있던 다양한 풍수연구가들을 찾아가 배웠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필자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주위에 알려지고, 관련 글의 의뢰가 들어 왔다.

먼저 200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새로운 『高麗史』 志 역주작업을 시도하면서 필자에게 五行志 역주를 의뢰하였다. 이에 필자는 4년동안 3편의 오행지 관련 글을 작성하였다.⁴¹⁾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오행지 역주작업은 뒤에 언급할 필자의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2002년 교수신문사에서 우리 학문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최창조의 自生風水에 대한 논평을 의뢰하였다. 필자는 이에 「자생풍수는 학문적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신게 되었다.⁴²⁾ 이 짧은 글은 필자의 풍수관계 글로서는 처음이었으며, 이후 10여 편의 풍수 관련 연구를 시도하였다.⁴³⁾ 이후 필자의 풍수연구는 역시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현재 정체 상태에 있

41) 김기덕, 「고려사 오행지의 역주현황과 새로운 역주 방향」 『고려시대연구』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고려사 오행지 수행조 역주」 『고려시대연구』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고려사 오행지 역주(2)」 『고려시대연구』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42) 이 시리즈는 뒤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필자의 글도 실리게 되었다. 교수신문사,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 생각의나무, 2003.

43)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사상사학』 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한국의 매장 문화와 화장문화」 『역사민속학』 1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고려시대 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사학연구』 73, 한국사학회, 2004; 「고려시대 개경과 서경의 풍수지리와 천도론」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구회, 2004; 「한국의 토속적 자연관 - '터'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3, 2004; 「고려 중후기 천도논의와 풍수도참설」 『역사민속학』 20, 2005; 「풍수지리학 정립을 위한 과학풍수의 일사례」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중세사회에 있어 풍수 도참사상의 전개과정」 『한국중세사연구』 21,

다. 필자는 서기 2000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영상역사학’을 제창한 바 있으며,⁴⁴⁾ 이후 이 분야에 매진하였고⁴⁵⁾ 다시 인문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분야로 확장되었다.⁴⁶⁾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와 도참사상을 검토하는 본 심포지움을 맞이하여, 필자는 솔직히 부끄러운 심정임을 고백하고자 한다. 이미 70여년 전에 시도하였던 이병도의 이 분야 연구를 과연 얼마나 뛰어 넘었는가? 필자 외에 이 분야에 대하여 최병현, 김창현, 장지연의 연구가 있다. 최병현은 주목할만한 오행 및 풍수사상에 관한 글을 연구초기에 남겼지만, 이후 이 분야 분야를 지속하지 않았다. 김창현은 본격적으로 풍수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풍수도참의 정치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찰하였다.⁴⁷⁾ 장지연은 이 분야 연구를 기반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다.⁴⁸⁾ 그러나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고려시대 풍수 및 도참사상 연구는 모두 이병도의 연구성과에 기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아직 이병도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극복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이병도의 연구는 깊고 철저하였다. 본 글에서는 풍수, 도참사상에 대한 이병도의 방법론, 주요 연구성과, 평가와 과제 등을 고찰함으로써, 차후 이 분야 연구 확산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II. 방법론

일제 강점기 이병도의 풍수, 도참사상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1947년 을유문화사에서 『고려시대의 연구 -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라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1980년에 일부를 보완하여 아세아문화사에서 개정판이 나왔다.⁴⁹⁾ 그런데 이미 1947년도에 나온 이 책의 첫머리 「序에 대신하여」라는 글을 분석하면, 풍수 및 도참사상에 대한 이병도의 방법론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은 실제 본문 서술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먼저 풍수 및 도참사상에 대한 기본 시각에 있어, 이병도는 ‘고질적 사상’이요 ‘미신사상’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실제 본문 서술에서도 줄기차게 이 점을 반복하며 그 해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민속학적 견지에서 또는 사상사적 입장에서 연구, 고찰함은 우리에게 부여된, 한 흥미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뒤에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풍수 및 도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은 風水와 圖讖을 원칙적으로 구분짓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풍수를 크게 보아 도참의 하나로 규정짓

한국중세사학회, 2006; 「현대사회와 풍수」 『산수풍의 조화를 꿈꾸는 풍수』, 한국국학진흥원, 2007; 「고려시대 강도공필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조선의 매장문화와 풍수사상」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44) 김기덕, 「정보화시대의 역사학: ‘영상역사학’을 제창한다」 『역사교육』 75, 역사교육연구회, 2000.

45) 영상역사학 관련 연구는 다음의 두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김기덕 책임편집, 『우리 인문학과 영상』, 푸른역사, 2002; 김기덕, 『영상역사학』, 생각의나무, 2005.

46) 2003년 첫 논문을 시작으로(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창간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는 다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김기덕, 『한국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7.

47) 많은 관련 논문이 있지만, 이 분야의 것으로 다음의 저서를 제시해 둔다. 김창현, 『고려의 남경, 한양』, 신서원, 2006.

48) 장지연, 『고려, 조선초 국도풍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9) 필자는 이 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고 있다. 또한 풍수사상의 긍정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 迷信思想이라는 관점은 시종일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시각에서 이병도는 연구의 주안점을 지리도참 그 자체의 발전보다도 그 사상과 시대환경과의 관련에서 그것의 시간적·공간적 작용성을 잡으려 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 사상은 시대와 인심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고, 반대로 시대와 환경이 이 사상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여 실제에 어떠한 事爲의 現顯을 보게 되었는가를 더 주의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주안점은 대단히 역사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본문 서술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잘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뒤에 언급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풍수, 도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여, 시대와 풍수 그리고 시대와 도참과의 관계에 있어 보다 역동적인 해석을 시도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부정적 도식화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분야 연구의 어려움은 사료의 부족과 도참 문구 해석의 곤란함이다. 먼저 사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병도는 시대환경과의 관계로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실제 해당 지역을 답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보완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본문 연구에서 이 점은 아주 훌륭하게 관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지 답사를 통한 서술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오늘날 연구에서도 대단히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도참 문구 해석에 있어서는 중국 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보충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隱微와 神秘를 극한 도참 문구를 해석하기는 결코 쉽지 않는데, 이 부분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분석을 시도한 부분은 확실하게 뛰어난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주요 연구성과

이 분야 이병도의 연구는 총설을 통한 개념 연구 및 전체 개관, 그리고 고려전기, 중기, 후기의 시기 구분과 각 시기별 도참의 성격 구분, 그리고 부록의 형태를 취하여 조선 초기 도참을 일별함으로써, 풍수 및 도참사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고려시대 전체 분석을 일단락 지었다는 점에 연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병도의 이 분야 연구성과를 크게 (1)도참과 풍수지리의 개념 정립과 관련 자료의 해석, (2)대상지의 답사를 통한 구체적인 설명, (3)각 왕대 및 시기별 고찰 및 의미부여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도참과 풍수지리의 개념 정립과 관련 자료의 해석

이병도는 풍수 및 도참사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관련 이론 및 자료를 상세히 해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하나하나 작은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초창기 연구로서는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 해당하는 것 중 주요한 것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⁰⁾

50)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도 풍수 및 도참과 관련된 것은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이병도는

1) 개념의 정립

① 도참 개념의 정립

『고려시대의 연구』의 부제가 「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참 개념의 정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왕조가 일어나고 망하는 소위 ‘易姓革命’의 큰 변동기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기타 외우내환으로 시국이 불안할 때에도 도참사상은 반드시 출현하였다. 따라서 이병도는 도참에 대한 사상사적 방면의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학자의 학술적 고찰을 거치지 않았다면, 고려 일대를 劃하여 그 시대의 도참사상이 때를 따라 어떤 조건하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어났으며, 또 그것이 실제에 있어 어떠한 작용과 事爲를 나타냈던가를 고찰하려 한다고 이 분야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있다.⁵¹⁾

도참의 語義的 고찰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도참이란 그 內容圖式의 眞僞와 現出의 神秘與否를 막론하고 장래의 事象 - 특히 人間生活의 吉凶禍福, 盛衰得失에 대한 豫言 혹은 徵兆를 泛稱하는 용어라고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도참의 중요조건은 무엇보다도 將來事實에 대한 豫言 암시에 있으므로 그 내용방식 및 現出의 神秘와 같은 것은 제2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에 관한 傳說的 說話는 설령 어떠한 神秘를 극하였을지라도 圖讖의 성질에 속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⁵²⁾

② 風水地理 용어의 정립

풍수라는 용어는 일찍이 중국의 풍수 고전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1931년에 村山智順의 『조선의 풍수』에서 검토된 바 있다. 그는 풍수는 堪輿, 地理, 地術이라고도 한다고 하면서 각각의 용어를 설명한 바 있다.⁵³⁾ 『고려사』에서도 풍수, 감여, 지리는 종종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병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⁵⁴⁾

風水地理는 단지 ‘풍수’ 혹은 ‘지리’란 것이 元稱이고 또 따로 ‘堪輿’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名稱의 분류와 誤解를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특히 ‘風水地理’란 重複語를 쓰기로 하겠다. 한층 合理的인 用語로써 한다면, 이를 地相學 또는 相地學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대개 風水地理는 都邑·宮宅·陵墓의 地를 卜相하는데 쓰이는 일종의 觀相學인 까닭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風水와 地理를 합성한 風水地理라는 중복어를 사용한 것은 원자료에는 없으며, 풍수고전서에도 없다. 이병도가 합성하여 만든 용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오늘날 한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풍수 대신에 감여나 지리라고 표현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현대에 와서는 지리라고 할 때에 풍수를 연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풍수라고만 하면 현대 학문과의 연결성에 있어 더욱 고립되었을

세세한 점에 있어서도 그 뜻을 꼼꼼하게 고찰하였다. 따라서 간단한 용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많으나, 여기에서는 보다 분량이 많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51) 『고려시대의 연구』 緒言.

52) 『고려시대의 연구』 도참의 의의, 16쪽.

53)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21쪽.

54) 『고려시대의 연구』 풍수지리의 본질과 그 전래, 21쪽.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는 風水에 다양한 용어가 붙어 風水家, 風水學, 風水思想이라고 한다. 이것은 風水地理에 같은 용어가 붙어 風水地理家, 風水地理學, 風水地理思想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도 쓰인다. 중복어이지만 풍수지리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기에, 그나마 풍수가 현대 학문의 위상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裨補寺塔 개념의 정립

道誥의 裨補說과 그것을 활용한 고려 태조, 그리고 후세에 寺塔 濫造를 경계하고자 훈요 십조에 강조된 사찰 창건의 원칙을 해석하면서, 이병도는 비보사탑 개념을 정립하였다.⁵⁵⁾ 그리고 이것은 뒤에 이기백, 최병현 등의 연구에 계승되었으며, 지리학에서 최창조, 최원석의 연구로 이어졌다.

2) 관련 자료의 해석

① 古鏡識의 해석

이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동국사략』,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 나타나고 있는데, 『고려사』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태조 즉위 원년 3월에 唐의 상인 王昌瑾이라는 사람이 철원 市中에서 어느 노인에게 古鏡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그 거울에 文句가 있었다. 그 내용은 고려 태조의 즉위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흔히 古鏡識이라 한다.

지면상 원문과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원문 내용이 쉽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병도는 상세히 풀이하여,⁵⁶⁾ 왕조교체기 발생하는 도참의 사례를 잘 해석해 주었다.

② 胡舜申의 『地理新法』의 해석과 적용

胡舜申의 『地理新法』은 陰陽五行과 天干地支를 이해하고 易學의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남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徐兢의 『高麗圖經』에는 개경의 形勢를 설명하면서 호순신의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⁵⁷⁾ 이것을 분석하면서 이병도는 호순신의 이론을 요령있게 해석하고 있다.⁵⁸⁾

이 胡舜申의 『地理新法』은 한국의 풍수연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흔히 풍수의 방법론을 대별하면 形氣論과 理氣論으로 나누고 있다. 형기론이란 실제 자연 형세의 분석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이기론이란 자연 형세를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패철 위주의 方位論을 중시하는 이론이다.⁵⁹⁾ 현재 풍수연구에 있어 이러한 두 이론의 대립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기론 위주의 풍수방법론의 핵심에 胡舜申의 『地理新法』과 『地理五訣』⁶⁰⁾이 있다. 특히 이 중 胡舜申의 『地理新法』은 고려말 조선초 河崙에 의해 일약 화

55)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74-84쪽.

56)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37-41쪽.

57) 『高麗圖經』 권3, 城邑 形勢條.

58)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93-95쪽; 고려 초기의 건도문제, 368-374쪽.

59) 이러한 분류는 韓中日이 동일하다. 日本의 涉谷鎮明 教授는 形法(形勢學派, 江西學派, 巒頭)과 理法(原理學派, 福建學派, 理氣風水)으로 분류하여 한국은 形法이 우세하고 일본은 理法이 보다 널리 퍼져 있다고 분석하였다(「오끼나와의 風水見分記에 나타난 抱護, 植樹의 사상」 『민속학연구』 17, 2005). 中國의 王其亨 教授 역시 形法(形勢宗, 江西之法, 江西省)과 堪輿(理氣宗, 宗廟之法, 浙江省-福建省)로 분류하여 形勢 중시와 方位 중시의 학파를 구분하였다(「風水, 中國 傳統建築에 있어서의 環境觀」 『민속학연구』 17, 2005).

려하게 조명되어 이후 조선시대 풍수가를 선발하는 地理業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책이다. 다음의 기록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호순신이 널리 알려진 것은 1393년(태조 2) 당시 경기도 관찰사 하륜의 다음의 상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계룡산지는 남쪽에 치우쳐서 동·서·북쪽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 관련서적들을 대강 열람하였습니다. 지금 듣기로 계룡산의 땅은 산은 乾方에서 오고 물은 巽方에서 흘러간다 하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말한 ‘물이 長生을 깨뜨려 衰敗가 닳치는 땅’입니다.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고려 왕조의 여러 산릉의 길흉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봉상시의 제산릉형지안의 산수가 오고간 것을 상고해 보니 길흉이 모두 맞았으므로, 이에 심호생에게 명하여 새 도읍 역사를 그만두게 하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호순신의 글이 이로부터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¹⁾

고려 왕조의 여러 산릉의 길흉을 『지리신법』으로 조사하니 모두吉凶이 맞았고 그로부터 이 책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고려 시대에는 호순신의 논리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호순신의 이론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론을 적용해 보니 王陵의吉凶이 모두 맞았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거의 전적으로 정치적인 計略이 들어간 正황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고려식의 地勢論 위주의 풍수에서 이제 사대부가 참여하는 方位論 위주의 풍수와 교체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체계모니 다툼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③ 三京巡駐期間圖解

숙종대에 金謂碑의 남경 천도 건의가 있었다.⁶³⁾ 이 上書에는 『道說記』 『道說踏山歌』 『三角山明堂記』 『神誌秘詞』 등의 책을 인용하며,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여 三角山의 남쪽, 木覓山의 北平地에 南京을 건립해야 한다고 논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의 해석이 쉽지 않은데, 이병도는 자세히 이 글을 풀이하고 있으며, 특히 三京巡駐期間은 圖解로 제시하고 있다.⁶⁴⁾

④ 三蘇의 해석

명종대에 三蘇宮의 경영이 시도되었다.⁶⁵⁾ 三蘇는 左蘇 白岳山, 右蘇 白馬山, 北蘇 箕達山을 뜻하는데, 문제는 과연 ‘蘇’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몇 번 자신의 견해를 번복하면서 이병도는 蘇를 簞出→神聖·嵩高→山岳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고려의 삼소제는 동방 古來의 산악숭배 삼신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삼한시대의 蘇塗制, 삼국시대의 三山制의 유풍이라고 유추하였다. 이러한 전통에서 國都 주의의 三山 三蘇를 神山으로 숭배할 뿐만 아니라, 지리도참사상의 영향으로 吉地로 중시하여, 궁궐 조성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⁶⁶⁾

60) 이 책은 趙廷棟 외 여러 사람의 저작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체로 논란이 많은 책이다.

61) 『태조실록』 태조 2년 12월 1일 임신.

62)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사상사학』 17, 2001.

63) 『고려사』 권122, 김위제전.

64) 『고려시대의 연구』 숙종과 남경재건, 161-168쪽.

65) 『고려사절요』 권12, 명종 4년 5월조.

66) 이병도는 삼소에 대하여 쓴 두 번의 시도(「高麗 三蘇에 就하여」 『朝鮮史學』 5; 「高麗 三蘇考」 『東洋

⑤ 三十六國과七十二數 해석

‘三十六國朝天’이라는 구절은 앞서 설명한 김위제의 上書에도 나오며,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에 의해서도 언급된다.⁶⁷⁾ 이병도는 이것을 九州 九野의 數에 四方의 數를 곱한 것에서 도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九數는 陽의 極數인 9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역시 많이 인용되는 72라는 수도 36數에 대한 관념의 연장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김위제의 上書에 인용된 神誌秘詞에 보이는 ‘朝降七十國’이라는 표현의 70은 五言詩로 표현하기 위하여 72의 略稱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⁶⁸⁾

2. 대상지의 답사를 통한 구체적인 풍수 설명

이병도의 연구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중요한 장소를 직접 답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풍수적 고찰을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고증사학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것으로, 현재 지형이 변형되어 확인할 수 없거나, 북한 지역에 있어 도저히 가름하기 어려운 지역도 비교적 상세하게 도면과 사진을 첨가하며 설명하고 있어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天安地方의 五龍爭珠形으로 되어 있다는 王字城을 확인 답사하고서는 “나는 이 先生의 설명을 拜聽하면서 재삼 그 지형을 둘러 보고 흥미와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은⁶⁹⁾ 현장 답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짐작케 한다.

- ① 天安地方 王字城 답사 및 서술⁷⁰⁾
- ② 開京 지역 풍수답사 및 서술⁷¹⁾
- ③ 西京 지역 풍수답사 및 서술⁷²⁾
- ④ 西江 餅岳 지역 長源亭 풍수답사 및 서술⁷³⁾
- ⑤ 西京 지역 龍輿宮 풍수답사 및 서술⁷⁴⁾
- ⑥ 西京 지역 大花宮 풍수답사 및 서술⁷⁵⁾
- ⑦ 白州 兎山 지역 半月岡 풍수답사 및 서술⁷⁶⁾
- ⑧ 三蘇 지역 풍수답사 및 서술⁷⁷⁾
- ⑨ 江華 지역 離宮址 풍수답사 및 서술⁷⁸⁾

學報』 16권 4호)를 취소하고 『고려시대의 연구』에서 다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고려시대의 연구』 무신발호시대의 국정과 음양 도참, 253-272쪽).

67) 『고려사』 권127, 역적 1, 묘청전.

68) 『고려시대의 연구』 숙종과 남경재건 附 三十六國考, 171-174쪽.

69)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49쪽.

70)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47-55쪽.

71)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85-101쪽.

72)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101-107쪽.

73) 『고려시대의 연구』 문종과 諸離宮의 경영, 139-151쪽.

74) 『고려시대의 연구』 예종조의 지리비록의 편찬과 용언궁 창기 및 기타, 177-187쪽.

75) 『고려시대의 연구』 인종조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과 그 반란, 197-212쪽.

76) 『고려시대의 연구』 의종과 도참, 245-251쪽.

77) 『고려시대의 연구』 무신발호시대의 국정과 음양 도참, 257-262쪽.

78) 『고려시대의 연구』 무신발호시대의 국정과 음양 도참, 293-299쪽.

이병도는 풍수 현지 답사를 시도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도 및 사진, 그리고 자신이 그린 지형도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설명방식이 아주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이론의 四神砂 논리에 입각하여 형세적 판단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서술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⁷⁹⁾ 더욱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史料에 나오는 풍수 관련 기사를 실제 답사를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개경의 풍수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개경의 풍수에 대하여는 항상 水德不順과 관련하여 三鉗說이 있었다. 삼鉗이란 路鉗, 水鉗, 山鉗으로, 개경은 水鉗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開京 水勢의 문제점을 실제 풍수서술에 맞추어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개성과 같이 外水가 東方으로부터 흘러 오는 데는 靑龍의 低弱은 그다지 큰 결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⁸⁰⁾

3. 각 王代 및 시기별 고찰

앞에서 제시한 두 개의 주요 연구성과는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바로 이 부분이 이병도의 주요 연구성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총체적으로 목차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 고려의 전기: 건국 및 통일중심의 圖讖

- 태조와 圖讖
- 초기 諸嗣王과 西京과의 관계
- 성종·현종조의 東京建置와 그 의의

■ 고려의 중기: 延基·巡住 중심의 圖讖

- 문종과 諸離宮의 경영
- 숙종과 南京 再建
- 예종조의 地理秘錄의 편찬과 龍堰宮 創起 및 其他
- 인종조의 妙淸의 西京遷都運動과 그 叛亂
- 의종과 圖讖
- 무신말호시대의 國情과 陰陽圖讖

■ 고려의 후기: 移御·遷都 중심의 圖讖

- 變貌期の 國情과 圖讖
- 공민왕조의 國情과 圖讖
- 우왕조의 遷都 문제
- 공양왕의 즉위와 漢陽遷都 문제

■ [附] 조선 초기의 圖讖

- 조선 태조의 開國과 당시의 圖讖說
- 조선초기의 建都 문제

79) 물론 그의 분석 서술이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개경과 서경의 풍수를 분석하면서 이 병도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다.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사상사학』 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고려시대 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사학연구』 73, 한국사학회, 2004; 「고려시대 개경과 서경의 풍수지리와 천도론」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구회, 2004.

80) 『고려시대의 연구』 태조와 도참, 96-100쪽.

무엇보다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연구에서 고려사에서 전개된 全時期를 완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태조에서 현종까지를 전기로 구분하여 건국 및 통일중심의 도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문종에서 원종까지를 중기로 구분하고 延基·巡住 중심의 圖讖, 끝으로 원간섭기에서 고려 말기까지를 후기로 구분하고 移御·遷都 중심의 圖讖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기구분과 의미부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風水와 圖讖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병도는 緒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東方에 유행하던 圖讖은 흔히 풍수지리와 결합하여 그것을 素材로 함이 많았다. 물론 거기에는 天文·歷運思想·道佛思想, 기타 固有信仰(山岳崇拜)과도 관계가 밀접하였지만, 무엇보다도 風水地理와 관련이 더 깊었다. 圖讖과 風水地理는 본래 그 본질을 달리한 것이나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점에서, 또는 人事의 吉凶禍福 關係를 말하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兩者의 결합이 더욱 용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東方에 있어서는 兩者는 一而二, 二而一의인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業으로 하는 전문가도 역시 그러하였다. 즉 圖讖家인 동시에 風水家요, 風水家인 동시에 圖讖家를 겸하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圖讖에 대개 地理關係의 것이 많은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⁸¹⁾

위와 같은 입장에서 風水와 圖讖을 실제로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으며, 목차의 제목과 실제 서술에서 그 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 비록 풍수와 도참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 전체 시기를 도참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기구분하고 있다. 이병도는 실증사학자라는 평가에 맞게 사료에 대한 치밀한 해석과 관련 용어 및 이론의 분석, 그리고 현지 풍수 답사를 통하여 고려시대 전체 시기의 풍수 및 도참사상의 흐름 및 특징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풍수 및 도참사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고려시대의 역사상도 자연히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고려 태조에 대한 서술에서부터 마지막 국왕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선초기의 도참 사상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풍수사상의 핵심은 國都를 중심으로 전개된 풍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이 방면의 연구는 자연 조선시대 새로운 도읍지로서의 한양천도 문제까지 연결되어야 완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병도가 조선초기까지 시기를 확대시킨 것은 온당하다고 할 수 있다.

IV. 평가와 과제

81) 『고려시대의 연구』 緒言, 3쪽.

1. 평가

앞 장의 주요 연구성과에서 밝힌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치밀한 실증적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최근 학제간연구 혹은 학문의 융합이 회자되고 있다. 필자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도 인문학 바탕의 융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필자는 역사학에서 학제간연구는 무엇보다도 分類史에 대한 축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역사학은 역사자료 위주의 순수역사학으로 한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1990년을 전후한 동구권 및 소련의 몰락 이후 이러한 흐름이 더욱 고착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역사학에는 다양한 分類史가 있다. 사상사, 민속사, 여성사, 미술사, 대외교류사, 문학사, 경제사, 문화사 등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분류사는 다시 다양한 주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상사의 경우 불교, 유교, 무교, 음양오행, 풍수 등이 있으며 다시 그것들은 다양한 민속사와도 연관된다. 역사학이 학제간연구를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분류사와의 소통과 교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한 점에서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풍수와 도참사상을 치밀하게 연구한 이병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 위에서 역사학의 올바른 복원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각의 분류사의 핵심은 原型(Archetype)에 맞닿아 있다. 陰陽 및 五行思想은 동양 사회의 기본 원형이며, 풍수사상 또한 인간사회의 공간적인 ‘터’ 理論이면서, 人間再創造論이며, 生態環境論이라는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즉 각 분류사가 갖고 있는 원형과 만나야 진정한 학문적 融合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방법론에서 밝힌 바 있지만, 풍수 및 도참사상을 항상 고려의 政治史와의 전개 과정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점은 다음에 언급되겠지만 너무 否定的인 평가로 일관되어 있는 점은 유감이지만, 항상 정치사와의 관련을 중시하는 그의 방법론과 실제 서술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풍수와 도참사상을 설명하는 이병도의 서술방식의 뛰어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풍수와 도참사상을 알기 쉬우면서도 요령있게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을 정치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녹여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점은 필자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몇 가지 否定的인 평가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風水와 圖讖을 실제로는 구분하지 않은 점이다. 이것은 다음에 언급되는 것처럼 항상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풍수적 논리 제시의 有無로 風水와 圖讖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풍수적 논리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이다. 비록 신비적 요소라고 할지라도 풍수적 논리에 입각한다면 그것은 風水요, 그러한 최소한의 풍수적 논리근거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圖讖이 된다고 보고자 한다. 그런데 풍수적 논리가 遷都 논의와 결합할 경우에는 항상 정치적 요소가 개입한다. 즉 풍수가 정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정치논리가 풍수논리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흔히 풍수는 더욱 도참적 요소를 가질 확률이 크다. 여기에 더해 모든 문제는 항상 평가의 측면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풍수사상이

관여된 사안이 역사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그것은 도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풍수와 도참은 고정개념이 아니기도 하다. 비록 풍수사상에 입각했다고 하더라도 民生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그것은 얼마든지 圖讖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⁸²⁾

위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 도읍론과 관련하여 풍수와 도참의 차이를 ‘논리적 근거 제시’ 외에 제반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하나의 원칙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발전과정에 맞추어 전개되는 국토경영론에⁸³⁾ 입각할 경우 풍수요, 사회의 발전과정과는 관계없이 퇴행적인 풍수적 擇地 논리만을 반복한다면 도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①풍수적 논거 제시, ②국토경영론인가 퇴행적 擇地論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시대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을 천도논의와 관련하여 필자는 고려초기를 풍수사상 확산기, 고려 전반기를 풍수사상 전성기(이궁 및 천도논의), 고려 중후반기를 풍수도참에 의한 이궁 건설기, 고려말기를 풍수도참에 의한 遷都 시도기, 조선초기를 풍수사상의 재정립의 의한 遷都 시도기라고 구분한 바 있다.⁸⁴⁾

둘째는 풍수와 도참사상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고려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도는 그의 연구의 결론에서 방점까지 찍으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⁸⁵⁾

고려 초기는 建國·統三의 시대인 만큼 거기에 관한 圖讖說이 자연 성행하였고 중기로부터는 太平과 動亂이 번갈아 계속되는 사이에 權臣의 跋扈, 王權의 衰微를 보게 되었으므로 ‘松都地氣衰弱說’·‘龍孫十二盡’·‘更有十八字’ 등의 地理 歷運에 관한 讖說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참설을 이용하여 反逆을 꾀하는 자(이자겸·이의민과 같은 자), 遷都를 실행하여 중흥공신이 되려는 자도 있었지만, 이런 참설에 의하여 제일 신경을 날카롭게 한 계급은 누구보다도 王室이었다.

그래서 無數無度한 擇地·造宮·遷都·移御·祈禱·寺院重修 등 모든 延基하는 방법과 수단이 강구되고 실현되었거니와 그 허다한 토목공사와 巡住 齋祝 등에 허비된 民力·財力은 이 얼마나 컸던가. 저 말엽에는 衰世인 만큼 그러한 방식과 폐해가 더욱 심하였다. 이 때문에 國庫는 고갈되고 誅求 徵發은 그치지 아니하여 四方의 怨聲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왕실의 고립과 쇠미를 촉진할 뿐으로 필경 신비한 延基 방법에서 하등의 반응도 없이 자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歷朝가 그 無靈無效함을 경허하면서도 굳이 어리석은 迷信의 방법을 되풀이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自己生存·種族保存의 본능·충동에서 ‘혹시나’ 하는 염원과 위안으로부터 나온 관념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일견 이러한 분석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고려왕조는 500년을 존속한 왕조였다. 결론적으로 그 500년이 위와 같이 시종일관 관념의 유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해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따라서 “고려조는 지리도참이란 관념의 유희에 의하여 흥하고 성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망하였다”는 해석은⁸⁶⁾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82) 김기덕, 「한국 중세사회에 있어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48-149쪽.
 83) 나말여초 풍수지리설은 전국토의 재편논의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보았다(이용범, 김두진, 이기백). 그러한 논의를 이어받아 김창현은 국왕 순행과 천도논의를 도읍경영론, 국토경영론이라는 시각에서 정리하였다(김창현, 「고려시대 국왕순행과 도읍경영」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84) 김기덕, 앞의 「한국 중세사회에 있어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 참조.
 85) 『고려시대의 연구』, 결론, 344-345쪽.

하여 최근 제시된 유홍준의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⁷⁾

고려는 11세기에 30년간 3차례 걸쳐 요나라의 침입을 받았고, 12세기에는 금나라의 침공을 받았으며, 12세기 2/4분기 인종 때는 이자겸의 난, 3/4분기 의종대에 와서는 무신난을 겪었다. 13세기 무신정권기에는 만적의 난으로 대표되는 노비반란이 전국으로 퍼졌고, 노비반란을 진압하고 나서는 몽골의 침입을 받아 27년간 항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원의 부마국이 되어 70여년간 원의 간섭을 받았다. 14세기 중엽 공민왕 때에 원의 세력을 물리쳤으나 또다시 홍건적의 침입을 받았다. 왕조 말기에는 왜구가 창궐하였으며, 결국에 가서는 이성계의 군부세력과 사대부들이 결합하여 조선왕조를 세움으로써 고려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전란과 혼란 속에서 무슨 문화의 창달이 있었을까 싶다. 그러나 이는 500여년간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란이자 어느 시대 어느 왕조에서나 일어났던 사회적 갈등일 뿐이다. 오히려 동시대 중국의 전란은 더 심했다. 송나라는 금나라의 침공으로 남쪽으로 밀려난 뒤 남송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몽골에 망했고, 거란의 요, 여진의 금, 몽골의 원은 모두 100여년을 지속하다가 끝내 자기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비하면 고려는 수많은 전란에도 근 500년을 지속한 저력있고 건강한 나라였다.

고려왕조는 금속활자, 고려대장경, 고려청자, 금속공예, 고려불화 등의 뛰어난 문화를 생산했으며, 국제적인 교역을 지속한 역동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과 비교하여 男女平等의 사회상을 구현하고 있었다. 이병도 식의 서술이라면 이러한 문화의 생산과 500년간의 왕조의 지속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조선시대에는 무덤풍수가 유행하였다. 항상 중앙정치에서는 王陵 擇地와 관련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⁸⁸⁾ 民間에서는 무덤풍수가 극심하여 山訟이 유행하였다. 그러한 조선왕조도 500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과제

고려시대 풍수 및 도참사상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풍수와 도참을 구분할 자료가 현저하게 부족하며, 또한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도 너무나 지형이 변하였으며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답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풍수의 재해석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사상은 재해석을 통하여 발전하며 새롭게 재탄생하였다. 그러나 아직 풍수사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 점은 전근대시기 풍수사상이 활발히 유행하였던 韓中日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애당초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사상이었다면 모르겠으나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계 이병도 이후 역사가들에 의해 풍수지리설이 종합적으로 논의된 것은 필자가 아는 바로는 1994년에 『한국사시민강좌』 14집에 실린 특집 「한국의 풍수지리설」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6편의 글이 실려 있다.

86) 『고려시대의 연구』, 序에 대신하여.

87) 유홍준,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2』, 눌와, 2012, 217-218쪽.

88)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두규, 『조선 풍수학인의 생애와 논쟁』, 궁리, 2000

- 이기백 : 한국 풍수지리설의 기원
- 홍승기 : 고려초기 정치와 풍수지리
- 이태진 : 한양 천도와 풍수설의 패퇴
- 양보경 : 조선시대의 자연 인식 체제
- 최영준 : 풍수와 『택리지』
- 이기동 : 현대 한국사회와 풍수지리설

한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위의 글들은 기본적으로 풍수지리설의 현대적 재창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⁸⁹⁾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風水地理學이 아니라 風水地理說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핵심은 풍수지리설의 신비적 요소, 즉 吉凶의 요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기백은 풍수지리설에서 신비적 요소를 제거하면 그것은 풍수지리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⁹⁰⁾ 이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⁹¹⁾ 풍수의 재창조는 길흉적 요소까지도 포함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 점을 달성하면 현대 학문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재야 담론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풍수의 근거로 항상 옛 古典만이 인용되어야 한다면 풍수의 학문화는 해결될 수 없다. 현대적 古典이 출현되어야 한다. 최소한 그러한 새로운 시각이라도 출현되어야 한다.⁹²⁾ 그래야 풍수와 도참사상이 정치사와 밀접히 관련된 고려시대사의 이해를 올바르게 서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풍수사상은 原型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하므로 때로는 迷信으로 낙인 찍히고, 때로는 혹독하게 비판을 받아도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소 거칠고 立論에 불과한 것이지만, 量子力學의 논리로 얘기하면 무덤풍수에서 중시하는 뼈는 인간의 魄으로, 그것은 反物質에 해당한다. 반물질이 존재할 때까지 물질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죽어도, 시신의 뼈가 남아 있으면 그 인간은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풍수원리가 화려하게 조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바보는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병도의 풍수·도참 연구는 그 자체로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고려시대를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에게서 이병도 연구를 발판삼아 고려사 연구의 진정한 극복과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풍수·도참사상 주제에 대한 고려사 연구자들의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V. 맺음말

89) 이태진은 ‘과거 풍수지리설을 담당했던 서운관의 지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대부를 대표하는 재상들의 유학적 자연지리학적인 입론에 의해 조선천도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풍수설의 패퇴’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주장은 고려시대 풍수사상의 전개과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후 조선시대 풍수사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다. 필자는 이태진의 주장은 도읍의 타당성을 논하는 기준으로서 漕運과 道里의 차원을 지나치게 針小棒大한 견해이며, 당시의 흐름을 사대부의 건전성으로 美化한 견해라고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90) 이기백, 「한국 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사시민강좌』 14, 1994, 4쪽.

91) 최창조의 풍수논리는 길흉적 요소를 제거한 현대적 풍수논리의 재창조를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점에서 최창조의 시도는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즉 그것은 풍수의 재창조가 아니라 풍수의 부정인 것이다.

92) 필자도 풍수 관련 글을 통해 그러한 새로운 시각의 일단을 제시해 보기도 하였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본 글은 시간부족으로 문장의 서술이나 각주의 제시 등에 있어 아직 미완성의 글이다. 그러나 크게 보아 필자의 주장의 큰 흐름은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발표를 통하여 叱正을 받고 학회지 게재시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여 좀더 분명하고 친절한 서술 및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 것을 기약하며, 맺음말로서의 본 논지의 정리는 생략하고자 한다.

토론문 2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연구”에 대한 발표문을 읽고

박진훈(명지대 사학과)

김기덕 선생의 글은 우리나라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을 학문적, 실증적인 연구 대상으로서의 길을 연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연구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기덕 선생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답게 두계 이병도의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에 대한 방법론, 개념의 정립, 자료 해석의 문제, 답사를 통한 구체적인 풍수 설명, 각 왕대 시기별 고찰, 이병도의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병도의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의 전체적인 면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훌륭하게 분석한 글입니다. 반면 전 고려시대를 공부하고 있지만, 제 전공은 이 분야와 동떨어진 것으로서, 풍수지리에 관해서는 오다가다 주위들은 것밖에 없는 문외한입니다. 이런 제가 이 글의 약정토론을 맞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부담 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언뜻 생각이 드는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읽고 오해한 점이나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이병도의 연구는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의 미신적 측면을 부각시켰고,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즉 이병도가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유교를 비롯한 우리 전통학문의 영향인지, 아니면 실증적 학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일제의 식민사학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도에게 고려도참사상을 테마로 글을 쓰도록 권유한 이케우치(池内宏)와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이병도의 풍수지리 연구의 장점으로 대상지의 답사를 통한 구체적인 풍수 설명을 드셨습니다. 이러한 답사를 통한 풍수지리의 연구 과정 속에서 이병도는 풍수지리의 장점을 발견하고 풍수지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 시각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만약 그러한 노력이 나 시각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 한계성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고려 풍수 및 도참 사상이 민족지리학 혹은 특정 사상의 하나로 한국사상사에서 갖는 의미를 선생님께서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즉 한국사상사의 맥락에서 풍수도참이 갖는 역사적 의미, 고려라는 국가에서 풍수도참 사상이 갖는 시대적 특성이 무엇일까 라는 점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3

李丙燾 韓國古代史 研究의 ‘實證性’ 檢證

李道學 (한국전통문화대)

I. 머리말

II. 古朝鮮史 研究--衛滿의 族元 問題를 중심으로 한 檢證

III. 夫餘史와 東明에 대한 考證

IV. 三韓의 位置 比定 問題

V. 高句麗史의 歷史地理 比定 檢證

VI. 百濟史에 대한 考證

VII. 『三國志』 東夷傳 韓 條 및 新羅와 加羅史 考證

VIII. 맺음말

주제발표 3

李丙燾 韓國古代史 研究의 ‘實證性’ 檢證

李道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I. 머리말

斗溪 李丙燾(1896년~1989년)는 實證主義 史學者로 알려져 있다. 그 자신이 “독일의 랑케 같은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역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도 한 마디로 실증적 방법론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⁹³⁾거나 “저는 역사는 실증사적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다시 얘기하고 싶군요”⁹⁴⁾고 한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斗溪의 학문적 업적은 韓國古代史 體系의 再定立과 地理圖識思想을 통한 高麗史의 추적 朝鮮儒學史의 체계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계 이병도전집』에 대한 소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현대 한국사학의 개척자인 두계 이병도(1896~1989)의 학문적 업적이 사후 23년 만에 집대성됐다. 두계이병도전집 편집위원회(위원장 한영극)는 최근 본집 15책과 별집 1책 등 총 16책으로 기획된 ‘두계이병도전집(한국학술정보·사진)을 상재했다. ’지난 1999년 5월 타계 10주기를 맞아 한우근·이기백·전해종·고병익 등 지금은 대다수가 타계한 노령의 제자들을 비롯해 30여명의 문하생들이 모여 ‘두계전집’을 내기로 결정한 뒤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하지만 출판사가 수해를 입어 원고 일부가 유실되는 등 전집 출판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무엇보다 출판이 지연되면서 한영극 편집위원장이 지난 2월7일 별세했으며 당초 현직에 있었던 편집위원(민현주·이기동·이래진·최병현·김두진·정만조) 모두 지금은 퇴직교수 신세가 됐다.⁹⁵⁾

디지털시대인 21세기에도 "출판사가 수해를 입어 원고 일부가 유실되는 등 전집 출판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니 놀랄 뿐이다. 통상적으로 全集 刊行이라면 기준에 발표한 논고를 수습하여 편집하는 일인데, '水害' 云云 하는 것은 과거로의 回歸같아서 경이로운 느낌만 준다. 어쨌든 두계 사후 23년만이요, 출판 결정 13년만에 斗溪全集이 출간된 것이

93) 李丙燾, 「實證史學과 民族史觀--斗溪先生과 鄭弘俊氏와의 對談」 『學園』 1984; 『歷史家の 遺香』 일조각, 1991, 269~270쪽.

94) 李丙燾, 「實證史學과 民族史觀--斗溪先生과 鄭弘俊氏와의 對談」 『學園』 1984; 『歷史家の 遺香』 일조각, 1991, 271쪽.

95) 문화일보, 「한국사 태두의 '70년 업적' 집대성」, 2012. 4. 26.

다. 그런데 大型書店은 물론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손닿는 대학 도서관 등에서도 斗溪全集이 비치되지 않았다. 결국 읽어 볼 수 없었기에 기왕에 출간된 斗溪의 個別 冊子를 底本으로 하여 檢證했음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두계의 역사 연구 가운데 한국 고대사 연구와 역사지리 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두계는 이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계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日政時代의 이야기지만, 나의 새로운 問題의 提示와 새로운 學說이 연달아 발표되자, 某日本人學者는 나에게 '反逆兒'라는 우습의 말을 한 일도 있었다. 사실 나로서는 우리 古代史 中の 여러 重要한 문제에 한 革命을 일으켜 놓았다고 自負도 하고 있다. 물론 些少한 枝葉的인 문제에 있어서는 가끔 推理에 지나친 것도 있지만, 各論文의 대체적인 鄙說에 대해서 反對를 試圖하는 이도 있는 모양이나, 反對를 하기 위한 反對에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反論·反駁에는 그럴듯한 充分한 論據와 理論이 서야 한다. 더욱이 史學徒로서는 古典에 대한 深刻한 檢討와 冷嚴한 分析批判을 缺如하여서는 아니된다. 古典의 기록이라고 해서 徹頭徹尾 그대로 信從하려 하거나, 또는 主觀的으로, 자기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眞理를 研究하는 學徒의 態度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나의 見解와 解釋보다도 越等한 名論卓見이 나온다면, 거기에 追從할 雅量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러한 新說이 나오기를 期待하고 있다.…96)

학자로서 자부심이 가득한 두계의 회고인 것이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가 양성한 수많은 제자들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거나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계의 학풍을 계승한 어떤 연구자의 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선생의 三韓史 연구는 이미 半世紀 이상의 세월이 지난 오래 전의 것이지만, 아직도 生命力을 잃지 않고 後學들을 압도하고 있다. 역시 60여 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선생의 고대 歷史地理 연구도 현재 학계의 定說로 되어 있을 만큼 그 자체 堅固한 편이다.

나는 玄菟郡과 眞番郡의 현재 위치를 考究한 선생의 역사지리 논문을 읽을 때마다 선생의 학문적인 果斷性에 敬服하고 한다. 선생은 때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原典 자료의 誤謬를 주장하면서 論旨를 펴 나가셨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선생의 新創見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나는 原典 기록을 十分 존중하면서 선생의 說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없는 것인지 그 方案을 찾고 있는 중이다.97)

두계의 학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궁리하고 있는 후학의 면면이 느껴진다. 自說의 수립이나 創說 보다는 두계 학설을 발전시킬 方案만 모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斗溪의 학풍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학은 “역사연구에 객관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冷嚴함을 강조한 斗溪선생님은 實證的인 방법으로 한국측 문헌을 비판하여, 그것의 潤色되어진 부분을 바르게 復元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98)라고 평가하였다.

96) 李丙燾, 「自序」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10~11쪽.

97) 李基東, 「斗溪史學의 一面」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152쪽.

98) 金杜珍, 「歷史學은 冷嚴·正確·科學的 이어야 한다」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155쪽.

그러면 본고에서는 이들의 평가처럼 韓國 史學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斗溪 李丙燾의 연구성과 가운데 한국 고대사 및 歷史地理 研究가 과연 본인 말마따나 '實證的'이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斗溪의 연구 성과가 계승되고 있는 지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II. 古朝鮮史 研究--衛滿의 族元 問題를 중심으로 한 檢證

우리 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가 古朝鮮이다. 고조선은 3개의 조선을 가리키는 일종의 合稱인데, 檀君朝鮮과 箕子朝鮮 그리고 衛滿朝鮮을 그렇게 일컫는다. 『제왕운기』와 『고려사』 및 『용비어천가』에서는 단군조선을 前朝鮮이라고 하였고, 기자조선을 後朝鮮이라고 한 반면, 篡奪로 시작된 위만조선은 배제시켰다.⁹⁹⁾ 이는 이들 책이 쓰여지던 무렵에 정통론이 제기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3개의 조선 가운데 단군조선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조선은 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대상이다. 기자조선의 존재 여부는 물론이고, 그 위치 등 견해가 모아지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위만조선은 앞의 2개의 조선과는 달리 興亡史가 가장 확실하다. 『사기』 조선전이 위만조선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데, 3대에 걸쳐 70~80년간 존속했던 왕조라고 하겠다.

두계는 단군조선의 건국지인 阿斯達의 위치에 대해 舊都(平壤)와 新都(九月山)로 구분하여 이해했다.¹⁰⁰⁾ 단군조선의 대동강유역 소재설이 된다. 현재 한국 학계의 통설은 단군조선=遼東 所在說이다.¹⁰¹⁾ 두계는 箕子朝鮮의 속성을 韓氏朝鮮으로 밝혔다.¹⁰²⁾ 그런데 두계 이전에 李圭景(1788~?)에 의해서 기자조선은 기실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韓氏朝鮮으로 간파되었다.¹⁰³⁾ 두계가 이규경의 한씨조선설을 소개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계는 箕子の 東來는 물론이고 箕子朝鮮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기자조선 부정론은 그 소재지를 시종 대동강유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였다. 그러나 두계 자신이 설정했던대로 "西北으로 遼河를 境界로 하여 東胡와 燕에 近接하고, 西로 바다를 隔하여 山東半島와 齊와 이웃하고"¹⁰⁴⁾라는 고조선 영역에서 생각해 보자.

조선의 왕도를 의미하는 '險瀆'이라는 곳이 요서·요동에 있었다. 『사기』 索隱에는 後漢 應劭의 註를 거론하며 "遼東에 險瀆縣(리지린은 '터'로 해석하였는데, '王儉城터'라는 의미라고 한다)이 있으니 朝鮮王之 舊都이다(應劭曰 地里志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也)"라고 하였다.

99)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 부 조에 따르면 "본래 三朝鮮의 舊都이다. 唐堯 무진년에 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이름을 檀君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前朝鮮이요, 周나라 武王이 商나라를 이기고 箕子를 이 땅에 봉하였으니, 이것이 後朝鮮이며, 그의 41대 孫 準 때에 이르러, 燕人 滿이 亡命하여 무리 천여 명을 모아 가지고 와서 準의 땅을 빼앗아 王儉城[곧 平壤府이다]에 도읍하니, 이것이 滿朝鮮이었다"고 했다.

100) 李丙燾, 「檀君朝鮮의 解釋과 阿斯達 問題」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8~39쪽.

101)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96쪽.

102) 李丙燾, 「箕子朝鮮의 正體와 所謂 箕子八條敎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47~56쪽.

103) 『五洲衍文長箋叢藁』 권 7, 箕子事實墳墓辨證說. 권 34, 檀箕爲國號辨證說. 권 35, 三韓始末辨證說.

104) 李丙燾, 「箕子朝鮮의 正體와 所謂 箕子八條敎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6쪽.

여기서 險瀆縣의 ‘險’은 『사기』 朝鮮傳에 “衛滿이 王險에 都邑하였다”의 ‘王險’ 즉 ‘王儉’과 연결 짓고 있다. 그런데 ‘險瀆’은 대릉하 중류에 소재한 昌黎를 비롯하여 廣寧과 集州 그리고 樂浪 등 모두 4곳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고조선의 위치는 난하·대릉하유역과 요서~대동강유역으로 이동설이 제기되었다. 두계가 이 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없었던 게 아쉽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조선이 위만조선이다. 위만 정권의 성격은 『사기』에서 위만의 國籍을 ‘燕人’으로 못박는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 이주자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권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두계는 위만의 국적을 고조선인으로 간주하였다(『衛氏朝鮮興亡考』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3, 1956). 그러한 두계의 논거는 다음과 같은 『史記』 조선전과 『三國志』 동이전 韓條에 근거한 것이다.

- a. 朝鮮王 滿은 본래 燕人이다. …燕王 盧縮이 [漢을] 배반하고 匈奴로 들어가자 滿도 亡命했다. 무리 천여 명을 모아 魍結에 蠻夷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遼東의] 요새를 나와 溟水를 건너 秦의 옛 空地인 上下鄣에 살았다. 점차 眞番과 朝鮮의 蠻夷 및 옛 燕·齊의 亡命者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王이 되었으며 王險에 도움을 정했다.¹⁰⁵⁾
- b. 漢나라 때 盧縮이 燕王이 되었다. 조선은 燕과 더불어 溟水를 경계로 하였다. 盧縮이 배반하고 匈奴로 들어가자 燕人 衛滿도 망명했다. 胡服을 입고 동쪽으로 溟水를 건너 準에게 가서 항복하였다. 西界에 거주하도록 해 주면 과거의 중국 망명자들을 거두어 조선의 藩屏이 되겠다고 準을 달래었다. 準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博士에 임명하고 圭를 하사하며 百里의 땅을 봉하여 西邊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이 망명한 무리들을 유인하여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곧 사람을 準에게 보내 속여서 이르기를 “漢兵이 十道로 이르고 하니 들어가 宿衛하기를 청합니다”고 했다. 드디어 돌아가서 準을 공격하였다. 準과 더불어 싸웠으나 敵手가 되지 못하였다.¹⁰⁶⁾

위의 2 종류 사료를 토대로 두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을 추출한 다음 위만이 조선인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燕이라는 땅은 漢族 이외에도 濊貊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던 곳이다. ② 위만이 조선에 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옷을 입었다(魍結蠻夷服). ③ 준왕이 처음부터 국경 수비대의 중책을 위만에게 맡길 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④ 국호를 여전히 조선으로 하였고, 토착인 출신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자가 많았다. 예를 들면 ‘尼谿(토착 세력의 지명, 濊의 半切로 간주하기도 함)相 參’과 朝鮮相 路人의 경우가 대표적이다.¹⁰⁷⁾

그러나 위의 견해는 반론이 제기된다. ①은 위만의 국적을 燕人임을 반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②의 경우는 歸巢本能이기 보다는 일종의 고조선의 질서 체계에 잘 순응하겠다는 복속의례에 불과하다. 의복이 주는 정치적 상징성은 적지 않게 확인된다. 가령 「충주고구려비」에서도 고구려왕은 신라 매금과 신료들에게 의복을 하사한 바 있다.¹⁰⁸⁾ 北魏에서 고구려 안원왕을 책봉하면서 衣冠을 하사하였다.¹⁰⁹⁾ 그 밖에 신라 진덕여

105) 『史記』 권 115, 朝鮮傳.

106) 『三國志』 권 30, 東夷傳 韓條.

107) 李丙燾,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79~82쪽.

108) 李基白,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史學志』 13, 1979, 38쪽.

109) 『三國史記』 권 19, 안원왕 2년 조.

왕이 복속 의례로서 독자 연호를 폐기하고 唐의 연호와 官服을 수용했다.¹¹⁰⁾ 이렇듯 의복 자체의 성격은 그 국가와 종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仁祖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할 때도 淸國 복장인 貂裘를 착용하였다.¹¹¹⁾ 이렇듯 의복 하사를 비롯한 정치적 행위에 보이는 의복은 자고로 복속 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③은 신임의 발로라기 보다는 逆以夷制夷策인 것이다. ④는 위만은 취약한 유이민 집단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토착세력과 연합정권을 구성한 증좌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는 두계의 견해에 대해 “李丙燾가 제기한 위만=朝鮮人說의 다섯 가지 근거는 하나같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섯 가지 근거로써 반박하였다. 이 중 두 가지는 앞서 제기한 ①과 ③의 견해와 대동소이하다. 셋째와 넷째는 위만이 ‘魃結蠻夷服’하고 ‘朝鮮’이라는 국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동일한 시기 南越에서 중국 趙人 趙佗(他)의 경우와 유사하다. 趙佗는 정권 탈취 후 越이라는 원래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漢의 사신 陸生이 조타에게 “足下는 중국인이고 친척과 형제의 분묘가 (중국의) 眞定 지방에 있는데도, 지금 죽하는 천성에 反하여 冠帶를 버리고 魃結하고 있다...”고 했다”¹¹²⁾는 것이다. 다섯째 위만조선의 相이라는 관직은 위만조선 당시의 중국 漢과 南越·匈奴 등 이웃 국가들에 모두 존재한 관직이었다. 두계는 비교사적 관점에서 사료를 살피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막연한 추측으로 위만이 조선인이었다고 고집하는 것은 협소한 民族主義的 情緒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¹¹³⁾고 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 『三國志』 동이전 韓條 기사에 보면 衛滿이 고조선으로 망명할 때 “魃結蠻夷服”라고 한 사실을 음미해 본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斗溪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위만 등 燕의 망명 집단이 고국에 들어올 때에 본연의 자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와 같은 복식을 하고 왔다고 하겠습니까”¹¹⁴⁾고 했다. 그는 衛滿이 중국인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차원에서 “魃結蠻夷服”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과 같은 두계의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았다.

c. 그런데 여기서 또 注意할 事項이 있다. 滿이 朝鮮에 入國할 때에 ‘魃結蠻夷服’하고 왔다는 史記의 記事가 그것이다. 漢書 朝鮮傳에는 魃結을 椎結로 書하였으나, 실상은 마찬가지로, 古代朝鮮人の 男子結髮인 ‘상투’를 말한 것이니, ‘상투’의 樣式이 中國과 倭의 그것과는 달라, 특히 방망이(椎)와 같이 倣하다 하여, 魃結 혹은 椎結이라 한 것이다. 時代는 뒤떨어지지만, 魏志 東夷傳 韓條에 馬韓人の 男子結髮을 評하여 ‘魃頭露紒’(冠帽를 쓰지 아니한 ‘날상투’를 말한 것)라 한 것을 보면, 우리 古代社會의 南北의 結髮이 대개 같았음을 알 수 있다. 東亞에 있어서의 椎結民族은 古來로 우리 나라와 苗族(南越)뿐이었으니, 위의 ‘魃結蠻夷服’은 確實히 朝鮮式의 結髮(상투)과 衣服을 指稱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魏略의 胡服云도 이를 簡單히 表現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衛滿一黨이 그러한 結髮과 服飾을 하고 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기서 나는 그가 純粹한 漢人系統의 燕人이 아님을 주장하고 싶다. 혹은 그가 純粹한 漢人으로서 朝鮮人の 歡迎을 받기 위하여 朝鮮의 習俗(服飾)을 假裝하고 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110) 『三國史記』 권 5, 진덕왕 3년 조.

111) 『仁祖實錄』 15년 1월 庚午 條.

112) 『史記』 권 97, 陸賈傳.

113) 김한규, 『遼東史』 문학과지성사, 2004, 註 52, 132~133쪽.

114) 李丙燾, 「韓國 古代史研究의 方法--斗溪先生과 朴成壽 교수와의 對談」 『廣場』, 1984. 4.;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257쪽.

疑心도 나지만, 그보다도 나는 그가 본시 朝鮮人系統의 子孫으로서 燕王의 亡命과 漢(官)軍의 征討로 인한 燕領內의 動搖를 契機로 하여 즉 그 틈을 타서, 本然의 姿態로 장식하고 集團的으로 무리를 이끌고 母國에 들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自然스럽고 合理的인 解釋일 것이다.¹¹⁵⁾

두계는 망명할 때 위만의 두발을 방망이처럼 생긴 상투를 튼 것으로 이해하였다.¹¹⁶⁾ 그는 고조선인의 상투와 중국인의 상투를 구분하면서 “중국 남자의 상투는 납작하고, 흉노(몽고)나 숙신(만주)족은 변발이었습니다”¹¹⁷⁾고 했다. 그런데 秦始皇陵의 兵馬俑을 보면 軍人俑들은 죄다 방망이처럼 불뚝 솟은 상투를 틀었다. 이들의 상투는 두계가 말하였듯이 ‘납작’하지도 않았다.¹¹⁸⁾ 따라서 이 문제는 새로운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발과 복장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살펴본 후에 위만의 ‘魑結(椎結)’의 정확한 형상을 추출해야 할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衣服 하사를 비롯한 정치적 행위에 보이는 의복은 자고로 복속 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선 仁祖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할 때 淸國 복장을 하였다. 그러므로 위만이 망명할 때의 “魑結蠻夷服”은 歸巢本能이 아니라 고조선에 복속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계는 망명시 衛滿의 頭髮을 가리켜 “방망이(椎)와 같이 빠죽하다 하여, 魑結 혹은 椎結이라 한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魑結’을 『漢書』 朝鮮傳에서는 ‘椎結’로 적었다. 그리고 ‘魑結’은 동일한 『史記』에서 남월왕 趙佗를 비롯하여 西南夷傳(권 116)과 貨殖傳(권 129)에서도 보인다. 흉노에 항복한 李陵의 경우도 ‘胡服椎結’이었다.¹¹⁹⁾ ‘椎結’은 “송곳처럼 머리를 땡아올린 모습으로 흉노족의 머리형이다”¹²⁰⁾고 해석된다. 漢나라 사신이 흉노에 살고 있는 李陵을 찾아와 은밀히 歸還을 권유했다. 그러자 李陵은 “손으로 머리를 매 만지고 ‘나는 胡服을 입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李陵은 匈奴 頭髮과 匈奴 옷을 입고 있듯이 이미 흉노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漢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표시였다. 이로써도 ‘椎結’이 흉노의 辮髮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蒙古와 滿洲에서는 정수리에만 손바닥만큼 머리를 남겨 뒤로 땡아 드리웠다. 이것을 뒤에서 보면 마치 올챙이 같은데, 올챙이 모양이 방망이[椎]와 비슷하였기에 ‘椎髻’이라고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²¹⁾ 어쨌거나 위만의 ‘魑結’은 漢族과 구분되는 고조선인들의 두발 풍모였음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랬기에 ‘蠻夷服’과 併記되었다고 하겠다.

망명할 때 위만의 두발을 가리키는 ‘魑結’의 ‘魑’는 ‘몽치머리(추)’이다. ‘魑結’의 意味는 “머리를 뒤로 늘어 땡은 몽치 모양의 머리”¹²²⁾라고 한다. 몽치는 ‘단단하고 짧막한 몽둥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魑’에는 ‘복상투’의 뜻이 있다. 복상투는 “아무렇게나 튼 상투/ 함부로

115) 李丙燾,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80쪽.

116) 李丙燾, 『研究生活의 회고(2)--斗溪先生 九旬紀念 座談會』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304쪽.

117) 李丙燾, 『韓國 古代史研究의 方法--斗溪先生과 朴成壽 교수와의 對談』 『廣場』 1982. 4.;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257쪽.

118) 필자가 대학 재학 때인 1978년 경쯤에 진시황릉 발굴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週刊 『Time』誌를 입수해서 읽은 적이 있다. 이때 사진이 여러 장 게재되어 있었는데, 軍人俑의 경우 한결같이 상투가 불뚝 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두계의 논문을 읽었던 필자로서는 위만의 ‘魑結’과 관련해 그 論旨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줄곧 지울 수 없었다.

119) 『漢書』 권 54, 李廣蘇建傳.

120) 安大會 譯, 『선집 한서열전』 까치, 1997, 18쪽.

121) 『靑莊館全書』 권 59, 菴葉記 6.

122) 民衆書林編輯局, 『全面改訂增補版 漢韓大字典』 2007, 2323쪽.

몽처 튼 여자 머리”¹²³⁾를 가리킨다. 여기서 위만의 두발인 ‘魑’는 복상투가 아니라 머리를 뒤로 늘어 땅은 辮髮임을 알 수 있다. 흔히 조선시대인들이 檀君이나 箕子의 教化와 관련해 운위하는 ‘編髮’이야 말로 변발을 가리킨다. 가령 “이때 단군이 백성들에게 編髮 盖首를 가르쳤다”¹²⁴⁾고 했다. 혹은 “...斷髮에 대한 논의는 더구나 당치 않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는 檀君·箕子 이래로 編髮의 풍속이 高髻의 풍속으로 변하였으며 머리칼을 아끼는 것을 큰 일처럼 여겼습니다”¹²⁵⁾는 기사도 있다. 그러한 編髮이 辮髮임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즉 “신하들에게 모두 元의 冠服을 착용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城中에 編髮을 하고 胡服을 입은 자가 이미 많았다”¹²⁶⁾고 하였기 때문이다.

위만이 틀었던 ‘魑’는 고조선의 두발 형태로서 여진의 두발과 부합한다. 여진의 조상이 고조선 시기의 肅慎이다. 종족의 정체성을 반영해 주는 게 頭髮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조선은 숙신과의 연관성이 엿보인다. 남창 손진태가 제기하였듯이 女眞史를 한국사에 편제시켜야 하는 근원적인 요인이기도 하다.¹²⁷⁾ 아울러 고조선의 종족적 계통은 물론이고 문화적 기반 역시 漢族과는 판이하게 구분됨을 가리킨다. 이 점에 있어서 衛滿의 “魑結蠻夷服” 기사가 응축한 정보는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두계는 위만에서 쫓겨난 준왕의 南來地로 종래의 益山說과는 달리 廣州 京安說을 제기하였다.¹²⁸⁾ 이 說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추종은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廣州 京安說을 검토하는 자체가 徒勞로 판단되었다.

Ⅲ. 夫餘史와 ‘東明’에 대한 考證

한국사에서 부여가 지닌 역사적 위상은 높다.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여의 ‘別種’으로 불려졌다. 고구려를 건국한 세력은 부여로부터의 유이민이었다. 백제 건국세력도 부여로부터의 유이민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472년에 개로왕이 북위에 올린 상표문에 나타나고 있다 (臣與高句麗 源出夫餘). 백제 왕실의 氏인 扶餘氏가 370년경 부여 王室의 氏로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백제의 한 때 국호가 (南)扶餘였으며,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은 오늘날 扶餘로 불려지고 있다. 그 밖에 고구려와 백제 모두 부여의 건국 시조를 제사지내는 東明廟라는 사당을 설치하였다. 8세기말에 편찬된 『續日本紀』에 따르면 “즉, 대저 백제 太祖 都慕大王은 日神이 降靈하여 부여 땅을 차지하고 開國했는데 天帝의 秘記를 받아 여러 韓을 거느리고 王을 칭하였다”라는 백제 시조관에 보이는 都慕大王은 東明王이었다.

韓國古代史上 부여를 정점으로 하는 종족 구성을 찾는다면 부여·고구려·백제(지배층)·신라의 東海岸 住民·東濊·沃沮가 濊族이 된다. 이렇듯 부여를 軸으로 하여 동일한 풍속을 가진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주지하듯이 兄死娶嫂制라는 婚俗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예족은 삼한의 주민으로 간주하는 韓族과는 구분되는 그러니까 한국고대사상의 주민 구성의 兩大 軸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로는 조선왕조가 된다. 반면 부여와

123) 동아출판사, 『동아 새국어사전』 1995, 940쪽.

124) 『東史』 檀君本紀.

125) 『高宗實錄』 32년 11월 壬子 條.

126) 『東史綱目』 第 16下, 戊辰年 前廢王 禹 14년 조.

127) 李道學, 「韓國史의 擴大過程과 女眞史의 歸屬 問題」 『한민족연구』 13, 2012, 179~200쪽.

128) 李丙燾, 「韓'名稱의 起源과 辰韓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51쪽.

의 연관성을 짓는 국가로는 고구려와 백제 나아가 발해를 꼽을 수 있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도 同源 간의 주도권 쟁탈이라는 문제를 깔고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부여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d. 옛날 북방에 橐離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여종이 임신하자 왕이 여종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여종이 “계란 만한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더니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 후 여종은 아이를 낳았다. 왕이 여종의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렸지만 돼지들이 아이에게 입김을 불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아이를 마굿간에 옮겨 두었는데 말들 또한 그 아이에게 입김을 불어 주었으므로 여종이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왕은 이상히 여겨 天帝의 아들로 생각하였다. 이에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어 아이를 거두어 기르게 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東明인데 항상 말을 치도록 명령받았다. 동명은 활을 잘 쏘았다. 왕은 동명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까 두려워 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 럽에 따라 동명은 남쪽으로 달아나 施掩水에 이르러 활로 水面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동명이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곧 풀어 흩어져 추격하는 병사들이 건너지 못하였다. 동명이 이로부터 부여 땅에 도음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삼국지』 권 30, 동이전 부여 조).

위와 같은 부여 건국설화는 後漢 때의 학자인 王充이 지은 『論衡』 吉驗篇에서 처음 보인다. 그 뒤 『삼국지』 동이전 부여 조에 인용된 「魏略」에도 보이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계는 東明은 부여 시조가 아니라 고구려 시조로만 간주하였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보았기에 橐離에서 부여로 와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했다. 橐離國은 橐離國으로도 표기되고 있는데, 橐離國은 高麗 즉 高句麗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계는 기록과는 정반대로 동명이 부여에서 도망하여 橐離國(橐離國)에서 왕이 된 것으로 재해석하였다.¹²⁹⁾

그러나 두계가 바꾼대로 동명이 고구려 시조 주몽을 가리키지만은 않는다. 이는 “옛날에 東明이 氣를 느끼고 滌川을 넘어 開國하였고, 朱蒙은 日을 품고 溟水에 임해 開都하였다(昔者東明感氣 踰滌川而開國 朱蒙孕日 臨溟水而開都)”라는 「천남산묘지명」을 통해 東明≠朱蒙은 서로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생 묘지에 보이는 동명과 주몽 인식은 고구려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백제 시조 동명'은 백제 왕실이 부여에서 나왔기에 부여로 氏를 삼았다는 인식, 개로왕의 국서, 비류왕 시조 전승, 남부여로의 改號 사실과 부합된다. 백제 건국세력은 일관되게 자신의 출원지를 부여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러한 부여의 시조가 東明인 것은 1세기경에 편찬된 『論衡』에서도 확인된다.

두계 논점의 핵심은 『삼국지』에서 '橐離國'으로 표기한 데 근거하였다.¹³⁰⁾ 그러나 『後漢書』 부여 조에서는 索離國으로, 『論衡』에서는 橐離國으로 적혀 있다. 여기서 刊誤의 경우는 복잡한 글자에서 단순한 字形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다고 할 때 '橐離國'보다는 橐離國이 原形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동명 설화가 최초로 수록된 『論衡』에서도 '橐離國'으로 적혀 있다. 그 밖에 3세기대 이전의 기록에서 고구려를 이견 없을 정도로 명백

129) 李丙燾, 「夫餘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17쪽.

130) 두계의 논지를 계승한 논리로서는 "橐離는 『魏略』에는 高(橐)離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의 高夷, 후대의 高句麗의 異寫임이 분명하여 '高離'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송호정, 「부여」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54쪽)"라고 하여 보인다. 그런데 고구려=高夷說에 따른다면 고구려의 부여 기원설은 부정된다(耿鐵華 著·朴倉培 譯,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上』 고구려연구재단, 2004, 68쪽).

히 '高麗'로 기록한 사례가 있던가? 게다가 東明이 고구려 시조라면 「광개토왕릉비문」이나 「모두루묘지」에서도 '鄒牟'가 아니라 '東明'으로 표기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두계가 제기한 東明이 고구려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밖에 두계는 동예를 동부여로 비정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동예의 중심지를 함경남도 安邊이나 文川 方面까지 끌어올렸지만 무리한 해석이었다. 두계는 「광개토왕릉비문」 동부여 정벌 기사에서 동부여 首長號에 보이는 味仇婁를 “魏志의 買溝婁, 즉 지금의 咸南 文川 및 高城에 당한다”¹³¹⁾고 했다. 그런데 味仇婁로 비정한 文川과 高城은 함경남도와 강원도로서 兩 地域은 무려 105km나 서로 떨어져 있다. 붙어 있어야 할 1개의 행정 구역치고는 두 지역은 너무나 멀리 있지 않은가? 게다가 文川은 두계 스스로 낙랑군 屬縣인 邪頭昧縣의 소재지로 비정한 곳이다.¹³²⁾ 그런데 味仇婁와 邪頭昧는 지명상 서로 연관이 없다. 文川에 대한 두계의 이 같은 前後 비정은 명백히 相衝하고 있다.

동부여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두만강 유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고, 그밖에 함경남도-강원도 북부 일대를 지목하거나...그러나 원산만 부근의 東海岸說은 고구려가 일찍이 정복해 버린 곳이기에 타당성이 없고”¹³³⁾라는 판정을 받았다. 앞에서 두계의 역사지리 연구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이는 동부여의 위치에 대해서도 두계설에 左袒하지 않았다.¹³⁴⁾ 실제 고구려는 “4년 가을 7월에 東沃沮를 정벌하여 土地를 취하여 城邑을 삼았다. 拓境하여 東으로는 滄海에 이르고 南으로는 薩水에 이르렀다”¹³⁵⁾고 했을 정도로 1세기경에 이미 동해안에 진출해 있었다. 더구나 종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祭儀와 관련해 동예에서는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라고 하였다. 이는 부여의 殷正月에 치러지는 迎鼓와는 相異한 것이다. 동예의 속성이 '부여'였다면 祭儀 名은 그렇더라도 그 時點까지 달라질 수는 없을 게 아닌가? 물론 두계는 동부여의 성립 시점을 285년 이후로 설정한 池內宏說을 계승하여 이러한 難點에서 비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약이 중첩되는 것 같다.

IV. 三韓의 位置 比定 問題

두계가 득의에 차서 언급한 創說 가운데 하나가 삼한 문제에 관한 논고이다. 두계의 야심적인 논고는 「三韓 問題의 新考察」(1~7) 『震檀學報』 1~7, 1934~1937에 발표되었다. ‘삼한 문제’의 핵심은 삼한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했다는 것이다. 한영우 말마따나 두계의 삼한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조선 후기 이래의 통설을 뒤집은 파격적인 해석이었다.¹³⁶⁾

두계는 『삼국사기』 온조왕 13년 조의 “북은 패하(예성강)에 이르고, 남은 熊川(안성천)에 限하고 서로는 大海에 막혀 있고, 동으로는 走壤(춘천)에 이른다”라는 영역 기사를 진한의 영역으로 상정했다. 그는 熊川을 안성천으로 새롭게 비정한 것이다. 나아가 백제는 처음 진한의 一部落(위례)에서 성장하여 진한을 통일하고 나아가 마한을 蠶食統一하였다고 했다.¹³⁷⁾ 이러한 전제에서 두계는 삼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131) 李丙燾, 『廣開土王之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86쪽.

132)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162쪽.

133) 송기호, 「5세기 후반 高句麗의 북방 경계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234쪽.

134) 이기동, 『韓國史講座』 古代篇, 일조각, 1982, 169쪽.

135) 『三國史記』 권 15, 태조왕 4년 조.

136) 韓永愚,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1994, 263쪽.

- e. 삼한 중 진한은 지금의 경기도와 춘천 부근에까지 이르렀고 마한은 충청도와 전라도 전체를 포함하고, 변한은 경상도 전체에 뻗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라는 변한의 일소국인 斯盧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新·舊唐書』新羅傳에도 신라는 변한의 일종이라고 하였습니다.¹³⁸⁾

그런데 이와는 달리 현행 통설은 마한은 경기·충청·전라 지방, 진한은 낙동강 동쪽 경상도 지방, 변한은 낙동강 서남쪽 경상도 지방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두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대담 기사에서 잘 비치고 있다.

- f. 정홍준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국사학계에 길을 내디딘지 50년이 넘으셨는데 해방 후의 우리 역사학계의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고 비판할 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병도 : 뭐 내가 주체넘게 나설 일은 아닙니다. 내 제자인 李基白, 韓祐勣, 金哲竣 등이 잘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 나름의 입장에서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내 학설을 좇기도하고 안 좇기도 하는데 내 개인 생각에서는 내 학설을 안 좇는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연구가 심각하게 깊이 파고들면 결국 내 소리인데 인습에 말려 在來說을 따라가는 데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한 문제인데 내가 다 밝혀 놓았는데 굳이 재래설을 들먹인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¹³⁹⁾

위의 대담을 통해 두계는 자신의 제자들조차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삼한의 위치에 대한 自說을 따르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다. 두계의 제자인 李基白의 力著 『韓國史新論 新修版』에서는 삼한의 위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g. 3한의 위치에 대하여는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데, 종래 마한은 경기·충청·전라도 지방, 진한은 경상도의 낙동강 동쪽, 변한은 경상도의 낙동강 서쪽으로 생각되어 왔었다. 그러나 진한을 한강 유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⁴⁰⁾

위의 서술을 통해 볼 때 李基白은 두계의 견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랬기에 “진국의 위치나 삼한의 위치에 대한 비정은 많은 의문점을 지니고 있어서 학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¹⁴¹⁾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어떤 논자도 “마한은 경기·충청·전라 지방, 진한은 낙동강 동쪽 경상도 지방, 변한은 낙동강 서남쪽 경상도 지방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듯하지만,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예성강 이남의 경기 일원과 춘천 서쪽의 강원 일부를 진한, 안성천 이남의 충청·전라 지방을 마한, 영남 지방을 변한으로 보는 설도 있다”¹⁴²⁾

137) 李丙燾, 「韓'名稱의 擴大와 三韓의 區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58쪽.

138) 李丙燾, 「韓國 古代史研究의 方法--斗溪先生과 朴成壽 교수와의 對談」 『廣場』 1982. 4.;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262쪽.

139) 李丙燾, 「實證史學과 民族史觀--斗溪先生과 鄭弘俊氏와의 對談」 『學園』 1984;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271쪽.

140) 李基白, 『韓國史新論 新修版』, 일조각, 1990, 48쪽.

141) 韓永愚,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1994, 263쪽.

라고 하였다. 즉 그 자신도 두계설보다는 삼한의 위치에 대한 통설을 支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그가 돌연히 “선생의 三韓史 연구는 이미 半世紀 이상의 세월이 지난 오래 전의 것이지만, 아직도 生命力을 잃지 않고 後學들을 압도하고 있다”¹⁴³⁾고 주장했다. 자신도 支持하지 않던 두계설을 “生命力을 잃지 않고 後學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무리 追慕 글이라 해도 말잔치가 事實까지 糊塗한 관계로 씁쓸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두계가 『삼국지』동이전 韓條에서 인용한 「魏略」의 ‘辰韓 右渠帥’ 廉斯鑷의 지배 지역을 충청남도 牙山으로 비정한 사실을 살펴 본다. 두계는 廉斯鑷의 ‘鑷’을 ‘치’로 발음하였다. 그러면서 ‘廉斯’는 邑名, ‘鑷’는 臣智의 智와 같이 職業者(長·帥)의 뜻이므로, 廉斯鑷은 廉斯邑長의 의미로 간주했다.¹⁴⁴⁾ 그러나 廉斯鑷의 職業者는 右渠帥가 아닌가?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염사치 廉斯鑷’ 항목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염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당진군 해미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를 낙동강하류 가야 지방일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¹⁴⁵⁾고 했다. ‘염사치’ 항목의 참고문헌 論考로는 丁仲煥과 李丙燾 것만 수록하였다. 이기동은 염사의 위치에 대해 두계설을 통설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계는 “다음 廉斯는 지금의 어디인가. 筆者는 舊稿에서 이를 舊海美縣(今 瑞山郡)의 ‘廉率’部曲에 比定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다는 目支國에서 좀 가까운 지금의 牙山에 比定하고 싶다”¹⁴⁶⁾고 했다. 廉斯의 위치에 대해 두계는 1976년에 간행한 책자에서 海美에서 牙山으로 견해를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이기동은 두계의 舊說을 소개한 것이다. 더구나 관련 항목 참고문헌에 분명히 두계의 『韓國古代史研究』(1976)가 인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동이 두계의 ‘舊說’을 인용한 것은 자못 의아하다.

문제는 廉斯鑷의 ‘鑷’은 音이 ‘치’가 아니라 ‘착’이다.¹⁴⁷⁾ ‘염사치’가 아니라 ‘염사착’이 맞다. 두계의 恣意的인 音價를 後學이 盲從했음을 뜻한다. 더욱이 두계는 염사착의 소속인 ‘辰韓 右渠帥’를 ‘馬韓 右渠帥’로 고쳤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설정한 辰韓의 南界인 안성천 남쪽에 자신이 廉斯로 비정한 牙山이 소재했기 때문이다. 두계는 ‘辰韓 右渠帥’가 自說과 배치되므로 ‘馬韓 右渠帥’로 해석하였다. 이 역시 恣意的이라는 인상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V. 高句麗史의 歷史地理 比定 檢證

1. 平壤 ‘東黃城’에 대한 檢證

두계는 고구려 국호를 필두로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논문 등 여러 편의 고구려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중 역사지리 비정과 관련하여 동천왕대의 평양성 천도와 연계된 고국원왕대의 移居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관련 사료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142) 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 일조각, 1982, 92쪽.

143) 李基東, 「斗溪史學의 一面」 『歷史家의 遺香』 일조각, 1991, 152쪽.

144) 李丙燾, 「目支國의 位置와 그 地理」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45쪽.

145) 李基東, 「염사치 廉斯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46쪽.

146) 李丙燾, 「目支國의 位置와 그 地理」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45쪽.

14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14, 2008, 486쪽.

h. 東川王：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 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

i. 故國原王：十三年 春二月…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두계는 동천왕대의 '平壤城'과 고국원왕대의 '平壤東黃城'을 동일한 곳으로 간주하였다. 本黃城의 대칭으로 '東黃城'의 존재를 상정했다. '東黃城'의 소재지로서 평안북도 강계를 지목하였다.¹⁴⁸⁾ 이 점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인용한 고국원왕 13년의 移居 기사를 보면 '平壤'과 '西京'이 대응하고, '東黃城'과 '東木覓山'이 대응하고 있다. 즉 "평양 동쪽의 황성은 지금 서경 동쪽 목덕산 중에 있다"는 것이다. '東黃城'이라는 城名은 존재하지 않는 게 밝혀진다. 이는 『삼국사기』 안장왕 11년 조의 "春三月 王畋於黃城之東"라는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두계가 '黃城'의 존재를 失檢한 것이다. 두계의 분명한 실수라고 하겠다. 문제는 지금도 '東黃城'을 云謂하는 후학들의 盲從이라고 하겠다.

2. 광개토왕대의 남방 境界 문제

두계는 광개토왕대의 영토 확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광개토왕대에 개척한 南界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커 보인다.

남으론 예성강 유역에 이르고, 서으론 요하, 북으론 송화강, 동으론 일본해에 極하였으니 고구려의 세력이 이 때 이만큼 강대하였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¹⁴⁹⁾

위에 보이는 두계의 서술처럼 광개토왕대에 고구려가 진출한 지역은 四方에 미쳤다. 이 중 南界는 예성강유역에 묶여 있다. 고구려의 四方 경영 가운데 남방 진출만 가장 부진한 것으로 인식한 때문이다. 『삼국사기』 온조왕 13년 조에 적혀 있듯이 백제의 기본 영역으로 인식된 北界가 溟河 곧 예성강이었다. 두계의 인식대로라면 고구려는 정복군주인 광개토왕대에도 남방 경영은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과연 그러하였을까? 일단 『삼국사기』 진사왕 8년 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j. 가을 7월에 고구려왕 談德이 군대 4萬을 거느리고 와서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石峴 등 10여 城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用兵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나가 대적하지 않았으므로 漢水 북쪽의 諸部落이 많이 함락되었다.¹⁵⁰⁾

위의 기사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한강 이북까지 진출해서 백제 영역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계는 '漢水北'을 임진강 이북 쪽으로 재해석했지만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후 영락 6년에 고구려가 점령한 지역 가운데는 고모루성을 비롯하여 남한강유역의 諸城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개토왕릉비문」에서 광개토왕이 올린 64城의 확보라는 戰果는 오로지 백제에만 국한된다는 해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¹⁵¹⁾ 그런데 이때 광개토

148) 李丙燾, 「高句麗 東黃城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70~373쪽.

149)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418쪽.

150) 『三國史記』 권 25, 진사왕 8년 조.

왕이 점령한 지역이 예성강을 넘지 못하였거나 임진강선에서 교착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광개토왕의 시호인 ‘廣開土境’이나 ‘廣開土地’가 지닌 거창한 의미가 무색해진다. 예성강선까지거나 혹은 임진강유역까지의 백제 성들을 점령한 전과로만 국한시킨다면 너무나 초라한 영역 확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계가 설정한 광개토왕대의 남방 영역은 여타 기록들과 맞추어 볼 때 명백히 타당해 보이지 않았다.

3. 阿朶城 位置 問題

「광개토왕릉비문」에 보면 永樂 6년인 396년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빼앗은 58城 가운데 아단성이 보인다. 그리고 온달의 전사처와 관련해 위치 비정에 쟁점이 되는 곳이 阿朶城이다. 아단성과 관련된 『삼국사기』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k. 고구려가 대방을 치니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의 왕녀 보과를 취하여 부인을 삼았다. 그런 까닭에 왕은 “대방은 우리 장인의 나라이니 그 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는 드디어 군사를 내어 구원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고구려의 침략를 염려해서 아단성과 사성을 수리하여 이에 대비하였다(책제왕 즉위년 조).

l. 왕이 도망해 나갔는데 고구려의 장수 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조금 있다가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번 침을 뱉고 그 罪를 세어 꾸짖으면서 아단성 밑으로 묶어 보내어 살해하였다(개로왕 21년 조).

m. 떠날 때 맹세하기를 “鷄立峴과 竹嶺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하고 나가 신라 군사와 아단성 아래서 싸우다가 流矢에 맞아 넘어져서 죽었다(온달전).

위의 기사 중 k와 l의 아단성은 지금의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아차산성이다. 그런데 아차산성을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으로 비정했을 때 수궁하기 어려운 難點이 보인다. 이에 대해 두계는 고구려가 백제의 58城을 공취한 것은 일시적인 일로서 곧 백제측에 반환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어떻든 廣開土王의 征服한 百濟의 58城은 대개 한강 및 임진강유역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그 중의 대부분은 다시 (百濟에) 돌려주고, 아마 方位上 必要로 臨津以北의 城邑만을 所有하였던 것 같다. 요컨대, 廣開土王의 百濟大征伐은 領土의 野慾보다도 膺懲의인, 報復의인 의미가 더 많았다고 考察되므로...”¹⁵²⁾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¹⁵³⁾

영락 6년(396)에 백제로부터 공취한 58성 가운데 아단성을 아차산성으로 비정한다고 하자. 그런데 아차산성 對岸에 소재한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 일대가 백제의 王城 구간이다. 그러므로 강을 隔하여 敵軍의 前哨基地와 왕성이 맞 대치한 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세계역사상 유례가 드문 희한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遷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천도했다는 명증은 어디에도 없다. 그랬기에 고구려는

151) 李道學,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南方」 『광개토왕과 고구려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11. 23, 29~47쪽.

152) 李丙燾, 「廣開土王의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82쪽.

153) 李道學,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6, 364~365쪽.

점령한 아단성을 백제에 돌려주고 회군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지만 타당하지 않다. 당시 양국 관계는 몹시 험악하였기 때문에 힘들게 공취한 성을 반환했을 리가 없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 낭만적인 해석인 것이다. 게다가 碑面이라는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백제로부터 점령한 58城의 이름을 낱낱이 기재하였다. 말할 나위없이 이는 점령지에 대한 영유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행위였다.¹⁵⁴⁾ 그 뿐 아니라 광개토왕릉을 수호하는 묘지기의 출신 지역 가운데 아단성이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아단성이 고구려의 영토였음을 명백히 해 준다. 온달의 전사지로서 아단성=아차산성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첫째 온달이 출정할 때 탈환 목표로 삼은 계림현은 문경 새재 동쪽의 하늘재이고, 죽령은 풍기 북쪽의 고개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서쪽은 충주와 단양을 비롯한 남한강 상류 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온달은 탈환을 목표로 한 지역이 아닌 한강 하류의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점은 확실히 모순이다. 둘째 온달성이 소재한 남한강 상류 지역에는 온달과 관련한 전설·지명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후대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온달이 왕에게 요청한 탈환 목표지인 계림현과 죽령 이서 지역은 공격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랬기에 온달이 탈환 목표지로서 남한강 상류 지역을 지목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 그렇기에 결정권자인 영류왕이 출병을 승인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아단성에 관한 혼동은 그것의 존재를 1 곳으로만 인식한데서 기인하였다. 아단성은 2곳에 소재하고 있었다. 삼국시대 때 단양군 영춘면 일대를 가리키는 ‘乙阿旦城’의 ‘乙’은 ‘웃’ 곧 ‘위’를 뜻한다. 이러한 ‘웃 아단성’은 또한 ‘아랫 아단성’의 존재 설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선상에서 볼 때 ‘웃 아단성’은 한강 상류에 소재한 온달성이요, ‘아랫 아단성’은 한강 하류에 소재한 아차산성을 가리킨다. 온달성의 공식적인 표기는 ‘乙阿旦城’이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아차산성과 함께 아단성으로 불리었고 그렇게 표기되었다. 그럼에 따라 2곳의 城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城으로만 오인하였기에 위치 비정에서 혼돈이 발생하였다.¹⁵⁵⁾ 이러한 사례로는 평양성(평양)과 남평양성(서울 북부 지역)이라는 2곳의 평양성을 거론할 수 있다. 여기서도 남평양성을 ‘平壤’으로만 기재하였다. 乙阿旦城을 阿旦城으로만 표기한 것도 이와 동일한 사례라고 본다. 따라서 上記한 m의 아단성을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온달성으로 지목하는 견해가 호응을 얻고 있다.¹⁵⁶⁾

참고로 두계는 광개토왕릉비와 관련된 광개토왕릉에 대해서 장군총설과 태왕릉설 중 다음과 같은 소견을 피력한 바 있다. 즉 “이 두 說中 어느 것을 좇을지, 아직 이 方面의 實地調査를 하지 못한 나로서는 갑자기 斷定하기 어려우나, 前者의 太王陵說이 더욱 合理的 양으로 생각된다”¹⁵⁷⁾. “이 두 說中의 어느 것을 옳다고 할는지? 나는 아직 이 方面의 實地踏査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말할 資格이 없으나, ‘國岡上’이라고 한 것을 보면 將軍塚說이 그럴 듯 하다¹⁵⁸⁾”. “이 두 說中의 어느 것을 좇을지? 나는 아직 이 方面에 조사는 하지 못하여 말할 資格이 없지만, 後者의 將軍塚說을 아직 좇는다”¹⁵⁹⁾고 했다. 두계가 集安 일대를 답사하지 못한 게 무척 아쉽게 느껴진다.

154) 李道學,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征服의 法則, 『東아시아古代學』 20, 2009, 107쪽.

155) 李道學, 『永樂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88, 98~99쪽.

156) 정구복 外, 『개정증보 譯註 三國史記』 4(주석편 下),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770쪽에서 온달의 戰死處인 아단성을 온달산성으로 지목한 견해에 동의했다. 다만 그 註釋 끝에 異見으로 두계의 아차산성설을 짧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아단성=온달산성설은 많은 동조를 얻었는데, 一例로 다음과 같다.

차용걸·박태우, 『溫達山城—地表面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89, 52쪽.

김영관, 『三國爭霸期 아단성의 위치와 영유권』, 『고구려연구』 5, 1998, 127쪽.

157)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419쪽.

158)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390쪽.

159)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285쪽.

4. 충주고구려비의 年號 確認 問題

충주고구려비는 건립 시기가 명백하지 않다. 年號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로 다양한 立碑 연대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두계는 충주고구려비에서 橫額으로 '建興' 연호가 보이더라고 했다. 그것도 현몽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충주고구려비 학술좌담회록에 수록되어 있다. 즉 “일전에 내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建興 두 글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야, 아 눈이 번쩍 떠어 가지고 전등불을 켜고 옆에 있는 拓本과 寫眞을 보니까, 그 글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興字가 예서체로 옆으로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대개 보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는데 자꾸 의심을 해도 아니되고, 또 의심할 곳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안된다고 보아요. 좌우간 建興 두 글자는 年號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그래서 이를 ‘高麗建興四年’이라고 풀고…”¹⁶⁰⁾고 했다. 이러한 두계의 題額 판독은 누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건흥 4년 5월에’¹⁶¹⁾라고하며 그러한 두계의 판독을 수용하였다. 두계가 제기한 論據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기에 사뭇 의아하게 생각될 뿐이다.

VI. 百濟史에 대한 考證

1. 『三國史記』 溫祚王本紀의 歷史地理 比定

삼한의 일원인 마한 소국으로서 백제의 성장을 말하는 게 통설이다. 그런데 삼한의 위치 문제와 엮어진 백제의 성립에 대해 두계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였다.

n. 위례부락이 세력 얻어…진한의 중심지인 伯濟(廣州)를 취하여 또 후에 수도를 그곳으로 옮기어 국호를 百濟라고 고치었던…¹⁶²⁾

두계는 백제 건국세력인 慰禮部落이 토착세력인 伯濟를 점령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百濟와 伯濟를 일치시켜 보는 게 통설일 뿐 아니라 지극히 타당하다. 그리고 두계는 伯濟를 '진한의 중심지'라고 규정하였지만, 『삼국지』에 보면 伯濟國은 마한의 일개 소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伯濟國은 마한 54개 國 명단에 보인다. 그러한 伯濟國을 두계가 마한이 아닌 진한의 일원으로 비정한 것은 자신의 야심작인 「三韓 問題의 新考察」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계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두계설을 취신하거나 계승하지 않았다. 공감할 얻지 못했다는 증좌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서 더 이상 曰可曰否하는 일은 낭비라고 하겠다. 두계의 지리비정에는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o. 우리 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략하여 오므로…(13년 5월 조).

160) 李丙燾, 「中原高句麗碑學術座談會錄」 『史學志』 13, 1979, 114쪽.

161) 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0, 358쪽.

162) 李丙燾,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471쪽.

두계는 위에 보이는 낙랑의 방향을 북으로 잡았고, 말갈의 소재지는 동으로 설정하였다.¹⁶³⁾ 그러나 온조왕본기에 보면 "말갈이 우리 北境에 연접하여 있고...(2년 조)"와 "말갈이 北境을 침범하므로...(3년·10년 조)"라고 하였다. 다루왕 28년 조에도 "가을 8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볼 때 말갈은 한결같이 백제의 북쪽에 소재한 것으로 적혀 있다. 온조왕 13년 조의 말갈이 백제 북쪽에 소재했다는 이 기록은 단순 오류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두계가 온조왕본기의 낙랑을 대동강유역의 낙랑군과 일치시켜 해석하는 바람에 원 사료의 위치까지 모두 고쳐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을 뜻할 뿐이었다. 『삼국사기』에서는 말갈의 백제 공격로를 보더라도 일관되게 북→남으로 이어지는 루트였다. 따라서 말갈이 백제의 북쪽에 소재하였다면 그 동쪽에 소재한 낙랑은 낙랑군과는 성격이 다른 정치 세력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게 더 건설적인 방안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백제의 南界로 적힌 熊川의 비정이다.

p. 8월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를 고하고 疆場을 획정하였는데, 북은 패하에 이르고, 남은 熊川에 限하고, 서는 대해에 이르고, 동은 주양에 極하였다(13년 8월 조).

두계는 위의 熊川을 안성천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熊川은 안성천이 아니라 지금의 금강을 가리킨다. 『삼국사기』 동성왕 13년 조의 "6월에 웅천의 물이 넘쳐서 서울의 2백여 호가 표몰되었다"라고 한 기사의 熊川은 錦江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일한 『삼국사기』에 보이는 熊川의 비정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계가 '진한 백제'와 마한과의 界線으로 지목한 熊川柵의 熊川을 안성천으로 설정한 것은 목지국 진왕의 소재지를 稷山으로 비정한데서 말미암았다. 熊川이 금강이라면 마한의 맹주인 목지국은 금강 이남에 소재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두계 자신이 득의에 차서 비정한 직산=목지국설이 자동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두계는 안성 孔道面의 '공도'라는 지명이 '고무(곰)'에서 유래했다는 착상을 하였다. 그리고 '熊橋里'라는 지명과 더불어 軍門里津(군문이 나루)도 '곰'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耳懸鈴鼻懸鈴일 수도 있는 방증에 불과할 따름이다. 熊[곰] 관련 지명은 두계 말마따나 "拜熊族인 우리 古代人들은 熊을 神聖視하여 種族의 記號는 물론, 그들이 가서 사는 곳의 名山과 大川에도 흔히 그러한 이름을 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古來로 우리 나라 地名中에 '고마'고무"고미"곰"개마"감"검" 혹은 이를 意譯한 熊字가 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는 周知의 사실이다"¹⁶⁴⁾고 하였다. 두계가 自認했을 정도로 '熊[곰]' 관련 지명은 전국적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안성천을 웅천으로 일컬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두계는 웅천=금강 기록을 뛰어넘을 만한 자료 제시를 하지 못했다.

2. 風納洞土城=蛇城說의 檢證

백제 한성기의 왕성으로 확정된 유적이 서울시 송파구 천호동에 소재한 사적 제11호인

163) 李丙燾,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488쪽.

164) 李丙燾, 「目支國의 位置와 그 地理」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48쪽.

풍납동토성이다. 그런데 두계는 풍납동토성을 『삼국사기』에 2회 등장하는 鎭城인 蛇城으로 비정하였다. 그러한 풍납동토성에 대해서는 1916년도 조사에서 今西龍은 이미 개로왕대에 “蒸土築城”한 宮址로서 지목한 바 있다.¹⁶⁵⁾ 즉 “이 宮城은 지금 廣州郡內 한강에 沿한 유적인 풍납리토성이라고 생각된다”¹⁶⁶⁾고 했다. 이렇듯 日帝 강점기 이래로 풍납동토성을 백제 왕성으로 지목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었다.¹⁶⁷⁾ 1925년의 소위 乙丑年 대홍수를 겪고난 후 鮎貝房之進은 풍납동토성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들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¹⁶⁸⁾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을 두계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q. 古來로 朝鮮式의 都城은 대개 山岳을 背景으로 하거나 혹은 丘陵에 依據함이 普通이니, 三國의 例를 들면, 高句麗의 國內城(通溝) 平壤城, 百濟後期의 都城인 熊津城(公州) 泗泚城(扶餘) 新羅의 月城(慶州) 등이 다 그러한 條件을 갖추고 있다(其他 高麗時代의 開京, 近朝의 京城이 역시 그러하다). 이들 都城은 특히 背山(或은 依陵)臨水의 地로서 그밖에 다시 非常時의 所用인 山城을 背後 혹은 近距離의 地에 가지고 있거니와, 山城이야 말로 우리나라式 都城에는 必須條件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風納里로 말하면 臨水의 條件만은 가지고 있으나--그 臨水라는 것도 그때의 漢水河道가 어떠한지 모르지만--너무도 지나칠 程度의 臨水라 할 수밖에 없고, 重要한 背山(或은 依陵) 또는 山城의 條件을 缺하여 있다. 너무도 平地河邊에 동떨어져 있는 感이 없지 않다.¹⁶⁹⁾

두계는 풍납동토성을 백제 왕성으로 지목할 수 없는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때 그가 제기한 風納洞土城=蛇城說의¹⁷⁰⁾ 핵심은 風納洞土城[바람드리城]과 蛇城[배암城]을 音相似로 연결시킨 데 있었다. 두계는 풍납동토성이 한강변에 근접한 관계로 왕성으로 간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후 산성도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 없다는 논지였다. 1939년 5월에 두계는 민속학자인 宋錫夏 및 金斗憲과 같은 진단학회 회원과 함께 夢村部落을 답사한 바 있다. 이때 두계는 몽촌토성이 백제 城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¹⁷¹⁾ 이 논문은 풍납동토성을 사성이라고 한 논문의 바로 다음 號에 게재하였다. 두 논문 모두 1939년에 출간된 『진단학보』에 게재되었다.¹⁷²⁾ 몽촌토성을 발견한 두계는 1976년에 기존의 논문을 묶어서 『한국고

165) 朝鮮總督府, 『大正5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1917, 72쪽.

166) 今西龍,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118~119쪽.

167) 鮎貝房之進, 『百濟古都案内記』 『朝鮮』 234, 1934, 115쪽.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考古學事典』 下, 2001, 1247쪽에서도 풍납동토성을 가리켜 “일제시대부터 하남위례성으로 비정하는 등 주목을 받아 왔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168) 鮎貝房之進, 『百濟古都案内記』 『朝鮮』 234, 1934, 115쪽.

이러한 基調는 中村春壽, 『日韓古代都市計劃』, 六興出版社, 1978, 62쪽에서 이어져 왔다.

169) 李丙燾, 『廣州 風納里土城과 百濟時代의 蛇城』 『震檀學報』 10, 1939;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02~503쪽.

170) 李丙燾, 『風納里土城과 百濟時代의 蛇城』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498~506쪽.

이 논문에서 李丙燾는 풍납동토성에서 출토된 바 있는 鏃斗와 같은 일련의 유물을 城의 성격을 암시해주는 關鍵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씨는 “유물이란 이곳저곳으로 流動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써 都城 與否를 論할 거리는 되지 못한다(504쪽)”라고 하였다. 그러나 鏃斗 2점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풍납동토성 내 한 개의 大陶甕 안에 담겨 있었다(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陳列品圖鑒』 第四輯, 1937). 그러므로 李丙燾의 견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朝鮮總督府博物館에서는 鏃斗가 출토된 장소에다가 標木을 세워둔 바 있었다(鮎貝房之進, 앞의 글, 115쪽).

171) 李丙燾, 『廣州夢村土城址--百濟時代의 城址』 『震檀學報』 11, 1939, 171쪽.

172) 이에 대해서는 李道學, 『百濟 漢城都邑期 王城에 대한 所在地 認識 檢證』 『山城論誌』, 2011-4, 광주문화권협의회, 2011, 23~32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사연구』(博英社)를 출간하였다. 이 때 그는 풍납동토성이 왕성이 될 수 없는 조건으로 자신이 제기하였던 “重要한 背山(或은 依陵) 또는 山城의 條件을 缺하여 있다”는 구절은 삭제했어야 마땅했다. 몽촌토성은 해발 50m 안팎의 구릉에 소재한 城으로서, 풍납동토성과는 불과 6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런 만큼 몽촌토성의 존재야 말로 두계 자신이 설정한 都城의 기준에 풍납동토성이 부합됨을 오히려 웅변해 주는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계는 王城이 臨水한다면 입지 조건으로서 대단히 불리하다는 관념을 지녔다. 반면 “山岳을 背景으로 하거나 혹은 丘陵에 依據함이 普通이니, 三國의 例를 들면, 高句麗의 國內城(通溝) 平壤城, 百濟後期の 都城인 熊津城(公州) 泗泚城(扶餘) 新羅의 月城(慶州) 등이 다 그러한 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산악과 구릉을 입지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국내성은 西壁이 압록강의 지류인 통구하와 접하여 있다. 평양성 곧 장안성은 대동강과 접했다. 웅진성과 사비성은 금강 변에 소재하였다. 신라의 반월성은 문천 가에 소재했다. 요컨대 두계가 열거한 왕성들의 입지 조건은 한결 같이 하천을 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강변에 소재한 풍납동토성이야 말로 오히려 왕성으로서 적합한 조건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풍납동토성은 배후에 구릉지 토성인 몽촌토성과 엮여져 있지 않은가? 따라서 풍납동토성이 입지 조건상 왕성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오히려 王城의 입지 조건은 하천변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제나 고구려의 기원이 되는 夫餘 王城의 경우도 송화강변에 소재한 南城子인 것이다.¹⁷³⁾ 어김 없이 하천을 끼고서 국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왕성이 소재하였다.

그러면 왕성이 하천에 소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水路의 이익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통과 유통, 그리고 교류의 수단인 하천변에 입지한 관계로 水路의 管掌에 유리하였다.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利點이 분명 존재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풍납동토성은 장대한 外觀에 걸맞게끔 국가 심장부로서 기능을 했던 權府로서 손색이 없다.¹⁷⁴⁾

두계의 풍납동토성=사성설은 논거 자체의 취약성은 물론이고 수증하기 어려운 논리였지만 미친 영향은 몹시도 컸다. 이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후인 1964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었던 金元龍은 풍납동토성을 비록 試掘 형식이기는 하지만 발굴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러나 김원룡은 풍납동토성을 백제 때 사성으로 규정했던 이병도의 견해를 입증하려는 선에서 발굴을 마무리한 것처럼 비쳤다. 이후 풍납동토성=사성설은 확고한 정설로 굳혀졌다. 아울러 많은 支持者들을 量産하였다. 대표적인 이가 노중국과 권오영이었다.¹⁷⁵⁾ 물론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풍납동토성 발굴 이전에도 이 설의 盲點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지만 소수 견해에 불과하였다.¹⁷⁶⁾ 풍납동토성을 사성으로 지목한 것은 두계의 명백한

173) 武國勛, 「夫餘王城新考」 『黑龍江文物叢刊』, 1983-4; 武國勛 著李道學 譯, 「부여왕성신고-전기부여왕성의 발견」 『우리문화』, 1989, 10-11월호, 64~69쪽. 30~36쪽; 李道學, 『고대문화산책』, 서문문화사, 1999, 275~300쪽.

174) 이상의 서술은 李道學, 「百濟 泗泚都城의 編制와 海外 交流」 『東아시아 古代學』 30, 2013, 235~238쪽에 의하였다.

175)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56쪽.
權五榮, 「4世紀 百濟의 地方統治方式 一例」 『韓國史論』 18, 1988, 14쪽.

176) 金廷鶴, 『任那と日本』, 小學館, 1977, 249~250쪽.
李道學, 「百濟 蛇城의 位置에 對한 再檢討」 『韓國學論集』 17, 1990.
_____,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關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_____,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260~291쪽.

오류로 밝혀졌다. 문제는 후학들이 두계의 견해를 盲從한 관계로 史蹟 제11호가 제대로 管理되지 못한 관계로 엄청난 후유증을 현재까지 남겼다는 것이다. 鑑戒가 되는 사례라고 하겠다.

3. 近肖古王代の 馬韓 平定 地域 考證

백제는 4세기 중엽에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3에 이르는 지역을 직접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백제는 이 무렵에 國勢를 크게 떨쳐 북쪽으로는 예성강까지, 남쪽으로는 노령산맥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영향력은 영산강과 낙동강유역에 까지 미쳤던 것이다.¹⁷⁷⁾ 예컨대 백제는 정치적으로 최대의 라이벌인 고구려를 공격하여 그 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북진의 성과는 현저하였다. 또 백제는 영산강유역과 낙동강유역에도 진출하여 마한 잔여세력과 가야제국을 제압하였다. 백제의 정지할 줄 모르고 추진되어 온 정복사업의 성과는 근초고왕 당대의 일이었다. 근초고왕대에 절정을 이룬 백제의 정복 활동은 크게 세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즉 영산강유역과 낙동강유역 그리고 예성강유역으로의 진출이었다. 이 가운데 백제가 크게 주력한 것은 마한 지역의 제패였다. 근초고왕의 척경과 관련해 두계는 『일본서기』 신공 49년 조의 다음 기사에 접근했다.

r. ……그리고 比自焮·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7國을 평정하였다. 이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의 枕彌多禮를 屠戮하여 백제에 내려주었다. 이에 그 왕인 肖古 및 왕자 貴須 역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였다. 그 때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와 같은 읍락이 자연 항복하였다(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 이에 백제 왕 父子 및 荒田別·木羅斤資 등이 함께 意流村[지금의 州流須祇를 말한다]에서 만나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 禮를 두렵게 하여 보냈다. 오직 千熊長彦이 백제왕과 함께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 맹세하였다. 다시 古沙山에 올랐 다……

위와 같은 백제의 마한경략 기사와 관련해 백제에 복속되었다는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라는 지명에 대한 비정이다. 두계는 이 구절의 지명을 內藤虎次郎의 說을 좇아 ‘比利·辟中·布彌·支·半古’의 4邑으로 끊어 읽었다. 이는 뒤의 ‘四邑’이라는 문자를 의식한 끊어 읽기였다. 그 결과 이들 지명은 지금의 전라남도 지역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비정되어 왔다.¹⁷⁸⁾

그러나 신공 49년 조의 지명들을 ‘四邑’에 한정시킨 해석은 적합하지 않다. 신공 49년 조 地名 말미의 ‘四邑’이 4개 邑을 가리킨다고 하자. 그러려면 『일본서기』의 다른 용례와 마찬가지로 ‘凡四邑’으로 표기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더구나 古四是 古沙와 동일하게 독립된 지명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 49년 조의 지명들을 ‘四邑’에 한정시킨 해석은 적합하지 않다.¹⁷⁹⁾

이에 대한 代案으로 比利와 辟中에 이은 ‘布彌支半古四邑’을 ‘布彌支半古四’로 끊어 읽는 새로운 讀法이 제기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이들 지명은 『삼국지』 한 조에 보이는 마한제국

李亨求, 『서울 風納土城[百濟王城] 實測調査研究』, 1997.

177)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發展過程에 관한 檢討」 『韓國學論集』 19, 1991, 185~186쪽.

178)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12~513쪽.

179) 李道學, 「榮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百濟文化』 49, 2013, 119~120쪽.

인 ‘不彌國·支半國·狗素國’과도 잘 연결된다.¹⁸⁰⁾ 따라서 후자 끊어 읽기의 타당성이 드러난다. 동시에 比利는 保安, 辟中은 金堤, 布彌는 井邑, 支半은 扶安, 古四는 古阜로 새롭게 비정할 수 있다. 게다가 근초고왕 부자가 倭將과 회동하여 기쁨을 나누었다는 의류촌은 일명 ‘州流須祇’라고 하므로 周留城을 가리킨다. 주류성은 전라북도 부안으로 비정한 견해와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비정은 근초고왕 부자와 倭將이 맹약했다고 하는 벽지산과 고사산이 辟中(전라북도 김제)과 古四(전라북도 고부)로 각각 비정되는 데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일본서기』 신공 49년 조에 보이는 백제의 마한경략은 古奚津만 전라남도 강진에 비정될 뿐 나머지는 모두 금강 이남부터 노령산맥 이북 지역에 해당되고 있다.¹⁸¹⁾ 즉 369년 ‘마한경략’ 이전 백제의 남쪽 경계는 금강이었다. 금강을 남계로 하는 백제의 영역은 『삼국사기』 온조왕 13년 조에서 웅천(금강)을 南界로 하는 영역 기사와 연결이 된다.¹⁸²⁾ 이러한 접근은 5세기 말까지 변성했던 영산강유역 토착세력의 강대한 위상을 반영하는 고고학적 위상과도 부합하고 있다.

4. 近肖古王代 ‘移都漢山’ 記事의 考證

다음의 기사에서 보듯이 근초고왕은 371년의 평양성 전투 승전 직후 한산으로 천도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漢山으로 ‘移都’한 것이다.

s.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¹⁸³⁾

두계는 ‘移都漢山’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즉 “어떻든 이와 같은 戰果를 올린 近肖古王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首都를 漢山下에서 漢山(南漢山城)으로 옮기었다. 아마 高句麗의 報復的인 侵入을 두려워함에서가 아니었는가 의심한다. 종래의 史書에는 이 漢山을 北漢山으로 잘못 認識하여 北漢山城에 遷都한 양 記錄하였으나 그것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¹⁸⁴⁾ 라고 하였다. 그러나 두계는 371년에 하남시 춘궁동에서 移都한 곳이 북한산성이 될 수 없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구려가 南進에 전념하는 차원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바 있다. 백제의 경우도 고구려를 꺾는 기세를 타고 北進의 軸을 한강 이북으로 옮긴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왕을 살해하여 기세등등한 시점에서 보복이 두려워 남한산으로 천도했다는 정황 제시도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백제는 7년 후인 377년에 근구수왕이 3萬 병력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까지 쳐들어 갔다.¹⁸⁵⁾ 그러할 정도로 백제는 北進에 기세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80) 全榮來, 『周留城白江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 1976, 46~56쪽.

全榮來의 견해는 千寬宇가 “全榮來씨의 견해와 같이(『周留城白江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 1976, 單行冊子), 『日本書紀』를 도리어, 『三國志』를 따라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으로 읽는 것이 도리어 순리가 아닐까(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197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99, 393쪽)”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神功 49년 조의 점령지에 대한 새로운 讀法은 全榮來의 創案임을 알 수 있다.

181) 이병도는 369년 南征 이전 백제 영역을 노령산맥 이북으로 간주했다(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13쪽).

182) 李道學,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140~141쪽.

백제가 노령산맥 이남 즉 영산강 유역을 영토적으로 직접 장악한 시기는 5세기 말로 간주한다(李道學,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韓國學報』 63, 1991, 77~78쪽).

183) 『三國史記』 권 24, 근초고왕 26년 조.

184)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10쪽.

185) 『三國史記』 권 24, 근구수왕 3년 조.

371년 ‘移都漢山’의 ‘移都’는 바로 인접한 구간 정도가 아니라 한수 이남에서 이북으로의 천도에 걸맞는 文字라고 하겠다. 만약 풍납동토성에서 몽촌토성이나 혹은 하남시 춘궁동에서 남한산성으로 왕이 거처를 옮겼다면 ‘移居’라고 했어야 마땅하다.¹⁸⁶⁾ 게다가 『삼국유사』에서는 이 사실을 “北漢山으로 移都했다”¹⁸⁷⁾라고 했다. 이때 移都한 漢山の 소재지를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北漢山’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였다.¹⁸⁸⁾ 그리고 漢山이 北漢山을 가리키는 『삼국사기』의 동일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즉 “漢山州都督 邊品”(奚論傳)을 “北漢山州軍主 邊品”(진평왕 40년 조)라고 하였다. 이는 백제 王都 選定說話에서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랐다(遂至漢山 登負兒巖)”고 한 부아악이 지금의 북한산인데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8월에 왕이 장차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에 이르렀는데, 그 밤에 큰 별이 軍營 안에 떨어져 소리가 났다. 왕이 심히 꺼리어 중지하였다(아화왕 7년 조)”는 기사를 살펴 보자. 이 기사에 보이는 ‘한산 북쪽’은 온조왕 13년 조의 “한산 하에 柵을 세우고”라는 기사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柵을 세운 한산은 하북에 소재한 것이다. 게다가 『삼국사기』의 백제관련 기사 가운데 북한산과 관련 있음직한 ‘北漢山城’ 또는 ‘北漢城’의 존재는 보이지만(개루왕 5년 조·개로왕 15년 조·비류왕 24년 조), 남한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사는 일체 비치지 않는다. 따라서 근초고왕대에 移都한 한산은 한수 이북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침류왕대의 佛寺 건립 기사를 통해 漢山の 소재지가 가늠되어진다. 즉 “2월에 漢山에 佛寺를 세우고 승려 10인을 두었다(침류왕 2년 조)”라고 하였다. 백제 왕실에서 적극 수용한 불교였다. 그러고 보면, ‘한산의 佛寺’는 移都한 지 13년 후인 384년에 백제 왕실에서 건립한 최초의 寺刹인 것이다. 그러한 사찰이 왕성과 연계된 漢山에 소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따라서 앞의 기사의 漢山은 371년에 移都한 漢山이 분명하다. 결국 백제 최초의 佛寺는 한수 이북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초고왕대에 移都한 漢山の 왕성은 다음과 같이 395년에 등장하는 漢山城으로 간주된다.

t. 겨울 11월, 王이 湏水의 役을 보복하려고 친히 병사 7천 인을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 靑木嶺 밑에 행차하였지만 大雪을 만나 士卒 많이 凍死하였다. 廻軍하여 漢山城에 이르러 軍士를 위로하였다.¹⁸⁹⁾

위의 기사에 따르면 아화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한수를 건너 개성의 청목령까지 진군하였다가 회군한 곳이 漢山城이었다. 한산성은 371년에 한수 이북으로 移都한 漢山에 소재한 城이 분명하다. 그러한 한산성은 북한산성 내의 重興洞古城으로 보인다. 이곳은 “백제 중엽에 이곳에 도읍했다(百濟中葉都于此)”¹⁹⁰⁾라고 하였듯이 백제 왕성이었다. 그렇다면 중흥동 고성이 371년에 移都한 漢山の 漢山城이라고 하겠다. 두계가 ‘移都漢山’의 ‘漢山’을 南漢山

186) ‘移居’의 용례는 李道學, 「백제 왕궁과 풍납동토성--사료를 통해 본 한성백제 왕성」 『한성백제의 왕궁은 어디에 있었나?』,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2013, 9.27, 54~55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87) 『三國遺事』 권 1, 王曆 近肖古王 條.

188) 『世宗實錄地理志』 권 148, 楊州都護府 條. “楊州都護府 本高句麗南平壤城 一云北漢山 百濟近肖古王取之 二十五年辛未 自南漢山移都之”

189) 『三國史記』 권 25, 阿莘王 4년 조.

190) 『東國輿地備考』 권 2, 漢城府 關防 條.

城으로 새롭게 비정하려면 필자가 제기한 술한 반대 자료를 극복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두계는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한 마디로 일축하였다. 이게 ‘實證’은 아니지 않을까?

5. 七支刀 銘文 解釋 檢證

日本 奈良縣 天理市에 소재한 石上神宮 안의 禁足地 부근 神庫에는 엄중하게 封印된 나무 상자에 특이한 형태의 칼 한자루가 봉안되어 있었다. 길이 74.9Cm의 鍛鐵로 만든 양날 칼인데 몸체 좌우로 가지칼이 세개씩 뻗어 있다. 해서 모두 7개의 칼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七支刀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칠지도는 여느 칼과는 달리 칼몸의 앞뒷면에 모두 61字的 명문이 典雅한 書風으로 金象嵌되어 있고 외곽은 가는 金線으로 둘러져 있다.

칠지도의 존재는 『일본서기』 신공 52년(372) 조에 보인다. 즉 백제의 근초고왕이 사신인 久氐를 통하여 “칠지도 1口와 七子鏡 1面 및 각종의 重寶를 바쳤다”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한 칠지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백제 현상설, 둘째 위작설, 셋째 백제 하사설, 넷째 동진 하사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칠지도의 비중이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칠지도 연구에서 상존하고 있는 합일되지 않는 다양한 논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명문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 두계는 칠지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u. (앞면) 泰△四年△(九)月十六日丙午正陽造(日中)에 百鍊 鋼鐵의 七支刀를 만들었다. 이는 나아가 百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侯王들에게 供給할만하다. △△△(人名인 듯)가 製作함.

v. (뒷면) 先世以來로 아직 이 칼이 없었던 바, 百濟王世△(子) 奇生聖音이 짐짓(故=일부러) 倭王旨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後世에 (길이) 傳하여 보일지어다.

위와 같은 두계의 칠지도 명문 해석과 관련해 후학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의미 부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병도는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칠지도의 명문도 ‘倭王旨’를 이름으로 해석하면, 백제왕이 왜국의 侯王에게 칠지도를 하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칠지도는 후국에서 만들어 받쳤다가보다는 후국에 내린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후의 연구에도 대체로 계승되었다(註 36: 李道學, 「백제 칠지도 명문의 신해석」 『한국학보』 60, 일지사 1990).¹⁹¹⁾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李道學의 논문 제목은 미세하지만 잘못 인용되었다. 즉 '신해석'이 아니라 '再解釋'이 맞다. 문제는 李道學은 왜국의 후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는 두계설을 계승한 사람이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侯王’에 대한 해석이 두계와는 전혀 다르다. 때문에 사실 왜곡이다. 김두진은 스승인 두계에게서 ‘歷史學은 冷嚴·正確·科學的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違背한 게 된다.

191) 金杜珍, 『한국 역사학연구의 성찰』, 서경문화사, 2010, 140쪽.

두계가 倭王을 侯國의 王으로 간주했던 근거가 '侯王'이라는 칠지도 명문의 문자 때문이었다. 그런데 '侯王'은 博銘·刀銘·鏡銘 등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高位高官의 대명사적인 용어였다. 즉 '侯王'은 신분이 높은 고위고관이나 부귀한 사람을 가리키는 상용의 길상어로 밝혀졌다. 가령 길상구로 채워진 鏡銘 등의 “位至公侯”·“位至三公”라는 문구나 「유주자사진묘지」의 ‘仕宦日遷位至侯王’ 에서와 같은 유형에 불과하다. 칠지도를 소유하게 되면 신분까지 상승한다는 길상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순조롭게 후왕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가능하다)”로 풀이하는 게 그 길상적인 성격에 맞는 해석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구절의 논의와 관련하여 종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宜△ 供侯王”의 ‘△供’은 王侯制라는 신분질서의 관점에서 대왕인 백제왕이 후왕인 왜왕에게 칼을 하사한다는 의미의 “수여하다”·“공급하다” 등으로도 해석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기실 칠지도의 표면은 연호와 결락된 제작자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길상구에 불과하다.

한편 두계는 종래부터 논란이 일었던 ‘世△’를 문맥상 ‘世子’로 석문하였다.¹⁹²⁾ 그러나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子’字가 전혀 판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¹⁹³⁾ 뒷 구절의 ‘聖音’을 백제의 왕자 호칭인 ‘セシム’로 간주할 때¹⁹⁴⁾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聖音’이 ‘セシム’와 음이 닮지도 않았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聖音’이 왕자를 가리킨다면, 굳이 동일한 면에서 그것도 ‘世子’로도 併記되었다는 게 되므로 어색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새롭게 시도되어야만 한다. 앞면과 후면이 대구문인 점을 주목하는 게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뒷면의 ‘先世’와 ‘後世’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표기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百濟王世’의 ‘世’ 역시 백제왕 치세시를 가리키는 시간에 대한 표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世’의 용례는 「船山古墳鐵劍銘」의 “治天下獲△△△鹵大王世”라는 문구에도 보이고 있다.¹⁹⁵⁾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그리고 대구문인 만큼 앞에서는 칠지도가 없었다고 한 데 반해 뒤에서는 그것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百濟王世’ 또한 ‘先世’에 대응되는 문구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世’는 시간에 대한 표기로 생각된다.

두계는 칠지도의 산지로 추정되는 谷那鐵山을 황해도 安峽으로 지목하였다.¹⁹⁶⁾ 그러나 황해도 安峽은 “고구려 阿珍押縣이었다”¹⁹⁷⁾고 했다. 그러므로 阿珍押은 谷那와 음운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谷那鐵山은 전라남도 谷城과 연결된다. 谷城은 백제 때 欲乃郡이었다.¹⁹⁸⁾ 그러한 欲乃是 谷那와 연결이 가능하다. 字典에 보면 '谷'字에는 '곡'·'욕'·'록'의 3가지 음을 가지고 있다. 즉 '곡'音 외에도 '욕'音이 붙었다.¹⁹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谷'을

192) 李丙燾, 「百濟 七支刀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26쪽.

193) 諸釋文을 검토해 볼 때 ‘子’로 판독할 수 있는 字形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奈良國立博物館, 『七支刀と石上神宮の神寶』, 2004, 9쪽에서도 이 글자가 적혀 있던 공간은 맨 밑의劃이 ‘一’이므로 더욱 가능성이 없다. 鈴木勉·河内國平, 『復元七支刀』, 2006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칠지도 명문 해석에서 두계와 大綱이 동일했던 上田正昭도 ‘子’字釋文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계가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李丙燾, 「百濟 七支刀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28쪽).

194)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1962, 192~194쪽.

195) 문헌상으로는 『日本書紀』 권 19, 欽明 2년 4월 조에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安羅·加羅·卓淳厚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隆”라고 하여 보인다.

196) 李丙燾, 「百濟 七支刀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20쪽.

197) 『三國史記』 卷35, 地理 2.

198) 『三國史記』 卷36, 地理 3.

199) 民衆書林 編輯局 編, 『韓漢大字典』, 民衆書林, 2002, 1950쪽.

고유명사인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욕'으로 발음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곡성군지』 건치연혁조에 보면 곡성군을 일명 욕내[浴川]라고 하였다.²⁰⁰⁾ 1663년(현종 4)에 증건된 客舍 현판 이름이 浴川館이었다. 1761년(영조 37년)에 간행된 邑誌 이름도 『浴川誌』였다. 이러한 '욕내'는 백제 때 欲乃와 동일할 뿐 아니라 욕나(谷那)와 음운상으로도 무리없이 연결되고 있다. 게다가 谷那 지명은 아화왕의 소위 無禮를 빌미로 왜가 탈환했다고 주장하는 '東韓之地'와 더불어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으로 비정되는 '枕彌多禮' 등과 함께 보인다. 즉 “백제인이 來朝하였다[百濟記에 이르기를 阿花王을 세웠으나 貴國에 무례한 까닭에 우리의 枕彌多禮 및 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를 빼앗았으므로 왕자 直支를 天朝에 보내어 先王의 우호를 닦았다]”²⁰¹⁾라고 하여 보인다. 따라서 谷那鐵山은 전라남도 곡성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²⁰²⁾ 두계의 谷那=安峽說은 명백히 타당성을 잃었다.

6. 關彌城 位置 究明

백제 關彌城에 관한 기록은 「광개토왕릉비문」과 『삼국사기』에 보인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관미성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한편 백제의 북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면 관미성은 고구려가 백제 지역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또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관미성의 존재가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광개토왕릉비문」의 영락 6년(396)조에 의하면 관미성은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공취한 58城 700村 가운데 '關彌城'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전략적 의의를 반추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關彌城의 위치는 고구려 정복전의 성격 및 남하루트를 비롯한 4세기 후반 고구려와 백제의 戰線 및 그 전쟁 루트를 이해하는데 긴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要衝地인 관미성의 역사·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그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다음과 같이 摘記하였다.

- w. 7월에 고구려왕 談德이 병사 4만을 거느리고 와서 북변을 치니 石峴 등 10여 城이 함락되었다. 왕은 담덕이 用兵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하니 漢水 북쪽의 여러 부락이 많이 함몰되었다. 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삼국사기』 권 25, 진사왕 8년 조).
- x. 10월에 백제의 관미성을 攻陷하였다. 그 성은 4면이 峭絶하고 海水로 둘러있는데 (海水環繞), 왕이 군사를 7道로 나누어 공격하여 20일 만에 함락하였다(『삼국사기』 권 18, 광개토왕 즉위년조).
- y. 8월에 왕이 武에게 말하기를 “관미성은 우리 북변의 要害地(我北鄙之襟要)인데 지금은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과인의 痛惜하는 바이다. 卿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雪辱하라”고 하였다. 드디어 병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南境을 칠 것을 계획하고, 武가 몸소 사졸에 앞장서서 矢石을 무릅쓰고 石峴 등 5성을 회복하려 하여 먼저 관미

200) 서울대학교 奎章閣, 『全羅道邑誌 二 (谷城)邑誌』, 2003, 174쪽.

201) 『日本書紀』 卷10, 應神 8년 조.

202) 이상의 서술은 李道學, 「谷那鐵山과 百濟」 『東아시아 古代學』 25, 2011. 65~102쪽에 의하였다.

성을 둘러쌌으나 고구려인이 성을 굳게 지켰다. 武는 糧道가 이어지지 못하므로 이끌고 돌아왔다(『삼국사기』 권 25, 아화왕 2년 조).

관미성에 관한 이 같은 문헌기록을 토대로 할 때 그 위치는 다음과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관미성은 백제의 왕성인 한성을 기준으로 할 때 북변에 위치하여야 한다. 둘째 왕이 痛惜해 하였을 뿐 아니라 그 奪還 意志가 執拗하였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셋째 석현성과 상호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그것도 그 남방에 소재하여야만 한다. 넷째 험절한 지형에 축조되어 있으며 海水로 둘러싸여 있다.

두계는 관미성을 喬桐島로 지목했다. 두계가 제기한 關彌城=喬桐島說의 근거는 고구려 때 喬桐島의 지명 高木根縣의 ‘高木’은 ‘고목’·‘고마’와 音似하다. 또 이것은 關彌城의 ‘關彌’, 閣彌城의 ‘閣彌’와도 통하거니와, “海水環繞” 기록은 海島인 교동도의 지형과 걸맞다는 데 있다. 즉 교동도의 華蓋山城은 “海中華蓋山城插青天”(李穡의 詩)라고 하였듯이 험고한 곳에 소재하고 있어, 관미성의 입지 조건과 부합된다는 것이다.²⁰³⁾ 그러나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동도는 당시 백제인들의 지리 관념과 부합되지 않는다. 즉 강화도로 유력시되는 섬을 “國西大島”²⁰⁴⁾라고 한 데 반해, 관미성은 “我北鄙之襟要”라고 하여 백제 北邊에 소재한 성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高木根’을 ‘關彌’·‘閣彌’와 음상사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셋째 관미성이 海島에 소재한 성이었다면 “海水環繞” 기록을 굳이 特記하였을까 의심된다. 설령 그렇다면 ‘海島’에 소재하였다고 기록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地形 描寫가 필요하였을까? 넷째 C에서 보듯이 관미성과 석현성은 하나의 지역 방어 단위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할 때 백제군이 내륙의 석현성을 공격할 목적으로 먼저 海島인 교동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연계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을 준다. 다섯째 관미성이 海島에 소재하였다면 고구려군이 7道로 나누어 공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 고구려군의 水軍作戰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미성을 강화도 일원으로 비정하는 두계의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關彌城 소재지 구명의 단서가 되는 立地 條件은 다음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백제 王城을 기준으로 할 때 北邊인 동시에 海水가 들어오는 江을 낀 險絶한 지형에 위치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듯이 본디 말갈의 침공로이기도 한 백제 東北의 關彌嶺의 존재를 주목해야 한다.

z. 9월에는 말갈과 關彌嶺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삼국사기』 권 25, 진사왕 3년 조).

위의 기사에 보이는 ‘關彌嶺’은 關彌城에 대한 소재지 구명의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關彌城은 關彌嶺이라는 嶺上에 소재한 城이라는 점과, 또 이곳은 말갈의 침공로에 위치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미성은 석현성의 남쪽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지역으로는 예성강 중류 지역과 그 지류인 馬灘을 끼고 있는 南岸 지역 특히 南川과 金川 구간을 지목할 수 있다. 이 구간은 평양과 개성을 연결시켜 주는 要路이기도 하거니와 海水가 經度 127 線 以東까지 미쳤다는 점을 고려한 데서 나온 것이다.²⁰⁵⁾

203) 李丙燾, 「廣開土王의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79쪽.

204) 『三國史記』 권 25, 辰斯王 7년 조. "秋七月 獵國西大島 王親射鹿"

關彌城의 위치에 대해 두계가 제기한 喬桐島說의 맹점을 摘出하여 보았다. 허점이 자못 많은 것 같다.

7. 武寧王의 系譜 究明

백제 제25대 무녕왕은 웅진성 도읍기(475~538)에 국가 중흥에 진력한 영주로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그가 백제 역사에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받게 된 데는 1971년 여름 공주 송산리 백제 고분군 지역에서 그 5호분과 6호분의 배수시설 공사 중 실로 우연하게 그 능이 발견됨에 따라 재조명을 받게 된 때문이었다. 무녕왕릉에서는 모두 108종 2,906점의 유물이 발견되어 백제 최고급 문화의 찬연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가장 값진 유물은 무녕왕과 그 왕비의 묘터를 토지신으로부터 구입했음을 밝혀주는 文券인 買地券이었다. 매지권에는 무녕왕인 ‘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이 癸卯年 5월에 62세로 사망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로써 무녕왕의 계보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얻었거니와, 정치적 급변기였던 웅진도읍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권력구조와 그 추이에 관한 보다 정확한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

백제 무녕왕의 계보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동성왕의 第2子라고 하였다.²⁰⁶⁾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본서기』 무열 4년 조에 인용된 『백제신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末多王無道 暴虐百姓 國人共除 武寧王立 諱斯麻王 是琨支王子之子 則末多王異母兄也

즉 武寧王을 東城王(末多王)의 異母兄이라고 하였다. 한편 『일본서기』 웅락 5년 조에는 무녕왕을 개로왕(加須利君)의 자라는 또 하나의 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녕왕릉 매지권」 발견 이후 나온 이기동·노중국·천관우 등의 논문에서도 무녕왕의 계보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²⁰⁷⁾ 다만 두계는 『百濟新撰』의 계보에 대해 "한 有力한 異說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²⁰⁸⁾라는 정도에서 멈췄다. 오히려 두계는 무녕왕을 동성왕의 異母弟로 간주하는²⁰⁹⁾ 오류를 범하였다. 무녕왕의 계보에 대해서는 필자가 대학 재학 때 『삼국사기』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백제신찬』 기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²¹⁰⁾ 그랬기에 "저자가 대학 시절에 구명한 무녕왕을 비롯한 해당 백제 왕계는 훗날 현역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던 노중국 교수의 勞作 『백제 정치사연구』에 인용되었을 정도로 학계에 새롭게 기여한 연구 성과였음은 분명했다"²¹¹⁾고 自讚할 수 있었다.

205) 이상의 서술은 李道學, 「百濟 關彌城에 관한 一考察」 『伽倻通信』 19·20合集, 釜山大學校 博物館 伽倻通信 編纂委員會, 1990; 『백제 한성·웅진성시대연구』 일지사, 2010, 241~251쪽에 의하였다.

206) 『三國史記』 권 26, 무녕왕 원년 조. “武寧王 諱斯摩 或云隆 牟大王之第二子也”

『三國遺事』 권 1, 王曆. “第二十五 虎寧王 名期摩 卽東城第二子”

207) 李道學, 「漢城末·熊津時代 百濟 王系の 檢討」 『韓國史研究』 45, 1984, 13쪽 註 48.

208) 李丙燾, 「百濟 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55쪽.

209)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1977, 403쪽.

210) 李道學, 「百濟 王系에 對한 異說의 檢討」 『東國』 18, 東國大學校 校誌編輯委員會, 1982, 164~178쪽.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 王系の 檢討」 『韓國史研究』 45, 韓國史研究會, 1984.

上記한 校誌 수록 논문은 필자가 1981년 하반기에 제출하여 졸업 후인 1982년 5월에 간행되었다.

211) 李道學, 「머리말」 『백제 한성·웅진성시대연구』, 일지사, 2010, 3쪽.

8. 彌勒寺 創建 時期 問題

두계는 「관세음응험기」에 보이는 武廣王을 『삼국유사』 무왕 조에서 武康王으로 표기된 武寧王으로 지목하였다. 『삼국유사』의 서동설화에 대해 서동 즉 무왕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의 결혼을 동성왕과 신라 왕족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한 사실의 투영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동성왕대에 미륵사 창건을 시작하여 그 아들인 무녕왕대에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익산은 동성왕 때로부터 別都視하여 彌勒寺와 같은 巨刹을 일으켜 아들 무녕왕대에 완성을 告하고"²¹²⁾고 했다. 이는 두계가 薯童說話를 재해석하여 내린 결론이었다. 이러한 두계의 학설은 상당히 기발하면서도 참신하였지만 전혀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일단 미륵사지 탐이 동성왕대~무녕왕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양식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09년 1월에 미륵사지 서탐을 해체하면서 나온 「사리봉안기」를 통해 그간 인식했던 선화공주의 존재가 보이지 않자 史在東과 같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의해 두계설은 지지를 받고 적극적으로 해석되었다.²¹³⁾ 그러나 두계설은 사학계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못하였다.

VII. 『三國志』 東夷傳 韓 條 및 新羅와 加羅史 考證

斗溪는 民族誌의 성격이 강한 『三國志』 동이전 韓 條의 풍속 기사 중 새롭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 즉 馬韓 項에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官家에서 성곽을 쌓게 되면,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모두 등에 가죽을 꿰고 큰 밧줄로 그곳에 한 丈쯤 되는 나무 막대를 매달고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일을 하는데,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며 또 이를 강건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건장한 사내라고 해도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환호’가 나왔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랬기에 두계는 지게노동을 잘못 보고 기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²¹⁴⁾ 그러나 노예노동설과 成年式說을 비롯하여 築城儀禮說까지 제기되었다. 가령 염소의 피가 묻은 칼로 소년들의 이마에 자국을 내었다. 이마의 피를 닦을 때 소년들은 반드시 ‘큰 소리로 웃어야’만 한다는 로마제국의 루페르칼리아 축제가 있다. 또 허리 부분만 적당히 가린 소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염소의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였다. 그 매를 맞으면 순산과 다산을 한다고 믿었기에 젊은 여인들도 그 매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삼국지』의 고통을 수반하는 위의 행위는 어쩌면 견고함을 축원하는 주술적 성격의 축성의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²¹⁵⁾

그리고 『삼국지』 한 조의 弁辰 項에는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금 진한 사람은 모두 납작한 머리이다”라는 頭蓋變形에 관

212) 李丙燾, 「薯童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51쪽.

213) 史在東은 2009년 이전부터 일관되게 두계의 論旨를 支持하였던 터였다(史在東, 『百濟 武寧大王과 佛教文化 史』, 中央人文社, 2006, 145~147쪽).

214)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91~292쪽.

215) 李道學,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한 조의 풍속 기사」 『꿈이 담긴 한국 고대사 노트 (상)』, 一志社, 1996, 78~79쪽.

한 구절이 있다. 두계는 이 구절도 한국인들 가운데는 납작머리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訛傳으로 해석하였다.²¹⁶⁾ 그러나 扁頭 풍속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뿐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널리 퍼져 있는 풍속이다. 그러한 편두 풍속은 실제 한국에서도 시행되었다. 김해 예안리 85호분에서 출토된 3세기대의 女性頭骨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안리 85분 두계골과 古代 페루의 찬카이(Chancay) 57 두개골의 正中矢狀 윤곽도를 겹쳐 보면 前頭扁平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²¹⁷⁾ 따라서 『삼국지』에 적힌 편두 기록은 두계가 상상한 것처럼 訛傳은 아니었다.

두계는 音相似에 의한 새로운 지명 비정을 많이 하였다. 가령 『삼국유사』에 적힌 5가야 중 古寧伽耶 註에서 咸寧 즉 咸昌이라고 하였다. 이와 엮어서 두계는 晋州 古名인 居熱과 古寧이 음이 近似하고 지리적 중요성(雄州居牧)에 비추어 볼 때 경상남도 진주로 비정하였다.²¹⁸⁾ 그러나 水路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야제국이 낙동강과 연계되어 있다면 晋州는 南江圈으로서 이들과는 圈域이 다르다. 더구나 5가야6가야는 당시의 국호가 아니라 신라 말 고려 초에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등장한 호족들이 자신들이 신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고 한다.²¹⁹⁾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古寧伽耶를 '5가야'에서 삭제하는 일은 의미 없게 된다.

두계는 경주시 효자동 송화산에 소재한 金庾信墓를 현재의 송화산 묘가 아니라 서악리의 角干墓로 지목하였다. 송화산의 묘는 興武大王陵이 아니라 神武王陵의 잘못이라고 했다.²²⁰⁾ 이에 대해서는 金庾基의 즉각적인 反駁이 제기되었다.²²¹⁾ 필자 역시 斗溪說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김유신묘가 맞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²²²⁾

VIII. 맺음말

斗溪 史學의 중심적인 論考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두계가 제기한 歷史地理 比定の 많은 부분은 후학의 呼應을 얻지 못하였다. 두계가 得意에 찻던 三韓 중 辰韓의 위치 비정은 말할 것도 없고, 風納洞土城=蛇城說 등 술한 論考들이 現今에 와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혹자가 "60여 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선생의 고대 歷史地理 연구도 현재 학계의 定說로 되어 있을 만큼 그 자체 堅固한 편이다"라고 한 주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東京帝國大學 商大를 졸업하고 훗날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던 申泰煥의 두계 사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측과는 대별되기 때문이다.

216)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91쪽.

217) 金廷鶴, 「魏志 韓傳 扁頭 記事考」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1990, 317~339쪽.

218) 李丙燾, 「加羅諸國의 聯盟體」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13쪽.

219) 金泰植, 「加耶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55~56쪽.

220) 李丙燾, 「金庾信墓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710~735쪽.

221) 金庾基, 「金庾信墓의 異說에 대하여」 『考古美術』 제101호, 1969.; 『改訂版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172~192쪽.

222) 李道學, 「傳 金庾信墓에 對하여」 『文化財學』 6,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2009, 95~106쪽.

본 논문 104쪽에 “본고는 필자가 대학 시절인 1978년부터 1979년에 걸쳐 완성한 논문이다”고 했다. 그 때 탈고한 후 문화재관리국장을 역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였던 정기영 교수 古稀論叢 원고를 갑자기 請託받아 2009년에 넘겼던 글이다.

(震檀學會의 『韓國史』乙酉文化社에 대해)…이 7卷의 大成은 오늘의 史學발전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李丙燾史學에 대한 비판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것은 學問發展史上 흔히 경험하는 일로 이 경우에 한한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의 考古學의 발전과 한반도의 諸史實에 대한 시야가 滿洲·北部中國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記錄史에 대한 태도 변화도 있고 해서 새로운 國史學으로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그의 著述에 대한 後學들의 연구와 평가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李선생이 뒤잇는 韓國史學界에 던지는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 글을 그를 위해 세상에 남기고자 한다.²²³⁾

두계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던 학자였다. 上記한 혹자의 경우는 斗溪를 '神'으로 만들었다. 진정성 없는 過讚보다는 두계에 대한 申泰煥의 냉철한 평가야말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에서'에서 나왔음을 알려준다. 申泰煥의 평가는 왜 역사를 하는지에 대한 警鐘을 울려주는 것 같다.

斗溪의 역사지리 비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音相似에 의한 比定이었다. 비근한 예로서 漢四郡의 하나인 玄菟郡에 대한 비정에서도 고구려 수도였던 丸都城의 丸都와의 유사성에 힘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계의 제자인 김철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 지금 「玄菟郡及臨屯郡考」는 선생님께서 고증하신 것이 옳은데, 일본사람들과는 어떻게 달리 고증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高句麗의 丸都하고 玄菟 하고 음이 비슷한 점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시고 쓰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때가 있습니다.²²⁴⁾

두계가 풍납동토성을 사성으로 비정한 주된 요인도 바람드리(風納)=배암드리(蛇城)라는 자의적인 音相似에 맞춘 결과였다. 傍證 정도의 방법론을 핵심 근거로 삼은 결과 誤導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계는 音相似를 과도하게 사용한 관계로 논지의 핵심 要諦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훗날 고고학적 방법론과 같은 새로운 자극이 발생하면 의외로 쉽게 논지가 붕괴되고는 했다.

斗溪 史學은 '堅固'해 보이지만 의외로 허술한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계의 漢四郡 비정만은 적어도 한국의 講壇 史學에서는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점 奇異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해방 이전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적어도 남한 사학계에서는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비정은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다. 대신 그 역할은 소위 在野史學者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근자에는 樂浪 考古學에 일정한 성과를 올린 연구자에 의해 두계의 견해와는 달리 眞番郡 在北說이 취해지고 있다.²²⁵⁾ 결국 燕將 秦開가 고조선을 침공하여 진출한 界線을 박천강으로 설정했고, 평양에서 출토된 秦戈를 토대로 全燕시대에는 그 후 어느 때 대동강까지 진출한 것으로 간주한²²⁶⁾ 두계 설은 여전히 未檢證 상태라는 점이다.

필자는 斗溪 史學 중 歷史地理 분야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고 고심을 많이 하였다. 두계

223) 申泰煥, 「李丙燾 선생과 나」 『歷史家の 遺香』, 일조각, 1991, 18~19쪽.

224) 李丙燾, 「研究生活의 회고(2)——斗溪先生 九旬紀念 座談會」 『歷史家の 遺香』, 일조각, 1991, 292쪽.

225) 국립중앙박물관, 『樂浪』, 2001, 19쪽.

오영찬, 『낙랑군연구』, 사계절, 2006, 67쪽.

226) 李丙燾,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70~76쪽.

후손과의 관계 등 인간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았다. 게다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두계 사학에 대해 '認識'이 아닌 '實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자가 두계 사학을 검증하게 된 데는 大學時節 이래로 두계와 동일한 분야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所懷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두계 사학과는 學緣이나 地緣 혹은 血緣과도 무관하였다. 그랬기에 오히려 객관적인 評價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필자는 용기를 내어 두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객관적이고도 냉엄한' 태도로 두계의 實證史學을 검증해 보았다. 물론 필자가 본고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異見이 있는 부분도 있기에 어디까지나 필자의 所見이라는 제한된 입장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한계가 있지만 머리말과 맺음말에서 소개한 "…堅固한 편이다"라는 식의 阿諛性 평가보다는 학계에 기여하는 바는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自慰해 본다. 결국 苦心 끝에 필자가 내린 결론은 斗溪 史學에서 '實證'은 없다는 것이다.

토론문 3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의 ‘實證性’ 檢證」에 대한 討論

이도학 선생께서는 한국고대사 연구자 중 가장 많은 업적을 量産하고 계신 분이다. 토론자로서는 그 학문적인 부지런함과 아울러 독창적 발상에 항상 경외의 마음을 가져왔다. 논문이나 저서의 量的인 측면에서는 이미 이병도 선생을 능가할 수준이 아닌가 한다. 향후 기대되는 활동 여력을 따지자면, 분석 대상인 이병도 선생보다 훨씬 많은 연구 성과를 배출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도학 선생께서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고대사 연구자로서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병도 선생의 연구 업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셨다. 이도학 선생 발표문의 전체적인 논지를 볼 때, 토론자로서 공감하는 바도 있다. 그러나 의아한 부분도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집필을 시작한 지 90여 년이 되어가며 또 작고한지 25년을 바라보는 故人에 대한 분석에 일말의 아쉬움도 느껴진다.

부분부분 노출한 이도학 선생 자신의 견해보다는, 발표자께서 지적한 이병도 선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혹시라도 발표자의 의도를 오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머리말(2쪽)에서 발표자께서는 “두계의 학풍을 계승한” 이기동 선생의 견해를 인용하셨다. 두계의 “학풍”은 어떠하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쭙어 본다.
2. 아울러 해당 부분에서 발표자께서는 이기동 선생께서 이병도 선생의 역사지리 연구가 “현재 학계의 定說”이라 언급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셨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기동 선생의 언급은 이미 20여 년 전의 것이며, 당시는 『譯註 三國史記』(을유문화사)의 지명 比定 등을 통해 역시 이병도 선생의 견해가 정설화 되어 있었던 때라 보인다. 연구사적 성과에 대한 時差를 무시한 지적이 아닌가 여겨진다.
3. 衛滿 망명 시 ‘魑結蠻夷服’에 대하여
 - ① 발표자께서는 「충주고구려비」 등을 예로 들면서, ‘蠻夷服’이 服屬 儀禮에 따른 정치적 상징성(4쪽)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되기 20여 년 전에, 이병도 선생께서도 이미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5쪽) 위만이 고조선 사람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이를 김한규 선생의 주장처럼, 단순히 ‘협소한 民族主義의 情緒’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 보인다.
 - ② 발표자께서는 ‘魑結’을 安大會 · 손진태 선생 등의 견해를 참작하여, ‘복상투’가 아니라 흉노(6쪽)나 여진(7쪽)과 마찬가지로 辮髮로 파악하였다. 이병도 선생의 ‘복상투론’을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 저변에는 이병도 선생의 논문 발표 20여 년 후 발견된 秦始皇陵 兵馬俑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 발표자가 인용한 字典이나 辭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서술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사항을 굳이 변발로 파악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大漢和辭典』 12(691쪽)에도 나무망치 형태의 상투로 언급되어 있다.
4. 발표자께서는 東濊를 東扶餘에 비정한 이병도 선생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동예의 舞天과

부여의 迎鼓라는 祭儀의 명칭과 시행 시기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동예의 ‘속성’이 부여가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9쪽). 그런데 이는 발표자 스스로 부여를 정점으로 하는 ‘종족’ 구성에 “부여 · 고구려 · 백제(지배층) · 신라의 東海岸 住民 · 東濊 · 沃沮가 濊族”이라 구분한 것과 모순되어 보인다.

5. 발표자께서는 『三國志』 韓傳에 보이는 辰韓 右渠帥 廉斯鏹의 ‘鏹’는 이병도 선생처럼 ‘치’로 읽을 것이 아니라 『漢韓大辭典』(단국대학교, 2008)처럼 ‘작’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11쪽). 『漢韓大辭典』이나 『大漢和辭典』(大修館書店)은 『集韻』(宋, 1066)을 인용하여, ‘鏹’의 발음은 ‘測角切’이라 하였다. 현대 우리 발음으로 읽는다면 ‘측’과 ‘각’을 합성하여 ‘작’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測’의 중국 발음을 굳이 우리말로 표기하면 ‘치’이며, ‘角’ 또한 ‘지아오’이다. 宋代의 발음은 알 수 없으나, 현대 중국어 발음을 참작한다면 역시 ‘鏹’는 ‘치’로 읽어야 할 것이라 보인다.
6. 발표자께서는 濶達 戰死地인 阿旦城의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아단성을 想定하고, 단양의 온달산성이 ‘윗 아단성’, 서울 아차산성이 ‘아래 아단성’이라 하였다. 단양과 서울에 있는 산성을 각기 위 · 아래로 명명하는 것은 거리 상으로 너무 멀어 보인다.
7. 발표자께서는 아단성은 두 곳으로 파악하면서도, 백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熊川’을 安城川으로 이해한 이병도 선생과는 달리, 錦江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온조왕 때의 웅천도 금강이라면(20쪽), 당시 馬韓 54개국의 개략적인 위치 및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8. 발표자께서는 『三國志』 韓傳 馬韓에 보이는 이른바 ‘지게노동’에 대하여, 이병도(손진태) 선생과는 달리, 呪術的 성격의 築城 儀禮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로서는 해당 의례를 행한 他國 또는 다른 집단이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 후대로의 傳承은 있는지 여쭙어 본다.

발표문을 접하면서 발표자께서 이병도 선생의 너무 오래 전 연구 성과를 발표자 중심의 현재적 입장에서 분석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아울러 수 십 년 연구 성과가 축적된 현재, 이병도 선생의 지난 오류에 대한 지적에 집착함으로써, 옳던 그르던 이병도 선생께서 쌓아놓은 선구적 업적에 대한 평가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역사학의 기본이 ‘실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학파처럼 ‘실증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색해 보이지만, 이병도 선생의 연구가 실증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판단한다. 논문으로 완성하여 公刊할 때, 발표자의 정체된 속고를 기다려 본다.

주제발표 4

두계 이병도의 금석문 연구 인식과 변화

이우태 (서울시립대)

I. 머리말

II. 금석문 연구 내용

III. 연구 방법과 태도

IV. 맺음말

주제발표 4

두계 이병도의 금석문연구 인식과 변화

I. 머리말

두계 이병도 선생은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 근대사학의 개척자이고, 실증사학의 태두이다. 최근 그의 연구 성과에 대한 많은 논고가 나오고 있음은, 그가 갖는 한국 근대사학에서의 무게와 비중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²²⁷⁾

70여년을 넘는 그의 연구 역정에서 수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은 그가 ‘삼면작업’이라고 일컬었던 고대사분야, 고려시대 지리도참사상, 조선시대의 유학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분야의 업적은 모두 나름대로의 의의와 중요성을 가지는 것임에 틀림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 하나를 든다면 무엇보다도 한국고대사의 체계를 세우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고대사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도 그가 세운 한국고대사의 체계는 여러모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두계의 업적은 성과면에서 보다는 방법론에서 보다 본질적인 의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흔히 실증사학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연구방법론은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사실이다.²²⁸⁾ 특히 역사지리 분야의 지명 고증의 성과는 지금까지도 많이 준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연구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치밀한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대사의 경우 특히 1차 사료인 금석문에 대한 그의 관심과 활용도도 매우 높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과연 실증사학을 제창한 두계가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인 금석문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금석문 자료의 활용과 이용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실증적인 연구 방법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의 실증사학의 성격을 규명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여

227) 그의 생애나 업적에 관한 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金杜珍, 2012, 「斗溪의 史學과 韓國古中世 思想史 탐구」 『진단학보』116.

金杜珍, 2008, 「斗溪 李丙燾(1896~1989)의 史學과 近代 한국사학의 수립」 『歷史學報』200.

김일수, 2008, 「이병도와 김석형 : 실증사학과 주체사학의 분립」 『역사비평』82.

민현구, 1999, 「이병도」 『韓國史市民講座』24.

閔賢九, 2008, 「이병도, 순수 학구적 자세로 한국사학의 토대를 쌓다」 『韓國史市民講座』43.

閔賢九, 2012, 「斗溪 李丙燾의 修學과정과 초기 學術活動」 『진단학보』116.

李基東, 2012, 「李丙燾 선생의 韓國 고대 역사지리 연구와 그 學術史的 위치」 『진단학보』116.

이홍자, 2005, 『일제시대의 진단학회의 성격』 서울시립대학교(석사).

趙仁成, 2009a, 「李丙燾의 韓國古代史研究 : 漢四郡·三韓의 歷史地理 研究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55.

趙仁成, 2009b, 「李丙燾의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 : 『韓國古代史研究』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44.

趙仁成, 2011, 「이병도와 친관우의 고조선사 연구」 『韓國史市民講座』49.

228) 閔賢九, 2008; 趙仁成, 2009b.

기에서는 고찰의 대상을 고대사 분야에 한정하였다. 두계가 여타 방면의 연구에서도²²⁹⁾ 금석문 자료를 활용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II. 금석문 연구 내용

두계의 금석문에 대한 관심은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금석문 자료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느낌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백제의 근초고왕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개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금석문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百濟史上의 近肖古王(346-375A.D.)은 저 高句麗의 廣開土王(391-412A.D.) 新羅의 眞興王(540-576A.D.)과 나란히 일컬을 수 있는 拓境의 主로서 다른 두 王에 있어서와 같이 당시 그 功業을 길이 誇示키 위한 紀功碑라도 宜當 세움직한 對象의 存在이었다. 그런데 實際 그러한 碑의 遺蹟은 勿論, 建碑事實의 有無 조차도 아무런 所傳이 없음을 遺憾으로 여긴다.²³⁰⁾

또 역사지리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던 일제시기에도 금석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황해도 신천군(信川郡)에서 소명현(昭明縣)의 위치를 알려 주는 명문전(銘文塼)이 발견되었는데, 두계는 발견자가 稻葉岩吉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²³¹⁾ 이는 물론 두계와 친분이 있었던 稻葉岩吉이 그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중인 것을 알고 알려준 호의에 의한 것이겠지만, 그로서는 역사지리 고증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자료를 얻어 이를 잘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초기(=일제시기) 연구에서 금석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그의 연구가 주로 고조선이나 한사군의 위치 비정에 관련된 것이었던 까닭에 상대적으로 금석문 자료를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예컨대 점제현신사비와 같은 유명한 금석문의 경우도 그의 논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79년 『한국고대사연구』에 「樂浪郡考」라는 새로운 논문을 게재할 때이다.²³²⁾ 이전에 진번군이나 현도군 등에 대한 논고에서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제현신사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는 그가 금석문 자료에 대해 요즈음의 학자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 이미 일제시기에 발견되어 상당수의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주요 금석문에 대해서도 그가 논문에 이용한 것은 상당히 시대가 지난 다음인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에도 상당히 담담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229) 『고려시대의 연구』에서는 여러 곳에서 금석문을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유학사와 관련된 저서와 논문들은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230) 이병도, 1970, 「百濟近肖古王拓境考」 『百濟研究』1, p.7.

231) 이병도, 1929, 「眞番郡考」 『史學雜誌』40-5, p.72.

232) 이병도, 1976, 「樂浪郡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두계가 금석문에 관한 논문을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1957년에 이르러서이다. 최초의 금석관련 논문인 「壬申誓記石에 對하여」가 이 해에 발표되었는데, 壬申誓記石이 발견된 것은 1934년의 일이고, 이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 1936년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그의 반응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기에 이미 발견되고 또 논란이 있어온 진흥왕의 순수비들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은 없고, 다만 「진흥대왕의 위업」이라는 다분히 계몽적인 글을 통해 그 비들을 소개하고, 池內宏의 오류를 담담하게 지적하고 있는 정도이다.²³³⁾ 물론 여기에는 일본 유학시절 적지않은 관심과 호의적인 도움을 입어온²³⁴⁾ 池內宏씨에 대한 배려가 작용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는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그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의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입장은 「廣開土王의 雄略」이라는 역시 계몽적인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²³⁵⁾ 이러한 그의 금석문에 대한 태도는 새로운 금석문이 발견되면 일이년 이내에 수십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참으로 담담할 정도로 담백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아무튼 「壬申誓記石에 對하여」 이후에는 새로운 금석문의 발견에 따라 이를 논한 몇 편의 논문이 있다. 이를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壬申誓記石에 對하여」(1957, 『論文集』5)
-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1979, 『史學志』13)
- 「百濟七支刀考」(1979, 『진단학보』38)
- 「백제무령왕릉출토지석에 대하여」(1979, 『백제무령왕릉 연구논문집』1)
- 「서원 신라사적비에 대하여」(1983, 『湖西文化研究』3)

이들 논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 생활 초기에서 금석문에 대한 담담한 태도와는 달리 중원비 발견 이후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금석문 연구에 나서고 있음이 주목된다. 중원비가 발견된 때는 두계가 이미 80을 훨씬 넘긴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금석문에 관한 일련의 논고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금석문이 갖는 자료로서의 매력에 이끌린 학문적 관심 이외에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학설을 이들 자료를 통해 보완하려는 학문적 열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 든 업적 이외에도 금석문을 주요 자료로 이용한 논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樂浪郡考」(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廣開土王의 雄略」(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233) 池內宏은 황초령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비는 원래 철원의 고석정에 있었던 것을 윤관이 여진 정벌을 위하여 황초령 지역으로 가는 길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남선에 의해 황초령보다 북쪽 지역인 마운령에서 진흥왕의 마운령비가 재 발견됨으로 인해 그의 논문이 옳지 않은 것임이 증명되었다. 池內宏, 1929, 「眞興王の戊子巡境碑と 新羅の東北境」 『古蹟調査特別報告』 6, 朝鮮總督府; 1979, 『滿鮮史研究』 上世 2, 吉川弘文館. 崔南善, 1930, 「新羅眞興王の在來三碑と新出現の磨雲嶺碑」 『靑丘學叢』 2, 靑丘學會; 1973, 『六堂崔南善全集』 2.

234) 민현구, 1999, p.120.

235) 이병도, 1976, 「廣開土王의 雄略」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慰禮考」(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新羅佛敎의 浸透過程과 異次頓殉敎問題의 新考察」(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金庾信墓考」(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그리고 이들 논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금석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이 눈에 띄는데, 이들 자료들의 활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의 저서는 아니지만 이난영의 『한국 금석문 추보』에 감수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음도 주목된다.

Ⅲ. 연구 방법과 태도

1. 임신서기석

두계가 처음으로 금석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집필한 논문은 1957년에 나온 임신서기석에 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두계의 금석문에 대한 연구 태도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라 하겠다.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1934년 5월 경주군(현 경주시) 북쪽의 현곡면 금장리 석장사 터 부근 언덕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금석문에 대해서는 이미 末松保和가 언급한 바가 있었다²³⁶. 여기에서 末松保和는 이 석문(石文)에 보이는 시(詩)·상서(尙書)·예(禮)·전(傳) 등의 경전을 학습한다는 내용²³⁷에서 이들 경전이 국학(國學)의 교과목인 것임에 주목하였다. 신라의 국학(國學)이 진덕여왕(眞德女王) 5년(651)에 시작하여 신문왕(神文王) 2년(682)에 완성되었으므로 진덕여왕(眞德女王) 5년(651) 이후의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비문의 임신년(壬申年)은 문무왕(文武王) 2년(662)이거나 성덕왕(聖德王) 31년(732)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두계는 이를 부정하고 문장에 보이는 두 사람의 서약의 기운이 화랑도의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연대를 진흥왕(眞興王) 13년(552)이나 진평왕(眞平王) 34년(612)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이유로 시(詩)·상서(尙書)·예(禮)·전(傳)이 신라 국학(國學)의 주요한 과목이기는 하나 경서가 신라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학(國學) 설치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증(智證)·법흥왕대(法興王代)에 신라가 이미 중국식 왕호와 연호를 사용하였고,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진흥왕대(眞興王代)에는 국사(國史)가 편찬되고, 순수관경비(巡狩管境碑)를 세웠고, 화랑도를 창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이 비문의 한문이 우리말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두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비가 이두가 채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에 건립되었다는 그의 논거의 하나이다.

2. 중원 고구려비

1979년에 발견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는 충북 충주시(구 증원군) 가금면(可金面) 용전리(龍田里) 입석(立石)부락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반도에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시대의 비이다. 마멸이 심하여 남아 있는 글자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판독 또한 어려

236) 末松保和, 1936, 「慶州出土の壬申誓記石について」 『京城帝大史學會誌』 10 ; 1954, 「壬申誓記石」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1995, 『新羅의 政治와 社會』 上, 吉川弘文館.

237) 壬申誓記石의 말미에 “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大誓 詩尙書禮傳 倫得誓三年”이라 하였다.

워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논자에 따라 견해차가 심하다.

1979년 6월에 단국대에서 중원비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계는 본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발표하여 그 이후의 이 비의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중원비와 관련된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비가 3면비인가, 4면비인가라는 문제 즉 비문의 시작면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와, 비의 건립연대 문제, 그리고 비의 내용이나 성격 등이 될 것이다. 두계는 우선 비문의 시작면을 글자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전면으로 보고, 이 면의 상부에 제액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제액의 내용은 ‘高麗建興四年’으로 보았다. 이 중에서 ‘建興四’의 세 글자는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후 제액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들이 우세했지만, 2000년 고구려연구회의 정밀조사 결과 제액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두계의 주장이 다시 주목되었지만 아직 제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두계가 주장한 ‘建興四年’이란 제액은 1915년 중원군(中原郡 : 현 충주시) 노은면(老隱面)에서 발견된 금동광배(金銅光背)에 “건흥(建興) 5년 병진(丙辰)”이라는 명문이 있는 것에서 추정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이는데, 두계도 처음에는 이를 백제의 연호로 보았으나 중원비 발견 이후 고구려의 연호로 고쳐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장수왕 63년인 475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비문에는 ‘十二月廿三日甲寅’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 또한 연대 추정의 주요 자료가 된다. 12월 23일이 갑인(甲寅)인 해는 449년(장수왕 37)과 480년(장수왕 68) 등인데, 임창순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450년부터 고구려와 신라 간의 불화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449년으로 보았다.²³⁸⁾ 그러나 두계는 자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十二月廿三日甲寅’의 ‘十二月’을 “十一月”의 오각(誤刻)이라고 보았다.²³⁹⁾

그리고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475년 5월 신라왕이 고구려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서로 형제같이 지내기로 했고 이에 고구려에서는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다우환노(多亏桓奴) 등으로 하여금 신라 영토에서 사람을 모집하려 했더니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가 고구려를 배반하여 백제 개로왕을 위해 사람을 동원했다”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좌측면은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이에 따른 고구려, 신라의 영토 확정에 따른 기사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3. 칠지도 명문

논문의 머리말에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칠지도의 복제품이 전시된 것을 계기로 칠지도 명문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연구 발표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이 시기에는 칠지도에 관한 국내외의 논문들이 많이 발표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 논고에서도 두계는 우선 일본의 사료들에 보이는 칠지도에 관한 기록들을 상세히 분석한 다음, 본격적으로 칠지도 명문에 대해 논술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명문에 쓰인 연호는 중국의 연호가 아니라 백제의 독자적인 연호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이는 백제가 왜에게 하사한 성격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38) 任昌淳, 1979, 「中原高句麗古碑小考」 『史學志』 13.

239) ‘十二月廿三日甲寅’을 ‘十一月廿三日甲寅’의 오기(誤記) 또는 오각(誤刻)이라고 보는 것은 두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손영중 등 다른 학자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손영중, 1985, 「중원 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5-2.

4. 백제무령왕릉지식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무령왕릉의 발견은 무엇보다도 지식의 발견으로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매의 지식의 전후 관계나 제작과정, 그리고 명문의 성격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매는 상세하게 두 지식의 작성과정과 그 성격을 고찰한 다음 이들 지식의 성격을 한위 육조시대의 매매문서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식 말미의 ‘不從律令’에 대해서는 이 율령을 天帝의 율령으로 보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율령도 이 묘소에 관한 한 미치지 못한다” 즉 묘역에 대한 것은 아무 율령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²⁴⁰⁾에 반대하여 이 율령을 중국의 천제 또는 천지의 율령과는 다른 世間の 율령으로 보아 “세간의 法令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5. 서원 신라사적비(운천동사적비)

1982년 3월 청주시 운천동 공동우물터에서 발견된 사적비는 비의 하반부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마멸이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글자들이 많은 난해한 비이다. 비문 중간에 ‘壽拱二年歲次丙戌’이란 간지(干支)가 나오는데, 수공(壽拱)을 당(唐)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연호 ‘垂拱’과 같다고 보아 신라 신문왕(神文王) 6년(686)으로 보기도 한다.

이 비는 마멸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빠서 전체 내용을 판독하기가 쉽지 않으나, 두 매는 보이는 글자들을 통하여 이 비가 신라 최고의 사적비임을 밝히고, 한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많은 구절에 대한 해결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상에서 두 매의 금석문에 대한 5편의 논문들을 간략히 소개하였거니와, 이들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모두 시대적 상황이나 관련 자료 속에서 금석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드는 태도이다. 대부분의 논문의 구성이 금석문과 관련된 자료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있음도 공통된 특징이다. 이를 통하여 우선 이 금석문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다음, 본격적으로 금석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기존의 학설들을 비판하고 수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금석문의 판독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시대적 상황이나 다른 금석문과의 관련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 태도는 금석문에 대한 연구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금석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그 금석문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조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금석문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밝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임신서기석을 화랑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여 그 연대를 추정하는 견해는 탁월한 것으로 지금도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먼저 설정한 이후 금석문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은 금석문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방해하는 굴레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다. 두 매의 연구에서 이러한 면이 가장 잘 들어나는 것이 바로 중원비에 대한 논고에서이다. 중원비의 발견 소식을 접한 두 매는 중원비의 발견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된 건흥(建興)명의 광배의 존재를 떠올리고, 그와의 연관 속에서 중원비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그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 제약에 대해 집착하고, 나아가 그 제약의 내용이 ‘建興四年’이라는 주장을 펴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의 주장에서 경청하고 받아

240) 임창순의 주장이다.

들어야할 점도 많이 있지만, 그의 주장의 근거가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황설정에서 연유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IV. 맺음말 - 한계와 아쉬움

이병도 선생의 업적이나 사학사적 의의를 논한 여러 논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두계사학의 장점 내지는 특징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연구가 사료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학설에 대한 엄정한 비판 위에 이루어졌음을 들고 있다. 그는 근본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기왕의 학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논문을 구성하고 있음을 여러 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 방법은 초기 일본 동양사학의 사료비판·고전비판의 정신과 방법을 이어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연구 방법과 태도에 견주어 볼 때, 금석문에 대한 그의 관심과 주의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대사의 경우 일반 문헌사료 보다는 금석문이 사료적 가치가 훨씬 높다는 사실은 전문적인 사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연구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거나, 소홀히 취급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커다란 의문점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연구 중에서 금석문에 관한 자료를 소홀히 하였거나 놓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고조선과 檀君에 관한 연구에서 단군신화에 대한 그의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檀君에 관한 설화의 내용이 단편적이고, 후대의 역사서에 실려있다고해서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부인하고 말살하려는 태도는 “輕率하고 無謀하고 또 非科學的 態度”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는 단군신화를 설화학적, 민속학적 방법으로 고찰하여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병도의 단군조선 인식은 단군과 단군조선을 부정하려던 일본학자들에 맞서 그 실체를 탐구하였던 崔南善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후 단군조선을 이해하는 전형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⁴¹⁾

또 그는 고조선 계열의 문화발상지를 당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었던 “渤海沿岸地帶와 半島의 西北海岸地帶를 圍繞한 馬蹄形의 地域” 곧 遼東半島와 지금의 平安·黃海道 지역에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중의 하나가 김재원씨에 의해 소개된 산둥반도의 무씨사당 화상석이라고 생각된다²⁴²⁾. 김재원씨의 주장은 이제는 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지만, 필자는 아직도 그의 견해는 단군신화의 기원이나 연대를 논하는데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김재원씨는 이병도선생과는 매우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었음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도선생의 주요 저서 중의 하나인 진단학회의 『한국사 고대편』(전 7권)의 선사시대편은 김재원씨의 서술로 이루어졌으니,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은 김재원씨와 이병도선생의 공저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을유문화사의 이 책을 펴낼 때에 김재원씨

241) 趙仁成, 2009, 「이병도의 한국고대사 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 『한국사연구』144, p.289.

242) 김재원, 1947, 『단군신화의 신연구』, 정음사.

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재원씨는 해방 후 진단학회의 이사가 되어 학회를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하였을 뿐 아니라, 이병도선생이 문교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김재원씨는 국립박물관장의 직을 맡고 있었고, 이병도선생의 9순기념 논문의 賀序를 쓴 것도 김재원씨였다. 두 사람의 이러한 친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병도선생이 김재원씨의 저서와 그의 주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김재원씨의 주장은 고조선을 건국한 중심세력의 분포권이 적어도 “渤海沿岸地帶와 半島의 西北海岸地帶를 圍繞한 馬蹄形의 地域”임을 증명하는 데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선생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삼한에 대한 연구 특히 진국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는 ‘扶餘隆 墓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이다.²⁴³⁾ 扶餘隆 墓誌는 1920년 중국 낙양(洛陽)의 북망(北邙)에서 출토된 것으로 하남도서관(河南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묘지명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이미 1920년대에 소개가 되었고,²⁴⁴⁾ 이 묘지의 탁본 사진이 조선 사편수회에서 발간한 조선사 제2편(1932)의 부여읍 졸거(卒去) 기사에 도판자료로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묘지의 첫머리는 “公諱隆, 字隆, 百濟辰朝人也(公은 이름이 隆이고 字도 隆으로, 백제 辰朝人이다)”라고 시작되고 있다.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룡을 ‘百濟 辰朝’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도선생의 삼한 위치 비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진한(辰韓)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견해였다. 3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17세기 초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마한을 경기·충청·전라도지역, 진한을 경상도 동북부지역, 변한을 그 남쪽으로 보고 각각 백제·신라·가야와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거의 정설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선생은 3한 가운데 진한은 경상도 동북부지역이 아니라 임진강과 한강유역의 일부 강원도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지역에 있었으며, 아마도 안성천(安城川)을 경계로 그 남쪽의 마한과 인접해 있었다고 보는 신설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현재 서울 부근에서 일어난 백제는 최초에는 진한의 한 소국(小國)으로 뒤에 남쪽으로 마한의 땅을 병합하여 고대국가로 발전했으며, 경주에서 일어난 신라는 삼국지(三國志)동이전 한(韓)조에 보이는 변진(弁辰)의 한 소국으로 이는 진한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생의 이러한 견해는 진국(辰國)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선생에 의하면 “진한이란 진국의 一隅를 割地받아 거주한 韓의 流移部落이란 뜻에서 유래한 표현”이며, 삼국지(三國志) 한전 조에 마치 3한 세력을 대표한 듯이 표기되어 있는 진왕(辰王)의 존재도 역시 진국의 왕이란 뜻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선생은 이 3한시대의 진왕이 직접 지배하고 있던 목지국(目支國)을 현재의 평택과 천안 사이에 위치한 직산·성환 일대로 보면서 비록 그 정치적 위상은 진국시대의 진왕보다는 다소간 약화되었을지라도 어쨌든 최고 지배자인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선생의 견해는 매우 혁명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백제가 진국을 계승한 국가라는 주장과 부여룡 묘지의 ‘百濟 辰朝’라는 표현은 일치하는 것으로, 선생의 학설을 주장하기 위한 절호의 자료

243)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기동씨가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 李基東, 2012, 「李丙燾 선생의 韓國 고대 역사지리 연구와 그 學術史的 위치」 『진단학보』116. p.313.

244) 內藤虎次郎, 1920, 「近獲の二三史料 - 夫餘隆墓誌 夫餘隆と新羅王との盟文 泉男生·泉男産墓誌銘 高慈墓誌 -」 『藝文』 11-3, 京都大文學會; 葛城末治, 1923, 「百濟扶餘隆の墓誌に就いて」 『朝鮮』 103, 朝鮮總督府.

가 아닐 수 없다. 선생은 백제의 왕실을 구성한 부여씨가 마한이 아닌 진한을 구성한 한 요 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선생은 현재의 서울에서 태동한 백제가 경기도 지역의 진한세력 전체를 장악하게 된 역사적 계기로 246년 진한 8국이 연합하여 위(魏)의 장악하에 놓여 있던 대방군을 상대로 싸웠던 사건을 강조하고 있거니와, 실제로 이 전쟁은 3한 연맹 대표로서 진왕의 권위 추락과 신흥 백제왕의 대두라는 양자 사이의 세력 역전을 초래한 큰 사건이었다. 이처럼 백제는 한강유역의 정치세력들을 통합한 뒤 남쪽으로 진출하여 마한의 세력을 병합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백제왕은 지난날 진왕의 지위를 대신한 계승자였다는 의미에서 ‘辰朝人’이라고 했을 법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이 흥미있는 자료를 끝내 외면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혹시 이 기록이 진왕이 마한 출신의 세력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삼국지 한전의 기사와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이는 선생의 주장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 결정적인 자료를 포기해야 할 난관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 자료를 선생이 주의깊게 보지 못한 까닭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이 금석문 자료에 대한 선생의 평소의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셋째로, 이병도 선생이 韓國史 연구에 크나큰 熱情을 갖고 왕성한 기세로 논문을 집필한 시기의 연구 성과에서 금석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업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선생의 일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시기는 대개 1920년대 중반 경부터 1930년대 말까지의 대략 15년 간으로 보는데,²⁴⁵⁾ 이렇게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별로 높지 못하였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몇 가지 한계점과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계가 금석문의 연구를 통해 한국고대사의 연구에 남긴 교훈과 영향은 매우 중요하고도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치밀한 상황 분석과 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태도는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꼭 본받아야 할 연구자세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병도 선생에 대한 연구 논문

金杜珍, 2012, 「斗溪의 史學과 韓國古中世 思想史 탐구」 『진단학보』116

245) 李基東, 2012, 앞의 글.

- 金杜珍, 2008, 「斗溪 李丙燾(1896~1989)의 史學과 근대 한국사학의 수립」 『歷史學報』200
- 김일수, 2008, 「이병도와 김석형 : 실증사학과 주체사학의 분립」 『역사비평』82
- 김정배, 1976, 「서평 - 이병도 저 『한국고대사연구』」 『亞細亞研究』19
- 민현구, 1999, 「이병도」 『韓國史市民講座』24
- 閔賢九, 2008, 「이병도, 순수 학구적 자세로 한국사학의 토대를 쌓다」 『韓國史市民講座』43
- 閔賢九, 2012, 「斗溪 李丙燾의 修學과정과 초기 學術活動」 『진단학보』116
- 李基東, 2012, 「李丙燾 선생의 韓國 고대 역사지리 연구와 그 學術史的 위치」 『진단학보』116
- 李基白, 1978, 「[서평] 「國譯 三國史記」」 『歷史學報』79
- 이홍자, 2005, 『일제시대의 진단학회의 성격』 서울시립대학교(석사)
- 趙仁成, 2009, 「李丙燾의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 : 《韓國古代史研究》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44
- 趙仁成, 2009, 「李丙燾의 韓國古代史研究 : 漢四郡·三韓의 歷史地理 研究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55
- 趙仁成, 2011, 「이병도와 천관우의 고조선사 연구」 『韓國史市民講座』49
- 편집부, 1966, 「斗溪 李丙燾博士 略歷」 『진단학보』29-30

□ 이병도 선생의 금석문 관련 연구업적

1.저서

- 이병도, 1959,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병도, 1976,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2.논문

- 이병도, 1957, 「樂浪郡考」 『한국고대사연구』
- 이병도, 1957, 「壬申誓記石에 對하여」 『論文集』5
- 이병도, 1959, 「北漢山州置廢問題」 『서울郷土』6
- 이병도, 1979, 「廣開土王의 雄略」 『한국고대사연구』
- 이병도, 1979, 「백제무령왕릉출토지식에 대하여」 『백제무령왕릉 연구논문집』1
- 이병도, 1979, 「百濟七支刀考」 『진단학보』38
- 이병도, 1979, 「新羅佛敎의 浸透過程과 異次頓殉敎問題의 新考察」 『한국고대사연구』
- 이병도, 1979, 「慰禮考」 『한국고대사연구』
- 이병도, 1979,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史學志』13
- 이병도, 1983, 「金庾信墓考」 『한국고대사연구』
- 이병도, 1983, 「서원 신라사적비에 대하여」 『湖西文化研究』3

토론문 4

“두계 이병도의 금석문 인식과 변화”에 대한 발표문을 읽고

평소 존경하던 이우태 선생님의 발표에 제가 토론자로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토론을 맡은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두계 이병도 선생님이 금석문을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 최초의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석문을 직접 활용한 5편의 연구 업적을 분석해 고대사연구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조리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발표문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읽으면서 발표 주제에서 좀 동떨어진 것을 포함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국내에서 이미 발견되어 학계에 널리 알려진 임신서기석이나 진흥왕 순수비 등을 직접 활용한 연구가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혹시 다른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자료 정리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가 아닌 가운데, 사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이至難해 매년 한두편의 논문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고,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석문 자료의 이용에 앞서 기왕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우선 몰입을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자료가 출현했다하더라도 일본인 학자가 아닌 두계 선생님의 손에 먼저 들어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서 논문을 쓸 형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금석문 자료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거나 중요시 하지 않은 것은 아닐런지요. 辰國, 辰王, 辰韓 등 3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알려진 부여읍 묘지명의 내용을 간과한 것도 이러한 두계 선생님의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해방 후에도 역사학계에서 부여읍 묘지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1995년(양기석, 「백제 부여읍 묘지명에 대한 검토」 『國史館論叢』 62집, 국사편찬위원회)이 되어서야 진행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둘째, 1966년 간행한 『진단학보』 29·30합집에 실린 두계 선생님의 약력과 논저를 보면 1925년 조선사편수회에 촉탁으로 일을 맡으신 이후인 1926년부터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1~2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1939년 12월을 끝으로 행방된 이후인 1948년 12월까지 8년 동안은 논문 발표가 없는 공백기였습니다. 그 동안 이화여전 강사(1941년 4월~1943)를 지내셨고, 해방 후에는 진단학회의 부활과 학보 간행, 임시 교원 양성소에서 『國史敎本』 편찬, 경성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있었다지만 왜 연구 논문을 전혀 발표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셋째, 두계 선생님의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1979년 중원 고구려비의 발견 이후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971년 7월 무령왕릉이 공주에서 발굴되고, 이듬해인 1972년 7월에 무령왕릉 출토 지식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하셨고(「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식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XI), 1974년 12월에 칠지도에 관한 논문(「百濟 七支刀考」 『진단학보』 38)을 발표하신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두계 선생님이 금석문에 대해 본격

적으로 관심을 가진 시기를 무령왕릉에서 묘지석이 출토된 1971년으로 소급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1979년 중원 고구려비 발견에 중점을 두신 까닭이 있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두계 선생님의 금석문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금석문이 발견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확한 판독과 번역이 앞서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장과 추측을 하며 갑론을박하는 것이 과연 학문적인 행위인지 스스로 반성합니다. 제게 성찰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이우태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